AUG 1 3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TORONTO, ONTARIO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898 1982년 8월 11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Wednesday, August 11, 1982

토론토발행인 : 김영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조심! 이민브로커

취업미끼 건당 8천달러 받아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 급증

캐나다에 정착하려는 한국인 여행자가 몰려들고 있다.

방콕에서 읽은 한국일보의 「극지에서 온 편지」(본지 6월28일자게재 엘로나이프독자 박룡만씨의 글)라는 것이 캐나다에 온 동기가 됐다는 홍모씨는 "비자에 기재된 여행목적이야 어찌됐던 자신의 목공기술을 살려 캐나다에 눌러 살고싶다"고 했다.

정착을 목적으로한 한국인여행자는 홍씨나 지난6일 하오 토론토공항에 도착, 밤낮도 제대로 안바뀐 신모씨처럼 개별적으론 온 경우도 있으나 교회를 통해 단체로 온 그룹도 있다.

한국 대한예수교장로교 선교회소속 주중회(42) 목사의 알선, 인솔로 12명의 단체 여행자들이 왔다. 이들의 여행목적은 아프리카 나이제리아 전도대회 참석차로 기재돼 있지만 캐나다에 정착하는 것이 실제 목적이다.

이들이 캐나다를 정착지로 택한 이유는 한결같이 "미국 비자얻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이들을 알선하는 이민및 여행브로커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국정부의 여행자유화에 따라 여권을 받기가 쉬워졌고 여권발급만을 목적으로 한 유령무역회사들까지 등장했다.

브로커의 조직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및 캐나다에도 뻗쳐있다. 왕복비행기표를 포함 여권및 비자발급까지의 수수료가 400~500만원(7, 8천달러)정도이고 토론토공항에서 블루어 한국인거리까지 데려다 주는데 또 60달러를 받는다.

그뿐이 아니다. 불법이민자들의 천국이라는 미국까지 데려다 주는데는 $1천의 웃돈이 든다.

신씨의 경우 80년도에 사우디에 노무자로 가서 1년반동안 일했다. 한국에 돌아왔으나 경기는 나쁘고 사우디에서 일했던 동료들로부터 미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솔깃했다.

부인과 3남매의 일가족을 거느린 신씨는 미국에서 한달에 적어도 1,000달러는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 여권은 이미 5월에 받았으나 미국비자는 계속 거부됐다. 캐나다의 토론토에 가도 일자리가 얼마든지 있다고 들었다. 캐나다 비자를 받은지 일주일 만에 KAL왕복비행기표를 받고, 한국을 떴다.

뉴욕을 경유, 막상 토론토에 와보니 일자리가 없고, 지렁이라도 잡으려니 그나마 날씨가 좋지 않다. "이곳에 올려고 진 빚도 갚아야 하고 가족들의 생계도 문제다. 빨리 돈을 벌어야만 한다"고 신씨는 걱정이 태산이다.

한국에서 브로커에게 돈만 떼이고 비행기에 올라보지도 못하거나 공항에서 입국이 거절되는 사람에 비하면 신씨는 그래도 나은 편이다.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단속은 캐나다가 미국보다 덜한 편이나 일자리 사정은 더 나쁘다. 캐나다인 실업자도 많아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들은 많지 않다. 이들에게 황금의 일자리이던 지렁이잡이도 피커가 흔해지자 2년전의 천마리당 30달러에서 12달러까지 내려왔다.

한국인불법체류자는 토론토에만도 적어도 100명을 넘는다. 이중에는 이미 수년전부터 선원비자, 여행비자등으로 눌러 앉는 경우도 있으나 문제는 새로 오는 여행자들이다. 이들이 발각되면 이민국직원에 의해 일단 감금되거나 보석금 2천달러를 물어야 풀려나오며 며칠뒤 반드시 이민청문회를 거친다. 이민청문회에서 판정관은 출국명령과 함께 캐나다입국을 영구거부(bar)시키기도 하고 1년간 캐나다 재입국금지 (ex clude 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불법이민자라고 해서 반드시 추방되는 것은 아니다.

불법체류자가 이민국에 자진신고하면 그 사람의 일자리나 생활안정도에 따라 일단 임시노동허가서(Temporary Working Permit)을 준후 이민판은 이를 청문회에 부친다. 이민재판도 3심제로 이민청문회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재심위원회(Appeal Board)에 상고할 수 있고 이것을 대법원까지 끌고갈 수 있다. 재판기간은 개인에 따라 다르나 2년~7년까지 끌 수도 있다.

◆대학생 문학써클〈구름다리〉가 공연하는 연극〈카인의 후손〉이 최종연습에 들어갔다. 왼쪽부터 한국어 배역진인 이웅건, 이성화, 이광복, 박지연. (관계 기사 2면에)

전두환대통령 수행 경제사절단 출발

(서울10일=연합)전두환대통령과 함께 캐나다및 아프리카를 방문하는 7명의 경제사절단이 9일 아프리카「자이레」로 떠났다.

이 사절단 멤버는 정수창 한국상공회의소장, 신병현 무역인협회장, 노인환 한국산업연맹부회장, 유기정 중소기업협회장등이 포함됐다.

캐나다 외무성

태평양 정상회담 "흥미로운 제안"

캐나다는 전대통령이 제안한 태평양 정상 회담에 대해 "흥미로운 제안"으로 생각하며 이에 대한 캐나다측의 공식성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연방외무성의 프랑소아·지라 공보관은 "외무성이 이미 전대통령의 제안을 알고 있으며 대통령의 방문에 임박, 이에 관한 공식성명이 있을 것이라고 본사와의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소, 고성능 잠수함 제조가능

시속 65노트, 2만3천톤급

소련은 시속 65노트의 2만3천톤급 잠수함 제조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해군력을 평가하는 영국잡지 「재인스 화이팅쉽스」의 잔 무어씨는 동 고성능 잠수함 제조능력 시기를 밝히지 않았으나 최근 소련해군이 신종의 고성능 잠수함 제조를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무어씨는 소련이 동 잠수함을 제조할경우 세계 군사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련은 현재 평균시속 32노트의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소련보유 잠수함중 가장 빠른 속도는 시속 42노트이다.

인삼재배 피치

외국관광객 대비

(서울10일=연합)86년 서울 아시안·게임및 88년 올림픽때의 외국관광객 수요에 대비, 인삼재배 농가가 늘고 있다.

전매청에 의하면 금년에 전국에서는 2,700만 평방미터에 인삼을 심었는데 이 숫자는 작년 1,800만 평방미터보다 50%가 증가한 것이다.

농부들은 올림픽때 약20만명의 관광객이 내한, 인삼을 많이 사갈 것으로 예상했다.

인삼은 4~6년생이라야 팔 수 있다.

세계경제 호전될듯

BOA, 83년부터

(시카고지사)세계경제가 83년 전환점을 맞아 상당한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뱅크 어브 아메리카 경제분석가 토버트헬러씨가 4일 말했다.

헬러씨는 83년에 인플레율이 하락되면 국제무역수지도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83년의 세계 총생산량이 3.1%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록키의 절경을 렌즈에

◆지난7월13~21일까지 토론토의 사진작가 5명이 촬영여행차 서부 캐나다의 명승지를 관광했다. 사진작가들은 칼가리부근 밴프국립공원, 재스퍼국립공원, B.C. 주립공원의 마운트·롭슨등지에서 캠퍼에서 기거하며 촬영했다. 본지는 앞으로 10여회에 걸쳐 이들의 사진작품과 여행담을 싣는다.

7회 사진촬영대회

단풍 한복미녀 앙상블

=10월2일, 보이드·콘지베이션=

한인사진협회(회장 전경수)와 토론토 한국일보사가 공동주최로 해마다 실시하는 아마추어 사진촬영대회 금년도 제7회 대회는 10월2일(토) 상오11시 보이드·콘저베이션공원에서 열린다.

추석맞이 단풍풍경 배경, 한복차림 미녀모델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이번 촬영대회는 바베큐를 겸하며, 모델로 한인·백인 미녀 4명이 등장한다.

이번 대회장 보이드·파크는 지난 제2회(77년) 대회 때와 같은 곳으로 단풍경치가 절경이며, 시냇물이 운치를 더해주는 촬영에 안성마춤인 장소이다.

지난 5회(80년)및 6회(81년) 촬영대회는 나이아가라를 모델로 1박2일 캠핑을 겸해 실시했었다.

이번 촬영대회도 칼라부·흑백부·슬라이드부의 3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인화 크기는 5"×7"로 출품마감 10월30일.

참가자격은 주최측 관계자(사진협회 임원및 한국일보사원) 제외, 한인및 타민족.

참가비 $10(칼라필름 1롤 제공), 선착순 100명에 한한다.

시상은 1~6등 트로피, 부상으로 특선(최고상)에 나이콘 카메라, 1등에 3각대, 2등에는 후래쉬가 수여된다.

◆문의및 접수처:

◉한국일보사(1025 Dupont St. 전화 533-2361)

◉전경수(36 Neapolitan Dr. 438-4435)

◉킴스카메라(619 Bloor St. W. 534-1085)

◉새한칼라(630 Bloor. St. W. 535-7772)

촬영대회 출품작품들은 합동전시되며, 입상작들은 한국일보 서울본사 발행〈주간한국〉, 또는 〈주간여성〉에 소개된다.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란콤화장품 대리점 귀국선물
☎ : 534－9977.7791 620A Bloor St. W.

BACK TO SCHOOL SPECIAL ★ 1982 ★

Cash & Carry에 한함 EXTRA SPECIAL : AUGUST 15, 1982까지

ITEM NO.	PACK	DESCRIPTION	SUGG. RETAIL	COST
□05-235	30	100 Sheet Refills Ruled	1.79	.75
□05-224	30	100 Sheet Refills Plain	1.79	.75
□05-233	20	200 Sheet Refills Ruled	3.35	1.37
□05-225	20	200 Sheet Refills Plain	3.35	1.37
□05-230	10	300 Sheet Refills Ruled	4.79	1.96
□05-238	8	500 Sheet Refills Ruled	7.99	3.45
□CP-456	25	1" Vinyl Binder one Trigger	3.00	1.15
□CP-466	15	1½" Vinyl Binder two Trigger	4.10	1.60
□CP-476	10	2" Vinyl Binder Two Trigger	5.25	2.15
□CP-6	25	Fold Over, Clip Board	2.45	1.05
□CP-1305S	50	Superpress Cover Binder	1.20	.57
□CP-13565/8	25	5/8" Pressboard Binder	2.40	1.00
□CP-1356	15	1" Pressboard Binder	2.40	1.00
□CP-1156½	25	5/8" Poly Press Binder	2.49	1.15
□CP-1156	15	1" Poly Press Binder	2.49	1.15
□CP-1105S	50	Poly Press Cover	1.35	.63

ITEM NO.	PACK	DESCRIPTION	SUGG. RETAIL	COST
□800P	12	Laurentian Pencils 8's	3.25	1.40
□1200P	12	Laurentian Pencils 12's	4.59	1.95
□2400P	6	Laurentian Pencils 24's	8.35	3.40
□1250-12P	12	Flowmarker Markers 12's	1.59	.75
□06-241	40	5 Pack Duo Tang Covers	2.49	1.12
□06-449	50	4 Pack 3 Hole Duo Tang Covers	2.25	1.05
□06-248	100	Duo Tang Covers	.45	21.35
□13-135	20	Coil Note Book 3 Pack 80 Page	4.55	2.15
□13-224	20	Coil Note Book 200 Page	2.55	1.22
□9702	40	Liquid Paper 2 Pack Retail 3.50	140.00	66.00
□584C	10	Liquid Paper single pack	1.75	.88
□1011	48	Scotch Tape ½"x1010' (2x24)	1.30	.60
□106	48	Magic Tape ½"x600' (2x24)	1.55	.70
□52-518	12	Selectum 7 pcs Math Set Metal	1.59	.75
□21-121	10/60	Type Tablet 8½x11 60 page	1.50	.69
□21-220	30	Type Paper 8½x11 144 Sheet	2.50	1.13

※ 7 월10일～8 월14일(이 기간동안은 토요일에 문닫음)
※ No further Discount

DOMINION SMALLWARES
920 CALEDONIA RD.
☎ : 789－7214(MR. 김)

4 LAWRENCE KEELE CALEDONIA DUFFERIN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0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기존딜러 기득권 인정"

백커협회, 본사측과 협상 성공

백커밀크 본사는 프렌차이즈계약이 끝난 상점의 기득권을 인정, 재계약 해주어야 하며 프렌차이즈비는 5천달러, 로열티는 기존수준을 유지하기로 결정됐다고 김병진 벡커프렌차이즈협회장이 발표했다.

지난 7일 토론토 서니부룩공원서 열린 협회의 임시총회겸 야유회에서 김회장은 지난 1년간 본사와의 협상결과를 보고하면서 "이상 3개항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회원권익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 회원들의 단결과 지원을 당부했다.

많은 상점들은 「5년 계약, 5년 연장옵션」 계약이 만료될 단계에 있어 본사와의 재계약 문제가 불안한 상태에 있었다.

애초 "재계약하는 상점들의 프렌차이즈비는 2만달러선이 될 것"이라고 알려져 딜러들은 이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상점을 팔고 살때는 프렌차이즈비와 무관하게 권리금이 붙는다.

재계약의 계약기간은 전과 같이 5년이다.

현재의 영업시간 상오9시~밤11시를 상오8시~밤12시로 연장하라는 문제는 미해결 상태이다.

본사측은 시간연장을 종용했으나 협회는 반대해왔다.

임시총회에 이어 70여명의 회원·가족이 모인 야유회에서는 청백팀 대항 야구시합과 어린이 자전거 릴레이가 있었다.

최상수 우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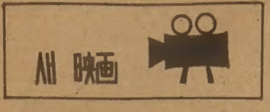
대사골프대회

제4회 캐나다대사배 쟁탈 교민친선골프대회에서 최상수씨가 76점으로 1등, 윤여경씨가 78점으로 2등, 이기훈씨가 80점으로 3등을 차지했다.

57명의 골퍼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로라의 캐링·플레이스·골프·클럽에서 열린 이날 대회의 시상은 박종선 부영사가 맡았다. 롱게스트상은 김영대씨, 니어리스트상은 최상수씨에게로 돌아갔다.

교·민·동·정

◆윤호영=선·라이프 보험인 윤씨는 2년간 맡아온 경기고교동창회(화동회) 회장직을 최근 벗어나 한결 홀가분한 기분. 후임 회장은 1년 후배인 신복균 박사(물리학), 부회장은 천충환씨, 총무 조병선씨. 경기동창회 회장단은 회원들의 투표제가 아니라 전임 회장단및 중진 회원들의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 전통이다.



새 映畵

삶의 시작부터 끝을 세밀히 묘사

「The World According to Garp」는 삶을 그 시작부터 끝까지 사생하듯이 담백하고 세밀하고 솔직하게 그려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생을 한번쯤 돌아보게하는 수준 높은 작품이다. 삶이 가질 수 있는 모든것-비극과 연약함과 애정과 고뇌 그리고 가정의 행복과 유머와 페스함이 전편을 가득하게 싸고 돌며 드라마를 이루고 있다.

T.S.가프(로빈·윌렴스)는 간호원인 어머니 제니·필즈(그렌·클로스)가 병원서 죽어가는 2차전 전투기기관총사수와 단 한번의 정사로 얻어낸 인생. 가프는 비행사였던 아버지를 늘 동경하며 동부의 명문학교를 거치면서 작가의 꿈을 키운다. 가프와 제니는 모두 작가가 되지만 가프는 순수한 작가적 욕망에 의한 글을 쓰고 제니는 일종의 참여문학작품 단 한권으로 여권운동가의 영웅이 된다.

제니는 막대한 돈을 벌어 해안가 저택에 남성과 세상에 의해 학대당한 여인들을 모아 여권과 생의 욕망을 키워주고 가프는 대학동창인 지와 천진미를 가졌으면서도 강한 내적 성의 불길을 품고 있는 헬렌(메리·베스·허트)과 결혼 두 아들을 낳고 행복에 겨워한다. 그러나 가프는 이같은 행복이 언젠가는 유기체같은 죽음이나 공포로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인간의 원초적인 느낌에 어두워 한다.

이 영화는 로빈·윌렴스의 순수하고 완벽한 연기가 빚어내는 유머와 온화함으로 코미디물같은 분위기도 느껴지나 어렸을 때부터 가프를 질투하는 못생긴 이웃소녀 푸·퍼시(브렌다·커린)의 음산한 모습을 대위시켜 삶의 양면성과 복합성을 교묘히 엮어가고 있다. 영화가 존·어빙의 소설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그 구성이 복잡하지만 격자무늬처럼 질서정연히 대조를 이루고 있어 한 인간의 생이자 모든 인간의 생의 평범한 철학을 절묘하게 조명해 나간다. 성전환한 제니의 추종자 로버타·멀둔(존·리트고)을 비롯 모든 출연배우의 연기가 완전무결할 정도이나 흠을 잡는다면 풍부한 구성에 욕심을 낸듯 한편에 너무 많은 생의 현상들을 엮어넣어 작품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의문하게 되는 점이다. 비틀즈의 「내가 예순네살이 되면」이 작품과 썩 잘어울린다.

조지·로이·힐감독, 워너작품, 등급R.

「가프의 세계」

▲비행사 아버지에 대한 동경은 가프로 하여금 레슬링 선수가 되게한다. 왼쪽은 원작자 존·어빙.

하이·팍 강간사건 범인 몽타쥬작성

◆피해자의 생생한 기억을 바탕으로 만든 범인 몽타쥬.

메트로·토론토경찰은 9일 하이팍 강간범 몽타쥬를 작성, 그림과 비슷한 인상자를 본 사람들의 신고를 요망했다.

지난 6월30일 토론토 CN타워 안내양(23)은 하이팍에서 일광욕중 흑인 또는 흑백 혼혈로 보이는 범인의 공격을 받았다.

범인은 이 여인을 계곡으로 끌고 가 얼굴을 벽돌로 내리친 후 강간했다.

이 여인은 사건후 1개월간 혼수상태에 빠졌으며 뇌수술을 받고 아직도 입원중이다. 범인은 나이 24~28세, 키 5피트5인치정도이다. 신고처: 전화 967-2407.

후끈한 젊음의 열기

〈카인의 후손〉마지막 점검

종합예술인 연극이 주는 독특한 감동은 막을 올리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땀과 정열이 뿜어내는 열기에서 비롯된다.

오는 13일부터 토론토대학 구내 U.C.Play House(79a St.George×Harbord)에서 공연될 연극「카인의 후손」에 동원되는 인원은 모두 20명의 젊고 발랄한 대학생들이다.

공연을 나흘앞둔 9일밤, 객석 1백여석의 U.C.플레이하우스는 마지막 점검에 몰두한 출연진들의 열기로 후덥지근하다.

무대에는 흑백의 벽, 서너개 층계, 술병이 놓인 테이블.

◆〈카인의 후손〉영어극의 배역진들. 왼쪽부터 임항빈, 이영희, 이성희. 서있는이가 민태규.

"돈"이 "인간"을 먹어야 하는가?

이민1세에 던지는 충격적 질문

영어극 출연진 요화역 이영희, 지니역 이성희, 태리역 민태규, 할머니역 임항빈(Helen)의 열연을 스탭을 비롯한 여남곱명이 숨소리도 죽이고 지켜보고 있다. 거침없이 능숙한 영어와 첫 무대답지 않게 자신감있는 연기가 진지하다.

불이 바꾸고 한글극 출연진 요화의 이성화, 지니의 박지연, 태리의 이광복, 할머니의 이옹진이 등장, 스토리를 엮어 나간다.

태리와 지니, 그리고 요화는 법으로 얽어진 의붓남매들이다.

돈의 효용성을 내세우고 늙은 할머니를 죽이고도 양심의 동요를 안느끼는 심리학을 전공한 요화, 철학을 전공한 탓으로 생각만 복잡할 뿐 요화에 이용당하는 태리.

밤마다 남몰래 아파트에 불을 질러 완전범죄를 꿈꾸며, 갈등을 해소하는 지니, 기도와 교회만 붙들고 있는 돈많은 할머니.

이 네명이 약50분간 엮어내는 스토리는 줄거리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롭고, 막이 내리도록 과연 이 가정의 문제는 누구의 책임인가하는 의문이 뇌리에 맴돈다.

원작자 엄혀은 "죄와 벌을 따지기 전에 목적(돈)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않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많은 인간적인 것을 잃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싶었다. 예컨대 돈을 벌기위해 자녀를 등한시하는 부모들에게도 이 연극이 던지는 질문이 날카로운 충격이 됐으면 한다"고 설명한다.

대학생문학써클〈구름다리〉가 한국말 연극공연을 기획한 것은 지난 4월. 창작극을 할 것인가 기성각본을 할 것인가하는 문제를 놓고 심각한 토의끝에 결국 창작극 의의를 크게 두었고, 엄혀이 각본을 맡았다. 영어 공연도 겸하기로 한 것은 한국어에 서투른 이민 2세들과의 "구름다리"역을 해야겠다는 사명감이 작용했다. 토론토대학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대사를 외우고 동작을 익혀가는 과정중 가장 힘들었던 일은 전체인원이 모이는 일. 방학중 써머·잡을 잡은 사람들을 비롯, 제각기 스케줄이 다양한 젊은이들이 3개월이란 기간동안 공동작업을 추진하기란 무더운 날씨만큼 고충이었다. 땀을 식히기 위한 드링크류도 각기 가난한 호주머니에서 갹출됐다.

"입장료가 $5씩 이지만 구름다리 동인지 제7집 무려 1백여 페이지의 문학지를 드리므로 그다지 비싸지는 않지 않느냐"고 묻는 기획의 박성민은 "다행히 한국어공연표는 총영사관, 문인협회, KUSA, 실학회, KIVF, 한국일보사등의 성원으로 거의 매진됐고, 영어공연표가 비교적 덜 팔리고 있다"고 말한다.

조명 김명세, 미술 조중형이 각각 맡았다.

젊은 지성과 그들의 뜨겁고 건전한 정열을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많은 교민들의 성원이 기대된다.

공연은 8월13일(금)부터 15일(일)까지 3일간 매일 6시에는 영어극, 8시30분에는 한국어극이 공연된다. 입장권은 당일 현장에서 판매된다. 영어극, 한국어극 각 $5.

(조미래 기자)

◆9일밤 연습에 참석한 연기자와 스탭진이 함께 포즈를 취했다.
영근, 이광복(뒷줄 왼쪽부터)

금리변동에 따라 **자동적으로 다달이 이자를 올려받는 정기예금** 을 이세상에서 보셨읍니까?

$2,800,000 을 **달성한** 여러분의 한인신용조합은 또 하나의 신종예금 "**오뚜기 정기예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교민 여러분께 봉사 합니다.

1. 명 칭:
오뚜기 정기예금
(VARIABLE TERM DEPOSIT)

2. 특징과 혜 택:
①은행 우대금리(BANK PRIME RATE)의 변동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자를 올려서 받게됨.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당시의 이자율보다 내려가지 않음.
②이자는 매월말에 정기적으로 받음.
③기한은 6개월·1년 두가지.
④중도해약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최소년리 12% 보장.

3. 권장대상:
①수시로 오르는 금리의 혜택을 빠짐없이 받고자 하시는 분.
②교회·단체의 기금, 장기성 예금등.
③특수목적을 위하여 이자의 별도적립을 원하시는 분. (모국방문·성지순례등)
④목돈의 예치로서 월정 용돈, 생계비를 얻고자 하시는분.

4. 기 타:
어느 금융기관보다 싼 이자로 대부하는 여러분의 한인신용조합은 CAR LOAN, MORTGAGE LOAN도 곧 시작합니다.

보험과 법이 보장하는
토론토 한인신용조합
641 BLOOR W. TORONTO M6G 1L1 ☎: 533-9387, 9388.

<제5계절>

의인 열사람

김 요 환 (목사 · 베다니성결교회)

◆김요환 목사

구약성서 창세기에 보면 유대인의 족장이었던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들은 목축업을 생업으로 하였기 때문에 항상 푸른 풀과 맑은 물이 풍성한 곳으로 찾아다니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들의 재산인 가축들이 많이 불어나자, 마침내는 분가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브라함은 거친 헤브론에 정착하고, 롯은 비옥한 땅 소돔과 고모라성이 있는 곳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런데 의, 식, 주에 부족함을 모르는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란 음란과 방탕과 폭행등 악한 일 뿐이었다. 인내하시던 하나님은 드디어 불로 심판하실 것을 결정하시고, 그의 사자들을 보내신다.

이 사실을 알게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을 구해 보려고 하나님께 진정을 하게 된다. 아브라함의 이론인즉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의인 50명이 없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의인의 수는 점점 줄어들어 45명, 40명, 30명, 20명까지 내려가다가 결국 10명선까지 줄어들고 만다. 아브라함도 열사람 이하로는 입을 다물고 만다. 최소한 의인 열사람도 없는 곳이라면 멸망해도 할 말이 없다는 뜻이리라.

금년은 비교적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여름이었던 것같은데, 요즘 멀리 바다건너 들려오는 소식이 더한층 열기를 가하는 것같아 불쾌지수를 높여주고 있다.

그것은 눈앞에 있는 현재의 정치, 경제, 사회의 문제가 논쟁의 초점이 된 것이 아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 역사를 가지고 극동아시아의 세 나라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다.

새해부터 사용할 일본의 고등학교 사회교과서 교정과정에서 주무관청인 일본문부성의 강력한 지시로 한국과 중국에 관한 역사적 사실중 일부 내용을 왜곡 표현한 곳이 이웃나라인 한국과 중국 국민들을 자극시켰고, 이제는 외교적 차원으로 문제는 커지는 것같다.

말은 "아"해서 다르고, "어"해서 다르다고 한다. 될 수 있는대로 똑같은 사실도 아름답게 표현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표현의 곡예가 사실 자체를 불투명하게 한다거나, 엉뚱하게 거짓된 것으로 바꿔놓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일본은 패전후 기적이라할만큼 놀라운 경제성장을 하여 세계시장을 석권하였다. 이른바 경제대국이 된 것이다.

이처럼 경이스러운 경제대국이 되어 잘 살게 된 것도 알고 보면 자신의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다. 인근에 있는 이웃나라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도저히 이룩할 수 없었을 것이다.

배부르고 부족함을 모르게 될 때 방자해지기 쉬운 것은 개인뿐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되었다", "안전하다", "태평성세다"하는 자만감이 들어갈 때가 실은 가장 위험한 때임을 알아야 한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전야도 그랬으니 말이다. 일본도 의인 열사람을 시급히 확보할 때가 온것이 아닌가? 일본의 교만과 독선과 위선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일본의 양심이 최소한의 수는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동경대학교 총장을 역임한바있는 "야나이하라"같은 분은 일본의 의인이요, 양심이었다.

그는 전쟁중에 있는 일본이 망해야 사는 길이 있다고 대담하게 외쳤던 사람이다. 그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으나 그는 끝내 승리하고 말았다.

이웃나라 이야기는 그만두고, 우리 조국의 현실을 생각해보자. 과연 열사람의 의인은 있는가? 아니 한사람의 의인이 있다고 하면 그 의인이 지금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나 의인은 결코 다수가 아닌 소수이다. 그러나 소수인 의인에 의하여 그 민족의 역사는 정화되고, 그 나라의 운명은 결정되는 것이다.

예수께서도 필연적으로 멸망의 운명을 초래할 조국 이스라엘을 보시고 슬퍼하셨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바 되리라…"

우리는 우리 조국의 영광스러운 내일을 위하여 의인 열사람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열사람중 '내가 한사람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金聖鍾작

<45>

殺意의 斷層

⑫

어느새 다시 그녀의 눈에 눈물이 괴었다. 두봉은 엷은 시선을 피하면서 중얼거렸다.

『섭섭하다는 게 아니라 일테면 그렇다 이거지.』

『저라고 뭐 돈을 찍어내는줄 아세요? 그이 눈치 보면서 한푼두푼 빼낸거 빌려드린거지요. 저도 성의껏 한다고 한거예요. 올케는 섭섭하게 생각하겠지만…』

『알았다. 알았어. 그런 이야기 하자고 만나잔 건 아니잖아.』

그는 손을 휘휘 내저었다. 문자는 눈물을 훔친 다음 손수건에다 대고 코를 힝하고 풀었다. 교양이고 체면이고 모두 다 팽개친 여자 같은 태도였다.

이제 그녀는 오빠를 곤혹스럽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야기 하기가 한결 수월해져 있었다.

『그분이 아니에요. 한달뒤에 그놈은 또 나타났어요. 나타나서는 이번에는 1천만원을 내놓으라는 거였어요. 싫다니까 저를 때리기까지 했어요.』

『아니, 맞고도 가만있었어? 경찰에 신고할 것이지 가만 있었어? 그런 날강도 같은 놈을 가만뒀어?』

문자는 가만히 오빠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푹 내쉬었다.

『경찰에 신고할수 있었으면 벌써 했지요. 제가 아떻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뭔데요. 경찰에 신고할 수 없으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에 알려서 그 놈을 감옥에 처넣으면 될 거 아니야?』

『저는 어떻게 되고요?』

『어떻게 되다니? 뭐가 말이야?』

문자는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오빠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안돌아갈까. 막혀도 아주 꽉 막혔다. 그러니까 저 나이에 출세도 하지못하고 저 모양 저꼴이지. 저런 오빠한테 도움을 구하겠다고 한 내가 어리석지." 그녀는 다시 절망적인 기분에 휩싸인다.

『경찰에 알려봐요. 그놈은 체포되겠지요.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예요. 그걸로 문제가 끝나는게 아니예요. 아빠 귀에 들어가는게 문제예요. 아빠가 알게되면 모든게 끝장이에요. 그 놈은 그 약점을 이용해서 재미를 말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꼼짝 못할줄 알고.』

『경찰에 신신당부를 하지. 절대 비밀이 새나가지않도록 말이야.』

『경찰이 아무리 그래 준다해도 그놈이 마음만 먹으면 그 소문 하나 못 퍼뜨리겠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누구를 시켜서 얼마든지 아빠한테 알릴 수가 있지요. 그놈은 악질이에요. 인정사정없는 악마예요. 무서운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이 있다는 게 실제 당하지 않고는 모르실거예요.』

문자는 넌더리를 쳤다.

『걸려도 단단히 걸렸구나!』

갑자기 두봉의 말투가 차가와졌다.

『인간이란게 얼마나 사악한 동물인지 이제야 알게된 모양이구나. 하여간 큰 일이다!』

마지막 말이 해머처럼 그녀의 가슴을 쳤다.

『그래 천만원을 또 날렸냐?』

『네…할 수 없이…』

『5백만원…1천만원…합계 1천5백… 후유… 또 있냐?』

『30만원 더 있어요. 자기 호텔비를 내라고 하기에…』

『천하에 천치바보가 따로 없구나! 너야말로 천치바보다! 난 그래도 똑똑한 여동생을 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쯧쯧…』

그는 혀를 차면서 장탄식했다.

『아까 또 나타났어요.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집으로 직접 찾아왔어요. 집안에 들어와서 목욕까지 하고…』

"걸려도 단단히 걸렸구나, 또 천만원을…"

朴 男 그림

◆계속되는 불경기는 77년간 명맥을 이어온 「이튼 산타·퍼레이드」마저 삼켰다.
해마다 12월 첫째 일요일 토론토시내 한복판을 누비며 어린이들의 즐거움이 돼준 산타·퍼레이드가 효과보다 경비가 지나치게 과중, 취소되었다고 이튼백화점이 9일 발표했다.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 (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한국일보는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일간신문입니다

三國志 (4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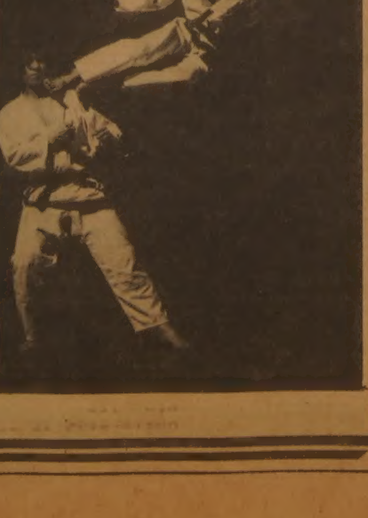
글·高羽榮·그림

새로 개업한
서울식품 서부지점 ☎: 243-9544
★배추김치·총각김치·파김치·부추김치·오이소백이전문.
※ 좋은 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1391 WESTON RD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 병 헌

여름을 시원하게
최근도입된 인기절정의…… 비데오
인기있는 각종 Program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모든면에서 상담을 하여 드리고 있아오니 일차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비데오기계및녹화기판매
100% AFTER SERVICE
● 600여각종비데오대여
상점도난방지및안전을위한비데오설치
보아서유익한가정용 비데오전문 SANYO
코리아나 비데오 센터
Koreana Video Centre · 678 Bloor St. West · 532-0210

CNE 국제태권도 챔피언쉽
일시 : 1982년8월21일(토)
예선—낮12시 · 본선—오후7시
장소 : SOUTH INDUSTRY BUIIDING
(전차에서 내리면 정유장 바로 뒷 건물)
※ 미국 · 캐나다 전역에서 훌륭한 선수들이 오며, 유단자들이 특유한 격파및 호신술 시범 경기가 있음.)
연락처 : 박종수태권도장
◉ DOWNTOWN 719 YONGE ST, AT BLOOR 961-7100
◉ MISSISSAUGA DUNDAS AT HWAY 10 279-6492
◉ SCARBORO MARKHAM RD AT EGLINTON 265-0100
◉ OSHAWA 13 KING ST.W, OSHAWA 576-1571
◉ DOWNSVIEW DUFFERIN AT LAWRENCE 781-5527
◉ REXDALE REXDALE BLVD AT KIPLING 743-2562
◉ BRAMPTON KENNEDY RD S OF ORENDA 453-7591



政府、日해명特使 入國 거부

“확실한 是正表示아닌 實務者파견 필요없다”

정부는 6일 일본교과서 歪曲문제와관련, 일본外務省의 기우찌(木內昭胤)亞洲국장과 文部省의 다까이시(高石邦男)관방장등 고위실무자를 派韓, 일본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대책을 협의하겠다는 일본측의 제의를 거부한것으로 알려졌다。한국정부의 이같은 거부에따라 교과서문제를 둘러싼 韓日간의 외교적波高는 일본측이 즉각적이고 성의있는 왜곡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한 장기화될 가능성도 없지않은것같다。

日 단념…史實歪曲 外交波高 오래갈듯

일본측의 제의는 지난3일 한국정부가 왜곡시정을 촉구한 備忘錄을 전달한데 대한 대응조치로 한국측이 이를거부한것은 왜곡史實이 시정될때까지 계속강경자세로 임하겠다는 뜻을 담고있는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소식통은 6일『일본측의 실무자 派韓제의는 5일하오 駐日대사관을 통해 한국정부에 전달된것으로 안다』고 전하고『한국정부로서는 일본측이 왜곡사실에대한 시정을 하겠다는 확실한 의사표시를 하는것이 아닌 실무자파견은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에서 일본측제의에 대한 거부를 통보한것으로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또『일본측의 태도는 지금까지 표명해온소극적이고 상식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한것 같다』고 말하고『우리 정부는 국내의빗발치는 국민여론과 세송프랑스외상의 訪韓등 바쁜 외교일정등으로 이를 충분히 검토할 상황이 아니란점등을 들어 실무자派韓제의를 거부한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소식통은 이어『일본측도 한국측의거부에따라 실무자派韓계획을 단념한것으로 안다』고 전하고『한국측이 왜곡史實에대한 즉각시정 촉구를분명히 한만큼 일본측이 이에 상응하는태도를 보이지않는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어려울것같다』고 전망했다。

蘇도 日비난

【東京6日=聯】일본의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소련共産黨기관지 프라우다가 5일자 논평기사에서 처음으로 일본의 교과서검정문제를 비난했다고 모스크바발로 보도했다。

프라우다는『일본검정교과서의 역사왜곡은 학생들의 눈으로부터 1930년~40년대의 일본군벌의 잔학상을 감추는데 그의도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요미우리는전했다。

中共、駐日大使 一時귀국 訓令

【東京6日=宋孝彬특파원】중공은 일본의 교과서 歪曲문제와관련, 5일 宋之光 駐日중공대사에게 일시귀국령을 내렸다고 일본의 마이니찌(每日)신문이 중공관계 소식통을 인용, 6일 보도했다。

이보도는 宋대사에게 일시귀국령이 내려진 구체적이유가 정확히 밝혀지진않았으나 이는 日·中共간의 심각한 외교문제로 확대발전되고있는 교과서 歪曲검정문제와 관련, 북경정부와의 협의를위해 취해진 조치인것 같다고 덧붙였다。

만약 중공의 이번 조치가 대사 소환성격을 띤것이라면 이명령은 일반적인 외교관례상 국교단절의 사전단계가 될수도 있는 매우 강경한 조치로 풀이된다。

“正誤訂正 검토용의” 日文部相 業者들이 要請해올 경우

【東京6日=宋孝彬특파원】일본정부는 한국과 중공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는등 외교문제로 비화된 교과서歪曲문제를 타결하기위해 명백한 잘못이 드러났을때는 검정이 끝난후에도 고칠수 있는『正誤訂正』을 검토중이다。

오가와(小川)문부상은6일 衆議院문교위에서『문의를 받고있는 교과서문제에 대해 교과서 출판업자가 검정규칙의 요건에맞게『正誤訂正』을 요청해오면 이를 신중히 검토할 용의가있다』고 신축성있는 태도를 보였다。

검정이끝난 교과서에 대한 재수정은 있을수없다고 강경한자세를 취해온 오가와문부상이「正誤訂正」의 가능성을 시사함으로써 일본정부는 외교문제로 비화된 교과서문제의 해결책을 전진적으로모색중인 것으로 해석된다。

“佛、北韓승인 계획없다” 韓·佛外相회담 兩國頂上회담 내년초 가능성

李範錫외무장관과 訪韓중인 클로드·세송프랑스外相은 6일상오 외무장관실에서 韓佛외상회담을 갖고 韓半島정세와 양국경제협력방안、문화관계증진등 양국의 공동관심사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자리에서 세송외상은 한국과 유럽공동체(EC)10개국간의 관계강화를위해 李장관의 EC경제外相회담 참석을 요청했으며 이에대해 李장관은『그런기회가 마련되면 韓佛관계뿐만 아니라 韓·EC관계증진에 유익한 계기가 될것으로 확신한다』고원칙적인 동의를 표명했다。

이날 회담에선 프랑스정부의 북한승인문제에 대해 일체 언급이 없었으며 다만 韓半島와 한반도주변정세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회담에참석했던 한관계자가 전했다。

세송외상은 이날 한반도의 안보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는 한국민에게있으나 한반도문제는 한국민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나라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고 밝히고『프랑스정부는한국戰에도 참전한 우방국으서 한국민의 安保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줄 책임이 있다』고 한반도문제에 관해 우리측입장을 계속지지할것을 분명히 했다。

또 양국經協문제와 관련, 세송외상은 우리나라의 5차5개년계획사업중▲서울-大田간 고속전철▲釜山지하철▲平澤LNG터미널▲88올림픽대비 통신시설등의 大型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희망했으며 한국과EC간의 경제협력관계 증진을위한 프랑스정부의 협력을 제의했다。

이에대해 李장관은『우리나라의 經協先이 일방에 치우쳐 있기때문에 우리정부도 균형을 맞추기위해 多元化를 추진중』이라고 밝히고『이런점에서 EC는 多元化정책의 적합한 대상국이며 앞으로 EC와의 관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세송외상은 81년 프랑스에서 한국 古美術展의 개최를 환영하면서 우리나라에서의 佛語보급에대한 우리정부의 적극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양국간의 관광사업증진을 희망했다。

세송外相은 이날 회담을마친후 金相浹국무총리 서리를 예방하고 金총리서리 주최 오찬에 참석했다。

세송외상은 2泊3일간의 한국방문 일정을 마치고 7일 離韓한다。

한편 세송外相은 이날하오 新羅호텔에서가진 기자회견에서『南北韓교차승인문제에 관해 한국이 프랑스에 중재를 요청해온다면 기꺼이 응하겠다』고 밝히고『한국의 통일문제는 한국인 자신들에 의해 결정될 문제이며 6가지 방향이있다』고 말했는데 그 방향에대해선 구체적인언급을 피했다。

그는 또 韓佛頂上회담에관해『오늘 청와대 예방에서 全斗煥 대통령의 미테랑대통령訪韓초청제의에 동의했으며 방문시기는 내년초가 될것』이라고 밝힌후『정확한 시기는 앞으로 외교채널을통해 결정될 것으로본다』고 덧붙였다。

세송외상은 佛정부의 북한승인문제에 관해『프랑스와 북한의문제는 아무런 결정을 내린바없다』면서『프랑스가 한국의 안정을해치는 결정은 생각할수도없고 앞으로 한국을돕는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말했다。

全대통령、統一政策 설명 세송外相 예방받고

全斗煥대통령은 6일 하오 청와대에서 訪韓중인 프랑스의 클로드·세송외상의 예방을받고 韓佛간의 우호증진방안등 공동관심사에관해 의견을 나눴다。(사진)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 韓半島주변정세와 한국의 평화통일정책등을 설명하고 이에대한 프랑스정부의 이해를촉구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자리에는 李範錫외무장관、尹錫憲駐佛대사、폴렝駐韓프랑스대사가 배석했다。

日本쪽이래야만되는가 <6>

統一新羅까지“屬國”말참견 自己美化 언어로 他國歪曲

千寬宇 <史學者·한국일보 고문>

어제 이欄에서는 문제의 일본교과서 가운데 古代—中世 부분은 어찌되었는지 궁금하다고 하면서 6년전 李元淳씨가 지적한「열두가지」문제점을 보아가기 시작했었다。그런데 이 제6회분을 쓰려고보니 우리國史編纂委員會에서 國會에 제출한 것이라하여 여러문제점들이 소상히분석된 자료가 公開보도되고 있다。역시 걱정했던대로다。古代—中世부분도 별로 달라진것없이 전부터의 편견과 왜곡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내친 걸음이라 불가불 어제부터의「열두가지」를 중심으로 몇마디를 덧붙여둘수밖에없다。

6년전에 지적되었던 문제점 (1)은 한국사의 起點과 高句麗의 出自에관한 것이었고 (2)는 이른바 南韓經營論이라는 것이었고 (3)은 日本古代문화에 끼친 三國문화에 관한 것이었다。다음 문제점(4)는「統一新羅」와「渤海」다。

먼저「통일신라」인데, 일본교과서는 신라의 삼국통일이나 통일신라문화의 발달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않고, 단지 백제멸망때 일본군이 백제의 원병으로 白江口(일본서는「白村江」)까지왔다는 것이 적혀있었다 한다。더구나 놀라운일은, 이번 국사편찬위의 지적에 의하면,『일본이 통일신라를 從屬國으로 다루려 했기때문에 양국의 관계가 벌차례 긴장했다』고 한것도 있다는 것이다。우리로서는 막중한 의미를갖는 三國統一이나 石佛寺(석굴암), 奉德寺鐘(에밀레종)을 일본사에서도 적어준다면 더말할 나위가 없지만, 그것이 일본사에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해서 안적어준대도 나의 私見같아서는 異議가 없다。다만 唐의長安、신라의 慶州、일본의 奈良이 어찌 그리 닮았느냐 하는것은 일본인들이 자주 꺼내는 말이기에, 통일신라에 언급을 해주었더라면 더좋았을걸 할뿐이다。

白江口 도 그렇다。그때 일본군이왔다가 羅·唐軍에게 궤멸된것은 제3국 자료인〈唐書〉劉仁軌傳에도 나오는 분명한사실이라, 일본교과서가 그것을 다루고 안다루는것을 무어라 할것은 아니나 그것이 우리의 삼국통일과 관련이 없이 처리된다면 좀 이상할뿐이다。

餘談이지만, 한국교과서에는 白江口전투와 같은분명한 사실을 왜 안다루느냐는 말이 일본에서 돌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그러나 이것은 좀다르다。남의 나라군대가 와서 궤멸한것까지 좋다고 굳이 적어야 하나 하는 好人劑의 판단도 있었겠고, 일본군이 왔대야 그것이 당시의판국을 좌지우지할것이 못되었다는 大勢論的인 판단도있었겠고, 아울든 우리로서는 다루어도 그만, 안다루어도 그만의 것인 것이다。

省略은歪曲과는다르다。그야, 近代일본이 한반도와 중국대륙을 침략한것같은, 중대하고도 피차에 큰 영향을 끼친일을 우물우물 생략한다면 그 자체가 왜곡이 되기도할것이지만 高句麗가 퉁구스라느니, 한국사의 起點이 漢四郡이라느니, 전후 문맥에서 꼭필요한 것같지도 않은 왜곡은 차라리 생략만도 못한다。

일본이 통일신라를 屬國視하다가 말썽이 있었다는 것도 도대체 터무니 없는 이야기다。그 근거가 되었을〈日本書紀〉가 참으로 신빙도 낮은 자료라는 것은 일본학계가 더 잘 알고 있지 않은가。저 任那日本府도, 같은 시기에나온 같은 官撰書인〈古事記〉에조차 한마디 보이지않고 오직〈일본서기〉만이 외치고 있는 怪奇譚인 것이다。

이〈일본서기〉를 보면, 신라의 金春秋, 뒤의 太宗武烈王도 서기647년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가 人質로 잡혔다고 되어있다。그런데〈삼국사기〉를 따르면 金春秋가 642년에는 高句麗에 사신으로갔다가 그야말로 인질이 될뻔했고, 648년에는 唐으로가서 出兵교섭을 하고있다。金春秋가 아무리 外交의 名手였다고 해도 어느사이에 일본에가서 잡히고 또 어느새 풀려나고… 神出鬼沒도 유만부동이라는 결과가된다。

이러저러한 근거에서 일본이 통일신라를 屬國視했다고 가르친다면 너무 심하지 않은가。

「통일신라」이야기가 길어졌으나, 다음「渤海」에 관한 일본교과서의 서술은 발해가 역시 퉁구스系라고 못을 박고 일본과 발해가 자주 通交했다고 되어있거나 아니면 발해를 아예 외면하고 있었다 한다。

아주중요한것 아니면 차라리 외면이 나을수도 있다고 아까 말했다。또 일본과 발해의 비교적 잦은 통교도 사실이었다。그러나 발해가 퉁구스라는데는 큰 문제가 있다。발해가 고구려인 大祚榮이 세운 나라라는것은 다 아는일이며, 또발해사회가 그지배층은 高句麗人、피지배층의 대부분은 靺鞨—퉁구스라는 二重構造였다는것 역시일본학계에서도 통설로 되어있는 줄로 안다。

문제점 열두가지의(5)는「高麗의 元寇」(倭寇), (6)은「鮮初의 對外關係」, (7)은「豊臣秀吉과 倭亂」으로 되어있다。이것을 일일이 검토할 지면도 문제인 터에 마침 國史編纂委員會 보고서도 公開되었으니 그리로 미루는 것이 순리이겠다。

문제점(8)은「征韓論」문제, (9)는「雲揚號사건과 江華條約」(10)은「開港後의 한국정세」(11)은「韓末의 민족운동」, (12)는「現代史의 문제」로 되어있다。이는 최근의 이야기는 앞에서 조금씩은 건드려두었다。

일본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사의 문제점을 고대부터 현재까지 좍 훑어보면서 문득 머리에 떠오른 것이「오지랖이 넓다」는 俗談이다。사전을 찾아본즉「오지랖」은「웃도리 겉옷의 앞자락」이란 뜻이란다。「치마폭이 스물네폭」이라고도 한다고 나와 있다。

오지랖

日本史에 직접 관계도 없는 남의 나라 이야기는 왜 그렇게 갖으며 그나마 왜 그렇게 혼자 짐작으로 처리를 했을가。

우리와 일본이 서로 걸리는 내용은 자제할수밖에 없다。그러나 남이야 허신짝이 되든 말든 나만 올라서면된다고 하기에는 우리 한국인은 너무나 善良하다。

태평양전쟁때「가달카날」에서 미군에게 당하고 퇴각을한것을「轉進」이라했고「아투」섬에서 전멸한 것을「玉碎」라했다。무조건 항복으로 전쟁이끝난것을「終戰」이라했고 미군이 점령한것을「進駐」라했다。이렇게 섬세하게 말을 가려써온 사람들이 남의일이라고 다짜고짜「進出」이니「暴動」이니 한대서야 어디 이웃이라고 믿고 살겠나。

外交安保研究院長 李相玉씨를 임명 公舘長6명이동

정부는 5일 李相玉前駐싱가포르 대사<사진>를 외무부외교안보연구원장에 임명하는등 6명의 재외공관장급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이번인사에따라 駐샌프란시스코총영사에 蘇鎭轍(前駐요르단대사)、駐시모노세끼총영사에 梁鉉燮(前駐아가나총영사)、駐센다이총영사에 柳志鎬씨(외무부대변인)가 임명됐으며 盧在朝駐시모노세끼총영사와 金光潤駐센다이총영사는 본부근무로 발령됐다。

“한국 安重根義士를 英雄化” 日마쓰노長官 또 妄言

【東京6日=聯】韓國교과서도 역사를 왜곡했다고 망언을 늘어놓아 파문을 불러 일으킨바 있는 마쓰노·유끼야스(松野幸泰)日本국토청장관(74)은 6일『한국교과서가 이또·히로부미(伊藤博文)를 원흉이라고 부르면서 암살자인 安重根을 영웅시하고있다』고 비난하고『한국도 일본역사를 생각하여과거를 반성하고 양국우호를위해 노력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등 또다시 妄言을 되풀이 했다。

마쓰노장관은 이날 각의가끝난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한국교과서가 이처럼 곳곳에서 日本역사를 고 주장했다。왜곡하고 있음에도 불구、나라마다의 교육방침이 틀리고 어디까지나 내정문제라는점을 고려、입을 다물어왔다』

마쓰노 발언은 日本교과서 내용을 비판하는 한국과 중공정부의 태도를 노골적으로 공격한것이다。

마쓰노장관은 또『韓國도 정치는 여러가지로 변하고있다。서로의 內情을 존중하면서 아픈 곳을 얘기않도록 하자』고 말하는등 日本교과서의 역사왜곡을 규탄하는 韓國民의 분노에 반성은 커녕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社會漫評

死 守…?!

地平線

개와 고양이라는 자막이 흐른다。미치광이로 분장한 羅雲奎의 얼굴이 일그러졌다。개와 고양이는 나라잃은 겨레를 생각하다 미쳐버린 사람과 그를 좇는 日帝를 상징한것이다。「내가 미쳐서 날뛰었다는 아리랑을 불러 달라」는 영진이의 고별인사。쇠고랑을 차고 왜경에게 끌려가는 주인공의 모습이 꼬불꼬불 아리랑고개를 넘어가면 구슬픈 아리랑 노래가 배경으로 들린다。한국영화사상기념비적작품인「아리랑」의 마지막 장면이다。▼반세기전인 1926년 10월27일、단성사 앞엔 아침부터 장사진이 쳐졌다。영화「아리랑」이 개봉되자 극장안은 울음바다로 변했다。나라 잃은 설움이 이 한편의 필름을 통해 온나라에 봇물으로 번져 갔다。春史 羅雲奎의 예술은 이땅을 強占한 일본군국주의에 대한 울분과 저항의 폭발이었다。그의 다른 작품「사랑을 찾아서」는 고향을 버리고 간도로 떠나는 우리 민족의 비애와 분노를 그린 것이다。처음 제목은「저 강을건너서」였다고 한다。당시 총독부는「일본인등쌀에못살겠다는 뜻인가」고 개제를 명했다。▲영화는 영어로 필름、시네마 또는 모션 픽처라고 한다。우리나라에 처음 소개 되었을땐「활동사진」이었다。복고취미가 아니라 때론 이 표현이 영화보다 더 사실적으로 들리기도 한다。활동사진 하면 연상되는것이「변사」의 존재다。요즘은 가끔 코미디 프로에서나 그흉내를 보지만、무성영화시대의 변사는 오늘의 슈퍼 스타같은 자리에 있었다。열화같은 달변、구성지고 구수한 목소리는 관객의 심금을 쥐어 짜고 남음이 있었다。▼무성영화시대 필름은 거의 찾아 볼수 없게 되었다。「아리랑」의레지스탕스 예술도 몇장의 스틸로만 남아 흩어져 있을 뿐이다。일본이 침략사를 버선짝 뒤집듯 하는 마당에「아리랑」과「풍운아」의 필름을 찾아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귀중한 항일의 기록을 또하나 보태게 된것이다。비록 보존상태가 나쁘다고 하나 우리 영화사의 쾌사라고 하겠다。▼春史가 그 짧은 생애를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던날 양악대는 아리랑을 연주했다고 한다。이제 반세기가 지나서 그 아리랑은 다시 살아나 민족혼을 증언케 되었다니 감회가 깊을수 밖에 없다。아리랑은 증언한다。일제의 침략으로 한국인은 미칠듯 질식했다 다시 살아났노라고—。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533-2361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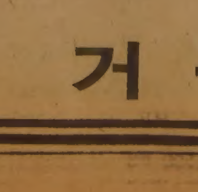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나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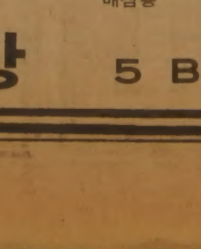
한식, 중화요리, 화식, 케네디안식
거구장

광복절특별쇼

★출 연 : 배삼룡 · 배 성 · 김하정 · 김미리자
★일 시 : 8월12 · 13 · 14 · 15일(목, 금, 토, 일)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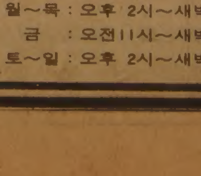


배 성



배삼룡

○최고코메디안 : 배삼룡
○저음유명가수 : 배 성(힛트곡 “망향”)
○정상급 가수 : 김하정(힛트곡 “야생마”)
○신인유망가수 : 김미리자



김하정

(쇼기간중 부득이 테이블 Charge 를 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월 여름휴가중 영업시간
월~목 : 오후 2시~새벽2시
금 :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 오후 2시~새벽2시

거 구 장 5 BETHRIDGE RD. ☎: 742-1618

교과서歪曲 몰고온 日本의 實相 <2>

平和憲法 개정論議 활발

自衛隊 軍隊로 차츰變身

우익團體 840개 각종데모 지원개입

뚜렷한 理由 없는데 한국 싫어해

중공군 기관지 解放軍報는 저난1일 중공군창설 55주년을 맞아「군국주의 논리에 경각심을 갖자」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解放軍報는 이 글에서『일본에 다시 살아나고 있는 새로운 군국주의 경향을 일깨워준데 대해 중국인은 역사교과서 검정을 맡은 일본 文部省관리들에게 감사해야할것』이라고 비꼬왔다.

일본의 新군국주의 움직임은 대충 4갈래로 구체화돼가고 있다. 自衛隊의 증강과 평화헌법 개정논의, 우익테러 활동의 증가, 교과서 개편에 의한 군국주의적 역사교육이 그것이다.

최근에 나타난 사실들을 열거해보면 일본 自民黨은 지난 7월14일 방위관계자연석회의를 열어『방위증강계획을 조속히 달성키위해 방위비의 지출이 GNP의 1%를 넘는것이 불가피하다』는 對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GNP 1%라는 선은 지난1976년三木내각때 각의에서 정식결정된 것으로 自衛隊의 규모를 억제하는 상징이었다. 1%라는것도 GNP 실질 성장률6%를 전제로 한것이므로 사실상 방위비는 매년6%포인트이상 늘어난 셈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87년까지 4년간의 방위비증강계획에 의하면 그 비용이GNP1%를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것이다.

자위대의 힘이 이렇게커짐에따라 평화헌법개정 논의도 활발히전개돼 왔다.

◇지난75년6월 사또(佐藤榮作)수상 장례식이 있던 東京武道館앞에서 당시 미끼(三木武夫)수상이 極右테러분자 후데야쓰·히로요시씨에게 뺨을 얻어맞고 바닥에 나뒹구는 사고가 일어났다. 최근 일본 경찰청 보고서는 우익범죄가 작년의 2배로 늘어난것으로 집계했다.

復古의 精神的바탕

皇國史觀중심 右翼세력이 主流

일본 헌법제9조는『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서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해 육해공군및 그밖의 戰力을 갖지 않는다. 국가의 交戰權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7월6일 자민당 헌법조사회의 한 분과위원회는 9조2항을 삭제,『일본의 평화와 독립을지키고 나라의 안전을 유지하기위해 자위대를 설치한다. 내각총리대신은 내각을 대표하여 자위대의 최고 지휘감독권을 갖는다』고 고치고, 9조3항으로『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 방위상태를 선언한다. 내각총리대신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 자위대의 출동을 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시안을 합동회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안은 군대로서의 자위대를 명문화하고, 수상의 자위대지휘권을 강화함으로써 사실상 평화헌법을 버리자는 의도를 내보이고 있다.

자위대증강과 헌법개정 논의에서 보이는 新군국주의 움직임은 보수·우익단체들의 테러활동이 증가하는 사회적 경향으로도 나타난다. 지난 3일 일본경찰청 보고서에 의하면 금년 상반기 우익분자들이 저지른 각종 범죄행위가 작년 같은 기간의 2배인 약2백65건에 달했다. 또 6월말 현재 밝혀진 우익단체는 8백40개로 12여만명의 회원을 안고 있으며 이중 3~4백개단체는 데모등 공공활동에 적극 간여해 온 것으로 이 보고서는 집계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우익분자들이 교원노조 반대시위를 벌이다가 경찰과 충돌, 52명이 체포됐고 6월28일에는 東京중심가에 있는 교원노조본부에 한 우익분자가 칩입권총을 난사한사건도 있었다.

일본 文部省의 교과서검정조사관은 모두 45명이며 이가운데 사회과 담당관은 13명인것으로 알려져있다. 대학교수의 연구실처럼 각종 서적에 파묻혀있는 3개의 조사관실은 밀실이라고 불릴 정도로 문부성내에서도 격리된 구역으로통한다.

이들중 약반수는 대학원 졸업생이며 거의 대부분이 고등학교교사나 대학조교수등을 저내다 전직해온사람들이다.

일본사담당 검정조사관들의 인맥은 皇國史觀의대표적학자인 平泉박사를 정점으로하는 우익세력으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모두 東京大 국사학과 출신으로 한때 平泉이 회장을맡았고 東京大 국사학과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던 極右단체 朱光會의 회원이었던것으로 알려졌있다. 朱光會는 1931년 창설됐다가 패전과함께 해산한것으로 되어있다.

싫어하는 나라를 순서대로 고르라고 했더니 소련 다음으로 한국이란는 결과가 나오더라는 여론조사 이야기는 신문을 읽은사람이면 대개는 한번씩 속을 끓인 기억이 있을것이다.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일본사람들이 한국인을 싫어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하필이면 싫어하는 나라를 꼽으라는 여론조사 자체부터가 참으로 이상한 발상이지만 1년남짓 일본에 사는동안 꽉 풀어보고 싶었던 의문이「싫어하는 까닭」이었다.

그러나 막상 만나본 일본의 젊은 이들은 한국을 싫어할만큼 한국에 유별난 관심을 갖지않고 있었다.

기자는 일본이 어떻게우리를 加害했는지 잘 알지못한다. 땅을 빼앗기고 말을 빼앗기고 성을 갈았던 분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것으로 피지배시절을 안다고할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특별히 싫어할까닭도 좋아할이유도없었다. 선입견을 억지로라도 벗어나지 않으면 참모습을 볼수없을것이라는 생각도 한구석에 있었다.

일본 젊은이들을 생각도마찬가지였다. 그들에게는한국인을 加害한 기억이 없었다. 한국은 그냥 하나의 외국이었다.

기자는 전쟁을 안다고감히 말할수있다. 전쟁이 인간을 짐승으로 만들던 모습을 기억하며 전쟁이 끝난후 10년동안의 굶주림을 겪었기때문이다. 그러나 더어린세대는 전쟁을 알지못한다.

이야기로 듣고 머리속에서 이해하지만 몸으로 겪은 고통과 가슴에 남은 슬픔이 없기 때문이다. 인류가 파멸에 이를만한 전쟁을 치르고도 세상에 전쟁이 그치지 않는 이치도 여기에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역사는 되풀이되는것이 아니라 발전하는것이라고 하지 않는가. 세계는 3차대전을 피하기위해 제각각 노력하고 있고 이를위해 유엔이 운영되고 있다. 그것은 전쟁의 역사가 교훈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史實이 왜곡기술된 일본역사교과서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전쟁의비인간성을 교육시키는 것이아니라 전쟁의 당위성을고취시키고있다. 왜곡된 교과서는 이미 역사교육자료가 아니라 파괴적 이념교육자료일 뿐이다.

일본이 젊은이들에게 가르칠 역사교과서를 바르게 뜯어고쳐야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그렇게 하지않는다면 다가오는 평화의 세계에 일본인들은 동참할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朴賛式기자】

메아리

이름

奈翁은 나폴레옹이다。拿破崙이라고도 쓴다。崑崙山의「崙」자가 알프스를 넘던 그의 모습을 연상시킨다。그게 漢字의 맛이다。

그럼、沙翁은?

세익스피어―。그의 작품「오델로」의 주인공은 依的魯、「햄리트」의 주인공은 咸利特。

비슷한 예는 얼마든지 있다。

杜翁은 톨스토이、미국의 국민시인 롱펠로는 襲活老、링컨은 仍巨。

괴상한 이 한자 이름들은、開化期우리나라가 중국책을 번역해 쓰면서、漢字표기를 그대로 땄던 遺物이다。중국발음으로는 그 것이 어느 정도 原音에 가까왔는지 모르지만、우리발음으로하면 소리가 엇비슷하지도 않다。그래서 퀴즈 같은 이 漢字들이 심심찮게 入社시험에 등장하여 골치를 썩인다。

다행히 우리는 뛰어난 소리 글자、한글을 물려받은더에、지금은 외국 이름을 적느라 고생할것이 없다。「몽테스큐」와「몽테스키외」、「슈바이처」와「슈바이쩌」등의 혼란이 남아있으나、퀴즈性은 전혀없다。

사정은 일본이름에서도 같다。한글이 없었다면、한때 일본의 총리였던 다나까(田中)는「多奈加」쯤의 표기가 고작이다。그 귀찮음 때문에 田中=「전중」으로 정착이 됐을것이다。그리되었으면、한때 어린이들이즐기던 우수개、「세계의 낚시王 일본의 다낚아·상」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외국의 人名을 제대로 적을수 있음은 분명 世宗大王덕이다。그러나 우리가 그이름들을 소리나는대로 적으려고 노력하는까닭은、외국의 文物을 있는그대로보고、그대로를 존중한다는 뜻이다。미국의 대통령 스스로、자기 이름은「리건」이 아니라、「레이건」이라하면、우리는 그대로 적는다。「브르제진스키」란 스펠을、본인이「브레진스키」라 읽는다니까、우리는 그대로 따른다。

이런 생각을 같은 漢字圈이라고 해서 배제할 까닭은 없다。「다나까」는 어디까지나「다나까」다。安重根의사가 쏘아 죽인 것은「이등박문(伊藤博文)」이지만、교과서는「이토오·히로부미」라고 밝힌다。어쩌다 중국人名은 아직「멩·샤오핑(鄧小平)」아닌「등소평」이 관례로 남아 있으나、조만간 고쳐져야 한다。

마찬가지 생각으로、나는 내 이름을 외국사람들이 바로 적고、불러 주기를 바란다。미국 사람을 만난자리에서도、나는「김 창열」이지、「창열·킴」이 아니다。일본인 친구들도、「킨·상」아닌「김·상」이라 불러주기를 원한다。

이름이 곧 그 사람의 主體性、人格을 대표한다면 당연한 일이다。

이 뻔한 事理가 韓日간에서는 통하지를 않는다。같은 漢字 이름을 쓰다보니、그것을 제자기의 國音대로 발음해서 혼란이 생긴다。이른바「同文」이라는 끈적한 과거가 거기에 깔려있다。그러나 그「同文」이란 말에、「同種」이란 꼬리가 붙고、그것이「同祖」로 발전했던 것이 잊지못할 악몽이다。

우리는 저들 총리를「다나까」라 불렀다。그때 저들은 우리 대통령을「보꾸(朴)」라고 했다。지금도 같다。그것은 말하자면 불균형이요、「이름의歪曲」이다。

이같은 歪曲을 是正하자고 애써온 재일동포 崔昌華목사가 지금 서울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그는 일본 방송(NHK)이 자기를「사이·쇼까」라 불러 人格權을 모독했다고、1억엔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중이다。人格權의 法理論을 떠나、그가「최창화」이기를 원하는 심정은 創氏改名의 쓰라림을 아는 우리 모두가 共感한다。

교과서문제까지겹쳐 더 복잡해진 韓·日관계의 해결은、저들과 우리가、과거의 끈적한 관계를 떠나、서로서로 깔끔한 外國人이 될때만 가능하다。그런 뜻에서 더욱、재일동포의「이름찾기」는 의의가 크다。

崔목사의 법정투쟁은 지금 9월9일의 결심을 앞두고 있다。「역사의 歪曲」을 용납않는 많은 사람의「이름」이 崔목사의연락처·서울市鍾路區蓮池洞136의46 대한예수교 장로회(763~8325)에 모아지기를 기대한다。

金昌悅 <編輯委員>

한국強硬에 日당황

뒤늦게 眞意깨달은듯

是正기피術策 時間끌기작전

日 좌절된 特使파견계획의 底意

日本교과서 歪曲에대한 설명을 하기위해 日本이 보내려는 特使를 한국정부가 一言之下에 거부한것은 是正요구비망록에 이어서 나온 또하나의 強硬대응이다.

이사건에 관해 日本은 즉각 是正하는 구체적인 조처를 취하는것 이외에는 다른 무슨 설명이나 타협은 필요없다는 것이 한국측의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다.

日本이 보내겠다는 특사의 입에서 나올것은 是正약속이 아니라 歪曲사실을 변명하는 헛소리에 불과한 것이라는것을 잘알고 있기때문에 한마디로 고개를 저어 버린 것이다.

強硬에 또 強硬、強硬一邊倒의 길을 치닫는 한국측 태도에 日本은 이제 말이 아니라 직접 행동을 보여주는 것만이 문제해결의 열쇠라는것을 재인식 시키기 위한 것이다.

우리정부는 교과서파동이 일어나자 처음에는 외교적마찰을 피하기위해 온건하고신중한 태도를 취해오다 지난 3일 신속하고도 구체적인시정조치를 요구하는 備忘錄을 마에다(前田利一)駐韓日대사에게 전달했다.

정부의 이같은 강경조치는 일본이 시정을위한 韓日공동위구성등의 방안을 제시해놓고도 구체적인 실천움직임을 보이지않고 지연작전을 펴는데다 비등하는 국민여론을더 이상 간과할수없다는 판단에서 내려진 것이다.

초기단계에서 우리정부가 취한 유연한자세에 느긋해하던 日本정부는 한국측의 강경선회에 당황했고 북한과 대만및 東南亞국가들이 砲門을열고 中共도 文部相방문을 거부하는등 강경으로나오자 四面楚歌의 궁지에빠져 뭔가 해결의 제스처를 쓰지않을 수없는 입장에 놓였다.

일본이 무엇인가 하고있다는 노력의 일단을비추기위해 구상한 案이 特使파견이다. 한국에는 기우찌(木内昭胤)외무성亞洲국장과 다까이시(高石邦男)문부성관방장등 2명의 실무자를 파견할의사를 5일밤 駐日대사관을통해 전해왔던것이다.

일본측의 이같은 자세는왜곡부분시정이라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옆나라가 씨끄러우니 소란을 막기위해서 성의를 보이는체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어물쩡넘어가려는 술책이었던것이다. 즉 우리정부의「즉각시정」요구에대해 特使를보내 일본정부가 놓여진 현재의 상황을 설명한후 앞으로의 대책을 협의한다는「협의후시정」이란 회답을 던지려고했던것이다.

이것은 어떻게보면 일본이 우리정부로부터 거절당할것을 뻔히알면서도「일본이 무성의한것만은 아니다」라는 인상을 주기위한 제스처가 아닌가 하는것이다. 한국이나 中共이 일본정부의 입장을대변하는 고위당국자가 이문제에관한 방침을 분명히밝힐 것을 요구한다는것을 누구보다 잘알고있는 일본이 각료급이아닌 관련부처의 실무자급으로 사절단을 구성한것자체가 시정의사가없음을 드러낸것이라 할수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일본정부가 어느레벨의 特使를보내느냐하는 형식에 신경을쓰고 싶지는 않다. 관련부처의 실무局長급이라 하더라도 일본정부의「확실한 시정의사표신」를 가져온다면 그것을 뿌리치지는 않겠다』고 전제한후『그러나「시정약속」을 휴대치 않고 찾아와서 이러쿵 저러쿵 변명을 늘어놓는다면 문제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우리측의거절이유를 설명했다.

일본이 교과서 왜곡문제를 정면에서 해결하기보다는 성의를 보이는체하며 지연작전을 쓴후 나중에가선『이제고치려고해도 금년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때문에 다음기회에 시정하겠다』는 구두약속으로 모면하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것이다. 일본이 아시아의 주변국들로부터 不信을받은 가장 큰이유는 겉과속이 다른 바로이 兩面性때문임은 두말할나위도없다.

이제한국측이 던질 카드는 건너간 셈이다. 是正조치이전에는 대화조차도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가 던져진것이다. 남은것은 日本의 행동뿐이다. 사태의 심각성과 重大性은 시간을끌면 그만큼 더욱 커진다는것을 日本은 심각하게 느껴야할 싯점인것같다.

【李在武기자】

"歪曲부분즉각 고쳐라"

日의 한국歷史학자 4명 공동會見

【東京6日=宋孝彬특파원】 하다다(旗田巍·東京도립대학명예교수) 朝鮮史學會회장을 비롯하여 4명의 한국역사학자들은 6일 하오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문부성은 한일관계사에서 왜곡된 부분을 즉각 정정해야하며 아직 교과서가 인쇄에 들어가지 않았기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도 바로잡을수 있다고주장했다. 하다다회장은 한일간의 기본관계를 설명하는등 추상적인 설명으로는 이번의 교과서문제가 해결될수없으며 구체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수정하는 것만이 현명하고 일본인 자신을 위해서도 유익하다고 강조했다.

史實 후세에 정확히알려야

神社참배·創氏는 強制였다

공동기자회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다다교수=과거 군국주의시대에 저질렀던 잘못을 사실 그대로 기록하여 전쟁을 모르는 다음세대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 가해자는 쉽게 잊어버리지만 피해자는 잊을수없는것이다. 동남아시아 각국에 참상을 가져다 준 日帝침략상을 정확히 기술해야 한다.

▲미야다(宮田·早稻田大)교수=한일합방은 강압에의한 것이었다. 3·1독립운동을『폭동』으로 표현한것은 한민족의독립정신을 부인한 것이다. 일본으로 강제연행한 한국인에대해서는 중국인과 구별、국민징병령에 의해 합법적으로 일본에 보내졌다는 문부성측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미야지마(宮嶋·東京도립大)조교수=한국인의 神社참배와 창씨개명및 일본어사용을 강제가 아닌 장려로 기술한 것은 史實의왜곡이다. 한국의 기독교교인 2천명이 신사참배를반대하다 투옥됐음은 기록에 나와있다. 문부성이 무지로인해 교과서의 검정이 잘못됐을때는 시정하는 것이 옳바른 자세이다.

▲가지무라(梶村·神奈川大)교수=문부성의 검정이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역사사실에 대한 개정문제는 확실히 고치는 것만이 진정한 해결이며 정치적으로 문제를 호도해서는 안된다.

日人들이젠 自身을돌아볼때

元老작가 井上氏 史實 歪曲을 비판

美서 創氏強行했다면 日大怒했을것

솔직이 이번 교과서문제같은것은 우리같은 사람들의얘기에 반쯤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심각한 문제로 번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점에서 일본인은 정말 반성이 부족하다고나할까…。나는 일본인이 차제에 자신을 허심탄회하게 돌아볼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전쟁중 일본이 한국에대해 創氏改名을 하도록한 문제만 하더라도 그렇다. 만일 종전후 미국점령군이 미국은 위대한 민주주의 나라라면서 나의 이름을 제임즈라든지는 식으로 고치도록 요구했다면 나는 틀림 면 일본인이라도 大怒했을것이다.

내가 中國에 갔을때 한 역이 내게 이런말을 해준적이 있었다.

무슨 일이든 국제문제로飛火되면 그때서야 크게 당황하는 일본지배층의 꼴불견은 이제 그만둘때가 됐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회사에서도 잘못을 저지르면 충분히 반성하고 두번다시같은 잘못을 반복하지않도록하라고 일러주는데 어쩌해서정부의지배층이 되면 이를지키지 못한다는지 불가사의한 일이다.

늦긴했지만 일본의 당면문제를 逆轉시켜 플러스방향으로 이끌어간다면 그것은 산교과서가 되는것이다. 한국인이나 중국인에 의해 폭행을 당했거나 칼로 찔렸다는 일본인이 한사람도없는 반면 일본人들에게 살해된한국인이나 중국인이 많다는사실은 비록 전쟁중이라 하더라도 赤十字협정이나 국제법에 저촉되는 학살임에 틀림없고 부녀자들에게 난폭한행동을 가했다는것도 틀림없는 사실이다. 다시말해 他國人들에게 상상조차 할수없는 일들을 그렇게 저질러놓고 아무짓도하지않았다고 시치미를 떼는것은 자기를 본는 눈이 결여돼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가 세금으로 여비를대주어도 좋으니 중공·한국에가서 그쪽각료들과 토론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다른나라와 관련이 되고있는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지 못하고 멈칫거리는것은 곤란하다.

침략을 진출로해놓고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것은 사실상 우리들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자신이 의식이 그러한 정부를 지지하고 있기때문이다.

아무런 반성도 없이 주판알이나 튕기고 섹스나 열두에 두고있는 일본인은 반성할 힘조차도없는 정부를 지지하고있는 것이다.

우리들 한사람한사람이 뼈저리게 반성할때 정부도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것이다.

지금과 같은 정부를 방임하는것은 국민의 책임이기때문이다.

【東京=聯】

◇수영장이된 公園 분수대

수은주가 섭씨30~35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속에서 할수있는 일이 있다면, 이들 어린이들처럼 물놀이뿐―。어린이들은 오슬로 중앙공원의 분수대 연못속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오슬로5日AP發=聯】

海外토픽

日서 人工콩팥生産

★美코르디스·도우社지원

일본의 의료기구제조업체인 JMS사는 미국회사가고안한 인공콩팥을 생산할 예정이다.

쓰지야·다로JMS사장과 미국의 대규모 인공콩팥제조사인 코르디스·도우의 로버트·모니카사장은 공동성명을발표, JMS가 이즈모에있는 그의공장에서 인공콩팥을 제조키로 했다는것.

【마이애미=聯】

하비브 副收入막대

★3개大企業 사업에 관계

필립·하비브 미중동특사가 국제적인 사업을 벌이고있는 미국내 3개기업을 위해 일해주는 댓가로 수입을 올리고 있음이 국무성의 한 비밀문서에 의해 밝혀졌다.

상원외교위원회에 넘겨진 이 비밀문서에 따르면 하비브특사는 아랍국가들과 막대한 거래를 하는 벡텔그룹을 비롯, 퍼시픽·리소시스사 비즈니스·거버먼트·액션사등 3개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일해주고 있다는것.

【워싱턴=AP】

日長官발언 말썽

日지식인들 비난

【東京6日=聯】安重根의사를 단순한 살인범으로 몰아친 마쓰노(松野)일본국토청장관발언에대해『한국의저항운동을 제대로 이해하지못하는 부당한 발언일뿐아니라 한국인의 반발을 격하시킬것』이라며 비관과 우려의소리가 일본에서도 높아지고있다.

다음은 일본지식인들의 반응이다.

▲이로가와·東京경제대교수=현직각료의 발언으로는 지극히온당하지못할뿐아니라 역사적무지를드러낸것이다. 이또·히로부미(伊藤博文)를 암살한 安重根의 행위는 한일합병에 따른 피침략자측의 저항의일환으로 우발적인 테러분자와는 전혀성질이 다르다. 이처럼 경솔한 발언이 튀어나온다면 한국국민의 격분을 살것에 틀림없다。

서울대학교 동창회

'82 야 유 회

본 서울대학교 동창회 캐나다지부의 1982년도 야유회 모임을 아래와 같이 갖고저 하오니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개별 연락 드리지 못하오나 꼭 나오셔서 짧은 여름의 긴 한나절을 함께 즐기십시요.

＊아　래＊

○서울대학교 동창회 '82 야유회
○일　시 : 1982. 8 .21(토) 오전11시
(우천시 1주 순연)
○장　소 : Rown Tree Mill Park
(Islington & Finch, Rexdale)
(작년도와 동일장소임)
○연락처 : 신동운 회장 ☎ 499－2348
주병돈 부회장 ☎ 671－1909
임윤식 총무 ☎ 638－6919

서울대학교동창회 캐나다지부
운영위원장 신 동 운

LEON'S 가구점

Leon's 캐나다 최대규모의 Ware House (Show Room)

SINCE 1909～

○FURNITURE
CARPETS
APPLIANCES
각종전자제품
(T.V, STEREO, 냉장고, 후리저,
WASHER, DRYER, DISHWASHER,
AIR CONDITIONER, VIDEO 등)

✱오시기전에 미리 전화하십시오.
월～토(10 : 00am—10 : 00pm)

20 MC LEVIN AVE.
(세퍼드×마캄)
B)291－3818
R)749－9687,
746－0981
KEVIN CHO(조석민)

FINCH / LEON'S / MCLEVIN / SHEPPARD / MARKHAM / HWY. 401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AVENUE, 벤트러, USED·CAR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ngnment Certificate 소유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Best Price
＊Best After Serv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 의 문

트로피
골프프로샵
무나미

트로피
상　패
메　달

각종 골프장비 세일
초보자 골프 지도해 드립니다.

캐다록에서 50% OFF

++ 트로피 & SPORTS ++
이 기 훈　☎ 298－3584
880 ELLESMERE RD. UNIT 1

文學史探訪

<9>

金容誠 <작가>

『고향은 언제나 白鷺가 외다리로 서는 위치에 있다。 마음의 고향까지도。 이내처럼 번지는 고향을, 황토어린 능선을 달팽이가 등에 집을 얹듯 업고왔다。 먼 길을 터벅터벅왔다。 비오는 날은 오히려 날듯했달까』 세상을 떠나기 1년전에 토로했듯이 朴龍來는 1955년문단에 나온 이래 25년동안 줄곧 고향을등에업고 情恨의 노래를 직조해왔던 흙내 물씬나는 향토 시인이었다。 그는 메마른 문명 사회 속에서 아련한 유년기를 찾아헤매면서, 사라지는것들에 대한 하염없는 연민의 눈물을 흘렸다。 한번 눈물보가 터지면 밤새도록 울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黃色의 시인」 이라기도 하고 또는 「눈물의 시인」 이라기도 한다。

한 오라기 지붕일레
아이들이 놓다 간
모래城
무덤을
쓰물고 쓰는
江둑의 버들꽃
버들꽃 사이
누비는
햇제비
입에 문
한 오라기 지붕일레
새알,
흙으로
빚은 경단에
묻은 지붕일레
窓을 내린
下行列車
곳간에 실린
한마리 눈(雪) 속 羊일레。
<自畵像> 전문

「싸락눈」의 朴龍來

文明에 빼앗긴 鄕土에 情恨과 憐憫

朴龍來는 스스로를 한오라기 지푸라기나 한마리의 양으로 거울에 반사해 본다. 겨우 작은 제비가 집을 짓는데 소용이 닿는 지푸라기와 같은 무생물이 아니면 자신의 운명을 알수없는 곳간차에 실린 순박한 양과 같은 동물인 것이다。 그는 정물화의 정물처럼 놓여져 있을뿐 의지력이 없다。 그가 즐겨 다루던 소재들도 그렇다。 강아지풀·엉겅퀴·각시풀·호박꽃·삼치꽃·아욱꽃 처럼 하마터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쳐버릴 보잘것없는것들과 호롱불·손거울·나막신·우렁껍질·조랑말·창호지처럼 이 시대에서는 사라져 가는 것들이 그의 관심의 대상이된다。

눈물의 詩人

그런 것들에 흥미를 가지고 그가 지고 왔다면 고향의 실체를 거슬러 찾아가 보았다。 論山에서 江景은지척이었다。 논산내 따라가는 푸른들판에는 한창 벼이삭이 패고 있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없이 들길을 거닐며 추억의 실타래를 엮어자던 시의 고향은 옛것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았다。 황토길은 아스팔트로、 조랑말은 「딸딸이」로、 호롱불은 전등불로 시세따라 바뀌었고 彩雲山의 성황당 허수아비도 없다。

다만 그대로 있는 것은 강경읍내 상업학교의 벽돌 건물 뿐이다。 玉女峰으로 오르는 중앙동의 구장터 어디쯤에 있었다던 그의 生家도 찾아볼 길이 없다。

朴龍來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1925년 음력 1월14일、 논산군 강경읍 중앙동에서였다。 원래 부친 朴元秦는 扶餘군부여면관북리 70번지 태생으로 남달리 교육에 관심이 있어 소지주로서의 재산을 정리하여 江景으로 나왔다。 內浦평야를 끼고 錦江하류에 위치한 강경은 그 무렵 대구、 평양과 더불어 조선의 3대시장으로 꼽힐만큼 상공업과 어업이 발달했던 곳이었다。 강을 따라 호서지방의 농산물이 群山항으로 이어졌고 그곳으로부터 새로운 가공품들이 내륙으로 들어왔다。 지금은 나루터마저 녹슬어 기첫고 깃배나 드나들고 강건너 부여를 사이에두고 발동선 나룻배가 오고가지만 한때는 꽤나 번성했던 곳임에 틀림없다。 그런 뜻에서 군산과함께 그곳은 일본제국주의의 수탈의 현장가운데 하나이기도 했던 것이다。

中學時節 습작

아뭏든 朴元秦는 강경 중앙동에 자리를 잡고 鳳來 鶴來 鴻來에 이어 龍來를 낳았다。 그는 바로 위의 鴻來누나와는 열살 이상이나 터울이 지는 막내둥이였다。 그는 유소년시절을 부러울것 없는 귀염둥이로 자라났다。 그러나 그가 열다섯살인 1939년 강경상업학교를 입학하던 무렵에는 어떤 이유에선지 가세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기울어 있었다。

朴龍來의 시의 소재 중에 하나가 「鴻來누이」인데 그는 분명히 그 누이에게서 시적인 모티브를 얻은 듯이 보인다。

『나는 어릴 때부터 허약했다。 여름이면 입맛을 잃고 자주앓았다。 이슬 먹은 익모초、 박하사탕、 정구에 미치다 시피한 내게 미소지으며 도시락을 챙겨주던 누님。 내가 소학교 때 성적이 좋았던것도 누님의 덕분이다。』

전짓불이 한창 귀한때라 집에선 석유 호롱을 켜고 있었으나 누님과 거처하는 방만은 이슥토록 촛불이 밝았다。

『그 鴻來누님이 시집가서 1년도 못돼 세상을 떠났다、 산후 대출혈、 슬픈 전갈은 야심、 강 건너 마을에서 왔다。 어머니는 가슴을 치며 길길이 뛰시다 기절을 하고 아버지는 온 몸안을 대낮처럼 등불로 밝히고 혹시나 기적을 기다리며 밤을 새웠다。 중학교 2학년、 나는 울지도 못했다』 (산문<鴻來누님>에서)

그는 중학시절 <부활> <죄와벌> <啄木詩集>등을 읽으며 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한편 「鴻來누님」에 대한 추억의 실타래를 풀며 습작의 시를 쓰기도 했다。

그가 강경상업학교를 졸업한것은 43년12월。 이듬해 군산으로 가서 朝鮮銀行 입행시험을 치르고 서울 본점에 근무했다。

그리고 다시 대전지점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해방되던 해 돈을 센다는 일이 선천적으로 생리에 맞지 않았던지 은행을 사직하고 말았다。 그러나 은행을 사직한 댓가로 일제말기 제2기 징집에 해당되어 총알받이로 끌려 나가게 되어있던 차에 해방을 맞았다。

『8·15해방의 감격이야말로 내 긴 인생항로에 있어 일대 전환점을 가져왔던가、 어느 계열의 전단、 어느 계열의 테러에도 가담한 일은 없었으나 8·15해방의 감격은 끝내 안일무사한 직장생활을 더 이상 견딜수 없게 했다』

그의 나이 21세、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보였던 그는 다신 은행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때 그가 한 일은 부산 동래에서 농장을 경영하고 있던 金素雲을 찾아 나선 것이었다。

돈세는일 역겨워 銀行員 그만둬
釜山 放浪서 生活잃고 文學얻어

55년 文壇에

강경의 들판을 놓고 구태여 동래로 간 것은 金素雲에 대한 외경심이 작용해서였다。 『김소운씨는 일제가 말기적인 조짐을 보일즈음 일본에 살며 한국의 민요들을 일역하여 엽파문고로 간행하고 있었거니와、 김소운씨에 대한 바시인의 경외는 1939년에 간행된 <조선민요선집>에서 임진왜란의 침략군을 버젓이 「왜잔」이라 번역했던 뚝심(또는 애국심)에 깊이 감동을 받은 결과였다』 (李文求<호박잎에 모이는 빗소리> 여고시대 82년4월호)는 것이다。 불과 50여일의 농장 더부살이를 끝내고 부두가 하치장의 인부가 되려고 어정거리기도 했다。 『그 여행에서 그는 생활을 잃고 문학을 얻었다』

46년、 생활고에지친 朴龍來는 궁여지책으로 鷄龍學塾에 교사자리를 얻어 상업과 국어를 가르쳤다。 그는 그곳에서 朴喜宣을 만났다。 그들은 정신적인 교분을 지니고 있던 丁薰、 李在福、 河有祥、 元奕漢들과 함께 동인회를 구성하니 바로 「桜栢詩會」였다。

그 무렵 그는 우연히 대전에서 <靑鹿集>을 갓 내었던 朴木月을 만났는데 그것은 「鴻來누님」과 金素雲에 이어지는 장차 시인이 될 한 인간의 궤적을 이루었다。 여러번 시도하던 끝에 마지막으로 여기고 우편함에 던진 원고가 朴斗鎭에 의해 現代文學에 추천된 것이 1955년의 일이었다。

나 하나
나 하나 뿐 [illegible] 때
멀리 끝까지 달려갔다 무너져
돌아온다

어슴프레 燈皮처럼 흐리는 黃昏
나 하나
나 하나만도 아니었을 때
머리 위에
은하
우러러 항시 나는 엎드려 우는가

그는<가을의 노래><黃土길><땅>1~3聯 그리고 56년<땅>으로 3회 추천을 완료하고 문단에 정식으로 나왔다。 중학교 국어과 준교사 자격을 얻어 대전철도학교에 취직해 있던 그가 거의 같은 시기에 朴斗鎭의 추천을 받고 있던 任剛彬을 만난것은 그해 여름이었다。

『한국의 서정을 바탕에 깔고 있다는 것은 다 평자들이 하는 얘기이지만 그의 시의 특색은 短型이라는데 있다。 중국의 五言絶句나 일본의 하이꾸(俳句)처럼 응축과 생략법을 대담하게 구사한다。 그는 또한 미의식이 무척 강해 소묘적인 시를 썼다。 벌써 이 무렵부터 눈물이 쭈뼛했는데 그의 정의에 의하면 눈물은 아름다운 보석이었다』 (任剛彬회고담)。

시인이 되었다는 것이 용기를 북돋았을까 평생 독신으로 지내겠다는 주장을 꺾고 32세의 朴龍來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것은 화가이자 시인인 李鍾學의 다방에서 열흘 동안 앓다가 내린 용단이었다。 56년의 겨울을 그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전기사의 딸이자 대전간호학교출신(49년)의 6세 연하인 李台俊을 신부로 맞이했다。 그러나 생활인으로서의 朴龍來는 낙제생이었다。 이 학교를 그만두고 저 학교로 직장을 구하고는 하다가 충남 唐津의 松岳중학교를 마지막으로 65년에는 교직생활을 끝내고 말았다。 생계는 간호원 계통의 공직자 생활을 시작한 아내가 꾸려갔다。 그가 그때 가정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는 퇴직금을 보태어 대전시중구오류동 17번지 15호에 대지 50여평에 15평초가를 마련한 것(이 집은 73년에 양옥으로 말끔히 다시 지었다)이었다。 그는 그때부터 마당에 삼치、 아욱같은 채소와 대추、 석류、 라일락、 감나무、 오동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아이들이나 돌보며 靑柿舍란 당호 아래서 시를 짓는 어김없는 시인이 된것이었다。

"아빠는 失格"

『우리가 차츰 커가면서 아버지는 누가 옆에서 말벗이 되어 도와주는이 없으면 몹시 쓸쓸해 하는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어쩌다 우리가 벙어리장갑을 짜드리면 그걸 끼고 서울 나들이를 하시고는 했지요』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대학원과정 준비를 하고 있다는 둘째딸 燕이 수줍게 들려주는 말이었다。 어려서부터 그림에 재능이 있던 둘째딸을 아버지는 무척 자랑스럽게 여겼다。 다음은 77년 가을에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던 딸에게 보낸 편지 한귀절이다。

『가족과 민족을 등한시하는 사람이 어찌 세계의 이상인을 좇겠느냐。 아빠 失格이란다。 마당에 지는 낙엽을 쓸며 쓸며 허공에다 失格、 失格을 외쳐본다。 그래도 목숨은 아름다운것、 아름다움을 위해 끝까지 가련다』

그러기에 한참 참여시가 유행하던 60년대말에도 세상 현실에 눈돌림없이 그만의 시세계를 구축해 갔는지도 모를 일이다。

늦은 저녁때 오는 눈발은 말집 호롱불 밑에 붐비다。
늦은 저녁때 오는 눈발은 조랑말 발굽 밑에 붐비다。
늦은 저녁때 오는 눈발은 여물써는 소리에 붐비다。
늦은 저녁때 오는 눈발은 변두리 빈터만 다니며 붐비다。
<저녁눈>전문

69년에 발표하여 그해에 낸 첫시집<싸락눈>(이시집에<싸락눈>이란 시는 없다)에 실은 이 짧막한 4행시에 대해선 그 어떤 설명도 군더더기일뿐이다 한폭의 그림을 대하듯 저녁때 흩날리는 눈발의 정경이 환히 떠오르기 때문이다。 문학평론가 宋在英은 朴龍來의 제2시집 <강아지풀>의 해설인<同化혹은 自己消滅>에서 朴龍來 시의 특질을 『유년기에의 回想』과 『農村的·田園的인 풍경묘사』와 『鄕土에 깃든 情恨의 세계』로 나누어보면서 이렇게 말하고있다。

『대체 오늘날、 이 不條理의 세계에 살면서 感傷的인 抒情과 현실도피적인 土俗的 趣向으로 내닫기만 하면 되겠는가 (中略) 그러나 명백한 것은 우리는 시인에게 그아무것도 強要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시인은 스스로 想像力에 있어서 自由人이요 이미지의 創造者일뿐、 한날 口號的 提唱에 말려들어서는 안된다』

마지막 詩「감새」

그는 거의 매일 곤죽이 되도록 술을 마셨다。 『朴木月이 언젠가 그렇게 술을 마시다가는 정신병원에 가게될것이라고 한탄에 충격을 받아 서너달 술을 끊은 적도 있었으나』 (洪禧杓회고담) 세상을 떠나기 전날까지도 술을 마셨다 그의 집에는 부부가 다 내다버려 술잔이 없었다。 손님이라도 찾아올 양이면 하는수없이 접시에다 소주를 따라 대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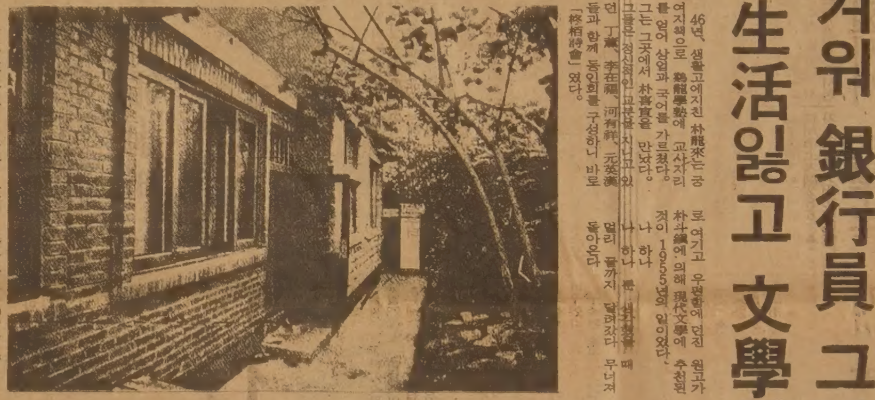
그는 방학때가 되면 집보는 일을 자녀들에게 맡기고 73년 이후 논산 嘉民중학교의 교사로 가있는 화가 姜聲烈을 동행하고는 했다。 『그는 고향、 강경 玉女峰으로 올라가 망연히 서서 홍래누님이 시집갔다는 강건너 林川 쪽을 바라보고는 했었다 그리곤 시장바닥 육젱이집으로 내려와 막걸리 사발을 앞에놓고 아、 옥녀봉! 하면서 눈물짓던 것이다』 (姜聲烈회고담)。

1980년 여름 갑자기 천둥이 치며 쏟아지는 소나비 취중에、 길을 건너다 택시에 치여 3개월 동안이나 입원을 했다。 기푸스를 떼고 큰딸의 혼례를 치른 얼마 뒤의 11월 20일밤 소주를 마시고 돌아왔다 다음날아침 소주를 사오라 해서 소주를 사왔지만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는 세째딸 水明이 점심으로 콩나물죽을 끓이고 있는 사이 안방에서 잠자듯 조용히 눈을 감았다 심장마비였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이틀전 아내에게 동요풍의<감새>라는 시를 써 보여주었다。 아내는 면박을 주었다 『이 양반이 점점 동시작가가 돼가나』 생활전선에서 쫓기며 살아온 李台俊 미망인은 이 말이 못내 마음에 걸린다고 입술을 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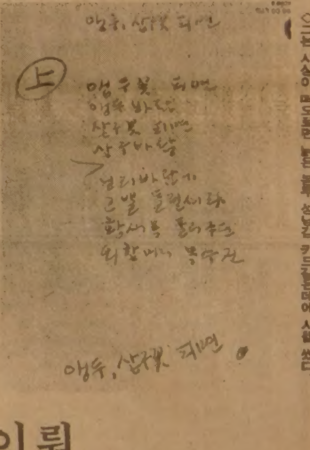
【사진·韓隆기자】

◇「鴻來누님」 그리워하며 이따금 찾은 玉女峰 江景玉女峰에서 바라본 錦江、 朴龍來는 말년에 이따금 이곳을 찾아와서 그의 詩의 모티브가 된 「鴻來누님」을 그리워하며 누님이 시집갔다는 강건너 林川쪽을 바라보고는 했다。



◇洋屋으로 개축한 大田 오류동의 「靑柿舍」 朴龍來가 73년 다시 양옥으로 지은 대전시중구 오류동 17번지 15호의 집。 처음 이사를 왔던 65년에는 마당에 채소와 열매나무들을 심었었다。 「靑柿舍」라 이름지은 그집에는 이사올때 있었던 감나무가 아직도 서있다。

78년여름 자택에서 朴龍來부부。 그는 술을 밤새 곤죽이되도록 마시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짓는 「눈물의시인」 이었으나 시를 쓰는태도는 매우 엄격하여 「옷을깁고싶다。 당사실같은 언어로 떨어진 시인의 옷을 깁고 싶다」 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시상이 떠오르면 낡은 봉투、 서념감、 카드같은데에 시를 썼다。

◇르포의 證人

李台俊(53·미망인·충남대전시동구보건소모자보건원계장)
朴 燕(24·차녀·충남대전시중구용문동 한진주택가동1-1호)
任剛彬(53·문우·시인·충남대덕군진잠면鎭岑중학교교감)
洪禧杓(38·후학·시인·목원대교수)
姜聲烈(39·친지·화가·논산嘉民중학교교사)

鴻來누님·金素雲에이어 朴木月만나 詩人이될 人間軌跡이뤄

年 譜

▲1925년 1월14일 (음) 충청남도 논산군 江景읍 중앙동에서 密陽朴氏 元秦와 金正子와의 사이에서 3남1녀중 막내로 출생。

▲1939년 강경의 중앙보통학교 졸업후 江景상업학교 입학。 중학시절<啄木詩集><부활><죄와벌><貧乏物語>등을 읽다。

▲1940년 시적 모티브가 되는 누나 鴻來 사망。

▲1943년 12월 江景상업학교 졸업。

▲1944년 1월 朝鮮銀行 본점에 입행。 다시 조선은행 대전지점 근무。

▲1946년 대전에서 丁薰、 朴喜宣등과 동인 「桜栢詩會」를 조직, 시를 쓰기 시작。 鷄龍學塾에서 상업과 국어를 담당。

▲1948년 9월 湖西중학교를 시발로 德沼중학교, 한밭중학교, 唐津의 松岳중학교등을 전전하며 1965년까지 교직생활을 하다。

▲1955년現代文學 6월호에시<가을의노래>가朴斗鎭추천으로게재。

▲1956년시<黃土길> (現代文學 1월호) <땅> (現代文學 4월호)으로추천완료。 <엉겅퀴> (現代文學10월호) 발표。 대전간호학교 출신의 全州李氏 台俊과 결혼。 시인 任剛彬과 만나다。

▲1957년 장녀 舒雅출생。 시<코스모스> (現代文學11월호) 발표。

▲1958년 시<素描> (現代文學 3월호) <素描>(現代文學 6월호) <뜨락>(現代文學 9월호)등발표。

▲1959년 차녀 燕출생。 시<울타리 밖에도> <凋落의 章><雜木林>을 現代文學 2, 6, 8월호에각각 발표。

▲1960년 충남 唐津군 松岳면의 송악중학교에서 근무。 시<秋日><물레>를 現代文學 2, 9월호에 각각 발표。

▲1961년 3녀 水明 출생。제 5회 忠南文化賞 수상。 시<葉書에>(現代文學12월호) 등 발표。

▲1965년 송악중학교사직。대전시중구梧柳동17번지15호 자택을마련。

▲1966년 4녀 眞雅 출생。

▲1969년 시<저녁눈>(月刊文學 5월호) 발표。 「오늘의 韓國詩人選集」으로 첫시집<싸락눈> (三愛社) 간행。

▲1970년<저녁눈>기타로 現代詩學社 제정 제1회 작품상 수상。

▲1971년 외동아들 鶴城출생。 시<斜面> (月刊文學 2월호) 발표。 산문<나루터><풍금소리><鴻來누님><대추알><노적가리><삼무사><螢匣><母校><木炭車><봇물>을 現代詩學 9월호부터 익년 6월호까지 매달 발표, 韓性祺·任剛彬·崔元圭·趙南翼·洪禧杓등 대전의 시인들과 6인시집<靑蛙集>간행。

▲1973년 시<시락죽>(文學思想 5월호)<꽃물>(韓國文學12월호) 등 발표。

▲1974년 산문<詩의 마무리를어떻게 하는가> (現代詩學 4월호) <나의 詩—상처속의 美> (韓國文學 7월호) 등 발표。 한국문인협회 충남지부장。

▲1975년 시<눈 오는 날> (文學과 知性) 산문<선비氣質의 風流飮食> (月刊中央10월호) 등 발표。 제 2시집<강아지풀> (民音社) 간행。

▲1976년 산문<가장 사랑하는한마디의 말—강아지풀>(文學思想 6월호) 이후<호박잎에 모이는 빗소리>란 제목으로 文學思想 12월호까지 산문 연재。 시 <콩밭머리> (韓國文學 6월호) 등 발표。

▲1977년 시<바람속> (世代 3월호) <童謠風> (文學思想 11월호) 산문<왜 나는 文學을 선택했는가—벗어라, 옷을 벗어라>등 발표。

▲1978년 시<매미> (文學思想 8월호) <제비꽃> (文藝中央겨울호) <木月선생님> (心象 5월호) 등 발표。

▲1979년 시 <李文求/쇠죽가마> (文學思想 4월호) <저물녘> (文學思想11월호) 산문<珊瑚簪> (韓國文學10월호) 등 발표, 제 3시집<白髮의 꽃대궁> (文學藝術社) 간행。

▲1980년 시<부여> (心象 3월호) <보름> (韓國文學 5월호) <버드나무길> (現代詩學 4월호) <앵두꽃 살구꽃 피면><열사흘> (이상現代文學 8월호)<먼 바다> (韓國文學 9월호) <음화><육십의가을><첫눈> (이상세계의文學겨울호) 등 발표 이해 여름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3개월간입원。 11월21일 오후 1시 심장마비로 자택에서 타계。 대전 천주교공원묘지에안장 12월 시<먼 바다>와시집<白髮의꽃대궁>으로제 7회韓國文學作家賞 (韓國文學社제정) 수상。

맛사지

RELAX IN PRIVATE COMFORT
'Whirlpool' 'Sauna' 'Showers' 'Gym'
OPEN 10 a.m.-1 a.m.
5170 DIXIE ROAD
OPEN SUNDAYS 624-8822
(near airport)
MISSISSAUGA

한국일보

캐나다 사회를 아는 지름길:
교포사회를 잘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사업의 번영을 원하시는 분, 자녀교육, 이민문제, 고국소식등에관심을 가지신 분은 꼭히 구독해야 할
"한국일보"(THE KOREA TIMES TORONTO)를 잊지 마십시오.

주6일 발행(금·토일자는 합본)
구독료(선금) 월 : $9, 6개월 : $50, 년 : $99
(크레딧·카드 넘버만 주셔도 됨)
전화 : (416) 533-2361

구독 신청서

한국일보

이름 ....
주소 .... APT ....
도시 .... 주 ....
우편번호 ☐☐☐☐☐☐ 전화 ....
크레딧·카드넘버 : VISA .... 매스터카드 ....

보내실곳 : The Korea Times Ltd.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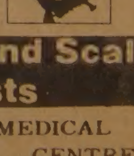
보십시요

새 머리털이 자랍니다

당신이 원하는 머리털의 성장 실험결과가 우리 전문가들에 의해 85% 이상 성공했읍니다.

당신의 머리털이 빠짐을 막고, 새 머리털의 성장주기를 자주 해주는 최근의 설비가 임상실험실에 있읍니다. 우리의 훈련된 머리털 전문가가 당신의 머리털과 머리 가죽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일차 상담해 주십시요.
걱정을 해결합니다.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 : 537-3104

亞·太잼버리大會서 少年들이 보여준 "모범"

자유분방속에 몸에밴 規律

꼴불견 어른들에 警鐘구실

"秩序"란 바로 이런것

萬2천여隊員 짜임새있는 團體생활

◇보이스카우트 전북연맹 全州지구 524대 林起學군(17·종암고2년) 등 2명이 인도네시아 스카우트단원에게 버너사용법을 알려주면서 국제간의 우애를다지고있다.

산뜻한 광경이었다. 「행락인파의 꼴불견」을 지켜보아온 기자의 기분이 금방 상쾌해졌다. 수학여행을 온 학생들처럼 자유분방 했지만 보이지 않는 절도가있었고 훈련받는 신병처럼 딱딱해 보이지도 않았다. 물론 고성방가도 없었으며 아무곳에 방뇨하는 사람도 없었다. 과자봉지와 음료수병이 어지럽게 나뒹굴지도 않았다. 세계각국에서 갑자기 모인 소년소녀 1만1천여명이 어떻게 약속이나 한듯이 짜임새있는 단체활동을 할수 있는것일까. 어떻게 그 질서 감각이 몸에 배어있는 것일까. 그것은 어릴때부터의 훈련에서 비롯되는 것이 확실 했다.

오는 10일까지 계속되는 종합 야영장. 「제6회 한국잼버리겸 제8회 아세아-태평양지역잼버리」가 열리고 있는 전북茂朱郡雪川面三公里 德裕臺. 지난2일 1천42명의 전북 스카우트단원이 온것을 시작으로 개최일인 4일까지, 전국 13개시도 참가단과 외국인(9백여명)등 1만2천여명이 모두도착, 지정된 야영지에 설영(設營)을 마쳤다.

참가자들은 먼저 잼버리기간동안 자신들이 머무를 천막을 치고 식당겸 취사장을 마련하며 하루의 일과를토의할 회의장을 만들었다.

이같은 준비는 여느 행락장에서도 해야할일이지만 참가한 소년소녀들이 좋은자리를 잡기위해 서두르지도 다투지도 않았고 설겆이가 귀찮다고 일을 미루지도 않았으며 남이 보지않는다고 아무곳에나 쓰레기를 버리지도 않았다.

德裕臺야영장에는 화장실 시설과 목욕시설이미흡했다. 그러나 스카우트단원들은 광목으로 앞만가린 화장실앞에 서지만 끈기있게 자기차례를 기다렸고 새치기가없었다. 산속에지만 아무곳에서나 용변을 처리하는 얌체도 볼수 없었다.

오히려 빨래를 하고도 수도꼭지를 잠그지않고 가는쪽은 어른들인것 같았다.

행락부질서와 청소년들이 운동경기장에서 집단난투극을 벌이는등 페어플레이정신을 잊고있는 현상에 비추어 茂朱의 정경은 인상적인 것이었다.

田栍昊군(16·大田·보문고1년)은 『「스카우트는 우애한다」 「스카우트는 서로 도움이 된다」등 12가지의 기본 규율을생각하며 활동하기때문에 행동에서 실수를 하지않으려는 마음가짐이 몸에 배게됐다』면서 『행동하기전에는 올바른 판단을 얻기위해 한번더 생각하게된다』고 말했다.

한 인솔자에게 『많은 학교에서 많은학생이 참가했는데도 사소한 시비한건 없다는 것이 이상할정도』라고 묻자 그는 『스카우트는 한가족이다. 한가족끼리 싸울수도있는가』고 반문했다.

金石相군(18·경북榮州·榮光高2년)은 『스카우트활동을 한후부터는 내성적인 성격이 고쳐졌다』며 『나는 스카우트라는 생각 때문에 버스안에서 노인들을 보면 자리를 양보하는등 봉사정신을 남보다 먼저 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것은 질서와 봉사정신만은 아니었다. 盧熙相군(18·全州·新興高2년)은 『스카우트에서 배운 요리를 집안 식구들에게 해 보이는 적도 많고 양말과 손수건은 스스로 빨아 이용한다』고 말하면서 협동하는 자세를 키우고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또 「광역게임」을 통해 낯모르는 소년들과 어울리며 서로 주소를 베끼고 기념품을 교환하며 새로운친구들을 익히기도 했다.

지금까지 젊음의 제전이란 이름아래 실시돼왔던 각종행사들이 낭비와 퇴폐를 조장해온 경향이 없지않았던만큼 잼버리 같은 행사는 무척 긍정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보이스카우트의 잼버리란 야영대회를 말하는 것으로 국제적인 야영대회를 통해 ▲청소년의 모험정신을 충족시키고 ▲국가관을 함양하며 ▲개척정신과 창의력을 기르고 ▲외국인과의 접촉으로 외국을이해한다는것을 목표로한다.

그러나 이같은 기본목표외에 젊은이들은 서로 낯모르는 사람들끼리의 야영을통해 협동정신과 봉사정신을 배우게되고 저도 모르는 사이자립과 질서의식을 몸에배게된다.

기자는 스카우트 대원들이 잼버리를 떠난후 학교와 사회에서도 절도있는 생활을계속하는것이 바람직 할것이라고 느꼈다.

【茂朱=鄭樂鎬기자】

빗길 高速버스 錦江추락

沃川橋난간받고

13명死亡 30여명負傷

【沃川】6일하오3시25분께 충북沃川郡東二面赤下里 경부고속도로(서울깃점176㎞)에서 大田을떠나 大邱로 가던 한진고속소속 경기6바1144호 고속버스(운전사 이정일·40)가 때마침 쏟아진 소나기로 미끄러워진 빗길을 과속으로 달리다 沃川3교 다리난간을 들이받고 6m다리아래로 추락, 승객 윤기현씨(29·경북月城郡陽南面羅兒里)등 13명이 사망하고 최재구씨(33·서울城東區廣壯洞123)등 3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버스는 이날승객45명을 태우고 大邱로 가던중 사고지점에 못미처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지그재그로 달리다 중앙분리대를넘어 서울쪽으로가던 매일우유 沃川보급소소속 충북7바4148호 타이탄트럭(운전사 고상렬·24)을 들이받고 다리난간을 부순뒤 錦江으로 추락했다.

사고버스 승객 이종춘씨(27)는 『사고가 나기직전 갑자기 소나기가쏟아져 차창커튼을 제끼는순간 버스가 지그재그로 달리며 중앙분리대를넘어 상행선쪽 다리난간을 받고 강변으로떨어져 정신을 잃었다』고 사고순간을 설명했다.

또 트럭운전사 고씨는 『사고지점부근에 왔을때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로 길이미끄러워 시속40㎞정도로 서행을하던중 맞은편에서오던 고속버스가 중앙분리대를넘어 트럭앞부분을받고 다리아래로 떨어졌는데 다행히 트럭은 앞부분만 파손됐을뿐 별다른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사망자명단은 이날하오 6시현재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중경상자들은 大田을지병원과 한관대병원, 동산병원, 沃川성모병원등에 분산가료중인데 중상자명단은 다음과 같다.

▲정효남(34·여·大邱市西區坪里洞) ▲강옥희(27·여·晋州市上大洞286) ▲허명자(23·여·大田市中區佳狀洞237의1) ▲최재구(33) ▲김원섭(29·서울恩平區應岩洞242의78) ▲구자대(23) ▲김부기(22) ▲이공주(28·大田市中區桃馬洞123의2) ▲홍성남(25·여·大田市中區桃馬洞12) ▲우계훈(4·주소불명) ▲김종춘(27) 【鄕】

日人 승차거부

한시택시業者들 歷史왜곡 규탄

本社에 방위성금도

서울시내 한시택시사업자 1천여명은 6일상오10시 서울中區乙支路6街 계림극장에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관한 성토대회」를 열고 왜곡부분이 정정될때까지 일본인에대한 승차를 거부하고 일본의 자동차부품과 상품을 구입치말자고 결의했다.

한편 대회를마친 사업자들은 즉석에서 모금한 30만6백원과 경북·大邱市 협의회장 崔鍾洙씨(53)등 2명이 낸 1백만원등 모두 1백30만6백원을 방위성금으로 한국일보사에 기탁했다.

老人會등 잇단궐기

▲대한노인회 安東시군지부노인 4백여명은 6일상오10시 安東市雲興洞安東역 광장에서 일본역사교과서 왜곡사실을 규탄하는 규탄대회를 가졌다.

▲대한노인회 晋州市지부를 비롯해 晋州상공회의소등 晋州시내 8개사회단체들은 5일 일본역사교과서 왜곡부분의 조속한 시정을 촉구하는 촉구문을 주한일본대사관에 보냈다.

▲경기도 노인회(회장 李寶敬·72)회원 5백여명은 6일상오 水原市 迎華洞 북문앞 장안공원에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일부각료의 망언을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가졌다.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목거리,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大邱, 7월한달

事故운전사 刑事처벌 줄어

特例法후 68%혜택

【大邱】지난 7월1일부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大邱시내 사고운전사의 68%가 형사처벌이면제되고 경찰의 사고처리 업무도 줄어드는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6일 大邱시경에따르면 7월 한달동안 大邱시내에서모두 1천1백7건의사고가 발생했으나 이중 31·7%에해당하는 3백52건만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됐고 나머지 7백55건은 이번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이 면제됐다는것.

형사처벌을 받은 3백52건은 음주운전·무면허운전등 특례조항에서 제외된 8개항목과 사망사고및 가해자와피해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은 사고등이다.

불기소처분을 받게된 7백55건을 내용별로 보면 사고당사자 상호합의가 4백11건, 공제조합 가입이 1백88건, 자동차보험 가입이 1백56건으로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간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면하게 됐다.

교통사고는 지난 6월말까지는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왔으나 7월1일부터는 특례법시행에따라 사망과 8개항을제외하고는 보험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했거나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사처벌을 면제하게 되었다. 【鄕】

유원지서 大學生들 패싸움

여자파트너 서로 구하려다

【南原】전북南原경찰서는 6일 J대2년 임모군(20·南原市雙橋洞)등 3명과 같은대학1년 정모군(20·南原市雙橋洞)등 5명과 모두8명을 폭행상해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5일밤9시40분께 南原郡山內面 뱀사골에서 각각 텐트를치고 야영하면서 경기도 松炭市에서 피서온 金모양(22·松炭市中央洞)등 여자일행 5명을 서로 자기일행의 짝으로 만들기위해 파도와 몽둥이등을 휘두르며 서로 난투극을 벌여 8명모두가 팔·다리·옆구리등에 10~14일의 치료를요하는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다. 【鄕】

구독신청 배달사고 [illegible]-2801

女종업원 80여만원받고 팔아넘겨

다방에…1명拘束

【木浦】木浦경찰서는 6일 李成春씨(24·新安郡長山面多水里)를 약취유인 혐의로 구속하고 李相喆씨(25·木浦市海岸洞2街)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28일밤 11시40분께 木浦市 中央洞 사복스낵코너 종업원 강모양(26·木浦市山亭洞)을 유인, 다음날 莞島邑 H다방에 팔아넘기고 다방주인 金모씨(26·여)에게 현금50만원을받은것을비롯 두차례에 걸쳐 현금86만원을 받아 나눠가진혐의다. 【鄕】

美문화원 放火사건 宣告공판 11일로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관련 피고인16명에대한 선고공판이 오는11일 상오9시30분으로 연기됐다.

이사건담당재판부인 부산지법형사4부(재판장 安文泰부장판사)는 당초 선고공판을 9일로 예정했었는데 이유는 방대한기록검토등재판부의 사정때문이라는것이다.

美副領事에 돈주고 비자 발급부탁

移民代行업자 구속

副領事고발로…1명은 立件

치안본부 외사수사대는 6일 영문대서및 이민수속 대행업체인 삼보사(서울鍾路區壽松洞) 대표 金鍾植씨(35·서울道峰區牛耳洞47의16)를 외국환 관리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하고 직원 俞鎬容씨(47·서울冠岳區方背洞)를 같은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의하면 金씨는 미국대사관 부영사 로버트·M·사이볼드씨(33) 숙소(美대사관직원관사)에서 이민비자는 1인당 2천5백달러, 비이민비자는 1천달러씩 주면 비자발급을 빨리해주기로 약속한후 지난2일낮 12시15분께 사이볼드씨로부터 金玉春씨(34·서울中區光熙洞1街124)등 10명의 비자를 『급히발급받으려면 1만5백달러를 건네주다 경찰에 검거됐다.

金씨는 이날 사이볼드씨로부터 『비자가 다됐으니 찾아가라』는 전화가걸려와 돈을갖고 사이볼드씨의 숙소로갔었는데 사이볼드씨가 돈을헤아리면서 버튼을누르자 미국인 3,4명이 나타나 金씨를 붙잡아 치안본부로 넘겼다는것.

金씨는 이같은약속을 지난 6월23일 사이볼드씨와 약속했는데 지난7월1일부터 26일까지 비자발급희망자 金씨등 10명으로부터 1백만원내지 3백만원씩 모두1천3백20만원을받아 이중 8백40만원을 지난7월27일 상오11시께 서울龍山區梨泰院洞소방서옆골목에서 40대남자 암달러상에게 미화 1만달러를 바꾸었다는것.

구속된 金씨는 지난6월초 미국대사관직원으로 있다 퇴직, 삼보사에 입사한 俞씨로부터 사이볼드씨를 소개받았는데 金씨는 『그동안 사이볼드씨에게 요정과 중국음식점에서 대접을 했으며 지난 6월을 삼보사에서 의뢰한비자발급을 비교적 빨리 처리해주어 한화50만원을 사례비로 주었다』고 진술했다.

입건된 俞씨는 미군부대에 7년간 근무하다 지난78년美대사관 비정규직원(보안과 소속)으로 들어갔다가 과로옮겨 지난5월말 퇴직했었다.

한편 경찰은 그동안 『안되는 비자도 金씨에게부탁하면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金씨가 이민수속업계에 거물이었다는점을 중시, 金씨의 여죄를 캐는한편 金씨와 관련을 맺어온 여행사및 이민수속대행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大學 이념指導교수硏修會

李문교 "共産이론서 젊은이 解放"

문교부는 6일 慶州코오롱호텔에서 전국대학이념 지도교수 1백10명이 참석한가운데 대학생이념·교육지도를위한 연수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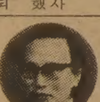
이날 연수회에서 李奎浩문교부장관은 「이데올로기비판교육의 의의」라는 제목의 특강을 했다.

각대학의 국민윤리 담당교수, 이데올로기 비판교육 연구의 책임교수등 모두5백54명을대상으로 5회에걸쳐 실시되는 이연수회는 교수들의 이데올로기 비판교육 지도능력을 높이고 대학사회에서의 의식개혁을 추진하기위한것.

李장관은 이날특강을 통해 『이데올로기비판교육은현대에서 공산주의이론에서젊은이들을 해방시키고 이들에게 자기성장의 문을 열어주기 위한것』이라고 말하고 『공산주의등 경화된 이데올로기는 획일성 강제성 폐쇄성등 역기능을가져와 창의적인 노력을 억제하고 발전의 필수요건인 개방성을 빼앗아간다』고 지적했다.

李장관은 『일부 젊은이들이 공산주의에 매력을 느끼는 것은 공산주의 이론체계의 논리성 합리성등 때문인것으로 보이나 그 이론이나 예언은 그동안 적중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특히 인간을 사회경제적 효율성 가치로만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양화가 趙重顯씨



동양화가 心園 趙重顯씨(사진·梨花女大교수)가 6일상오11시20분 서울鍾路區上道1洞126의32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66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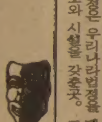
心園은 以堂 金殷鎬화백의 문하생으로 1936년 「鮮展」에 입선했고 1942년에는 「鮮展」에서 총독상을 받았으며 1949년부터는 「國展」 초대작가와 심사위원으로, 1961년부터는 梨大교수로 재직해왔다.

유족으로는 부인 申七壽여사와 장남 聖鎬씨(한국일보 政治部기자)등 7남매. 발인은 9일 상오8시, 상오9시 上道성결교회에서 추모예배를 갖는다. 장지는 충남 燕岐郡 全義面 선영. ☎824480.

廷吏

서울刑事地法 대법정담당 金燦奎씨

"司法部신뢰 높을수록 일 쉬워져요"



「공판정은 어떤 의미에서건 질서를 깨뜨린 사람들을 심판하는 장소이기때문에 질서가 흐트러질수 없는곳이다. 그러나 항상 질서를 위협받는다. 『방청석』의 혐의를 받는사람들이 결백을 주장하고 변호사가 이를 도우며 방청석에서 호응하는 그분위기가 법정의 질서를 침해한다』 그래서 재판부에게 법정질서권이 주어지고 그 집행을 정리(廷吏)가 맡는다.

서울형사지법소속 대법정담당 정리 金燦奎씨(사진·45)。그는 지난3년의 격동기동안 대법정의 질서를 지켜온 사람이다.

대법정은 우리나라법정을 대표하는 규모와 시설을 갖추었다. 그래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의 재판이 항상 이곳에서 열린다. 방청석 1백40석 被告席12석 검사석 변호사석 기자석 대기석등이 골고루자리잡혔다.

그는 지난7월 무더위속에 뉴스의 초점이 됐던 李·張부부사건의 7차례공판이 계속되는동안에도 방심을 할수 없었다.

그가하는일은 재판개정시간 30분전까지 방청객들을 상대로 녹음기 카메라 무기류등을 철저히 점검해서 입장시키고 재판진행동안에는 방청석맨앞에서서 방청객들의 수상한동작이나 잡담, 웃음, 울음행위를 감시하고 조는사람들을 적발, 주의를주는것등이다.

李·張사건공판때 하루에 9시간동안 계속되는 법정을 감시하다 보면 끝내 지치고 피로가 극에 달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기업인 금융인들이어서인지 세론과 예상에비해 조용한 편이 었고 전문적인 경제문제로 일관되어 차라리 지리한 재판이었다는게 인상담이다. 그러면서 수천억원이 유통되는 지하경제의 생리에 대해 조금 알게된게 소득이었다고 덧붙인다.

그가 겪은 큰재판은 南民戰사건(피고인 70여명) 全民學聯사건(李泰馥등피고인26명) 尹노파살해사건(고潤相군살해사건)등. 재판중에는 학생 노동자 종교인이 관련된 사건이 방청객들이 많고 질서유지에도 힘들다고 전했다.

그가 가장 고충을 느낄때는 피고인들에게 사형이 구형되거나 선고될때 법정이 갑자기 싸늘해지고 가족들이 실신하거나 통곡을 할때 달려가 그들을 진정시키고 달래 밖으로 내보내야하는 일이다.

또하나 어려웠던일은 법정촬영이 자유로왔을때。보도진들은 저마다 좋은사진을 찍으려했기에 공판정의 질서를유지하기에 무척 힘들었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법정질서를 바로잡는데 큰 애를 먹지는 않았다고생각하고있다。실체의 진실을 찾아가는 법정의 진지한 분위기와 재판부에대한 외경심, 존경심이 자기일을도와주었다。그는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하는 사회가 될수록 공판정의 질서유지는 그만큼 쉬워지지않겠는가고 반문한다。

【林永茂기자】

MLS
HWANG 주시회사 황용현부동산
금주의 새리스팅

VARIETY STORES
주매상 $14,000 Rent $4,000 9년+10년 가격 $225,000
주매상 $14,500 Rent $5,000 9년+10년 가격 $225,000
주매상 $8,500 Rent $800 4년+5년 가격 $110,000
주매상 $7,000 Rent $1,720 4년+10년 가격 $75,000

VARIETY STORE와 BUILDING
1)주매상 $11,000 코거빌딩 다운타운, 아파트 5채,
가격 가게 $129,000 빌딩 $269,000
현금다운 $150,000,00
2)주매상 $7,500 코거빌딩 다운타운
가격 가게 $70,000 빌딩 $360,000 아파트 4채
현금다운 $200,000,00

DONUT SHOPS
1)주매상 $8,500 Rent $2,250 $350,000
2)주매상 $6,500 Rent $3,000 $200,000

VARIETY STORE LOCATION
1) indoor Mall Rent $7,00/SQF, 5 Years+5 Years
Side 2100 SQF,2)개인 Building Rent $6,00/SQF,
1500SQF, 5 Years+5 Years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SUITE G5 DON MILLS
TEL(416)449-8644~5(B) · 286-1548(R) M3B 1Z3

도 매 업
○ 채소 ○ 과일 ○ 화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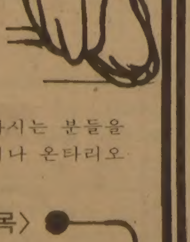
야채·과일·화초·꽃등을 취급하시는 교미여러분 또는 취급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매업을 시작했읍니다 매일 일찍 일어나 온타리오 FOOD TERMINAL까지 가실 필요가 없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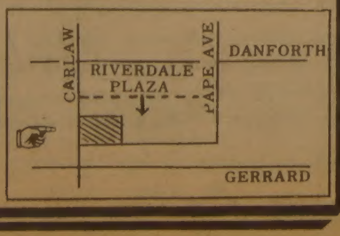
〈취급품목〉
— 모든 채소종류.
— 모든 과일종류
— CUT FLOWER
— 화분
— HANGING PLANT

— 품질·가격·신용보장.
— 배달은 $150이상 주문시.

주문시간 오전 9시~오후10시까지(월~토)
오전11시~오후 6시( )

BROADWAY
FRUIT MARKET
437 CARLAW AVE
☎ 465-8167 대표 곽덕열





意安飯店
의안반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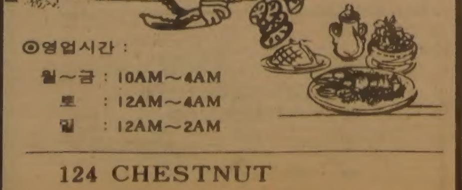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10AM~4AM
토 : 12AM~4AM
일 : 12AM~2A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 와 Chestnut 코너)
☎ : 977-9734



「70년傳統」이 「1년생」에 혼났다

강호善隣、파이팅濟物浦에 신승 2-1

◇肉彈슬라이딩 4회말 善隣商 1死 1,2루의 찬스에서 더블·스틸을 감행, 2루주자 李成權이 3루에서 간발의 차로아웃되었다。濟物浦 3루수는 吳澤仁㊖。

在日同胞는 冲岩을 초반에 공략 5-4

제12회 봉황대기고교야구 <7일째>

70년전통의 善隣商高가 신생팀 濟物浦高의 투지에 식은땀을 흘렸다。善隣商은 6일 서울운동장에서 벌어진 제12회 봉황대기쟁탈 전국고교야구대회 6일째 1회전경기서 4번 金湘昊가 4회말 선제타점 2루타를 날리고 7회말 좌월 2루타로 나가 희생 플라이로 결승점을 올려 濟物浦에 2-1로 힘겹게 승리했다。금년 시즌 한번도 지역 예선을 통과하지 못했던 善隣商은 2회전에서 우승후보 天安北一高와 겨루게됐다。7년만에 팀을 부활, 봉황무대에 나선 京畿商高는 명문 慶南高와 연장12회까지 2-2로 팽팽히 맞선채 승부를 가리지못해 7일 상오8시 13회부터 연장 계속경기를 갖게됐다。봉황구장에는 세찬빗줄기를 무릅쓰고 1만여관중이 우산을 받쳐들고 열기띤 함성을질렀다。재일동포팀은 1·2회에 6개의2루타와 1개의 단타를 몰아쳐 끈질긴 추격을벌인 冲岩高를 5-4로 누르고 2회전에 진출, 慶南高-京畿商승자와 3회전진출권을 가리게된다。

京畿商·慶南高 오늘 계속경기 2-2

◇재일동포 야구선수들을 따라 모국을 방문한 동포학부모들이 6일 冲岩高와의 경기서 동포팀을 열렬히 응원하고 있다。

20여 在日同胞 열렬한 응원

재일동포팀의 첫경기가 벌어진 6일 특석스탠드에서는 20여명의 동포응원단이 선수들을 열렬히응원,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白聖欽선수의 아버지 白錫碩씨(53·大阪) 투수 權仁志의 아버지 權敏五씨(46), 姜孝大의 어머니와 서울에사는 선수들의 친척들。

白씨등은 한결같이 한국야구가 많이 발전했다는소식을 日本서 들었다며 동포선수들이 한국프로야구에도 크게 관심을 갖고있다고 전했다。

경북善山이 고향인 白씨는『일본에서는 야구선수들이 비교적 국적차별을 받지 않아 많은 교포들이 자식들을 야구선수로 키우려하고 있다며 올봄 甲子園대회에 참가했던 權仁志 姜孝大등은 일본에서도 유망한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白씨는 또 아들을 東京 6대학에 보내 야구를 계속시키고 싶다며 모국의 프로야구팀에서 스카우트를 제의해 온다면 기꺼이 보내겠다고。

權씨는 매년 봉황기대회에 참가했던 동포선수들이『경기욕 관중들이 따뜻하게 응원해주고 친절을 베풀어줘 고마와한다』며 많은 동포선수들이 선발팀에 뽑혀 서울에서 경기할 기회를 갖고싶어한다고 말했다。아들의 경기도 볼겸 친척들을 만나러 모국을찾은 姜군의 어머니는『경기가끝나면 아들에게 두루두루관광을시켜주겠다』며 밝은표정이었다。【兪炳根기자】

善隣-濟物浦 70년전통의 善隣商이 참단 초년의 濟物浦에 식은땀을 흘렸다。

지난해 최강의전력을 자랑하던 善隣으로는 금년 각종대회 예선에서 탈락, 전국무대에 처음나와서 치른 부끄러운 한판이었다。

『최선을 다해서 뛰어볼뿐이다。분에넘친 욕심은 내지않겠다』 신생팀 濟物浦의 鮮于鍾갑감독은 상대팀 善隣의저력을 무시할수 없었다。

濟物浦1년생 에이스 許晶旭은 쾌조였다。뛰어난 볼컨트롤로 스트라익존의 외곽을 찌르며 善隣商 타자들을 3회까지 삼진과 범타로 선망했다。

그러나 許의 투구는 너무 깨끗하게 흠이었다。3회까지 무안타로 눌리던 善隣은 4회말 선두 1번 李成權이 포볼후 2번 梁丁一이 처음 중전 안타를 때려 無死 1·2루의 찬스를 잡았다。3번 鄭錫熙가 번트실패, 파울플라이로잡히고 더블스틸을 노리던 李成權이 3루에서 아웃되었다。2死2루로 한 고비를 넘긴 濟物浦투수 許晶旭은 뜻밖의 폭투로 주자를 3루로 보내주었다。

善隣은 끈질기게 찬스를 살렸다。4번 金湘昊의 중월2루타로 선제점을 뽑았다。반격에나선 濟物浦는 6회초 선두 3번 崔載夏가 포볼을 고르고 2盜에 성공하자 정석대로 보내기번트로 3루에 보낸후 6번 李旭宰의 중전적시타로 1-1의 동점을 만들었다。7번 朴承禹의 좌전안타가 잇달아터져 2死1·2루로 계속된 찬스를 濟物浦는 더블스틸을 노리다 놓쳐버렸다。

큰 고비를 넘긴 善隣은 7회말 선두 4번 金湘昊가 좌월 2루타를 날려 보내기번트와 6번 韓英璽의 희생플라이로 결승점을 기록했다。

京畿商-慶南高 崔東原은 제2의 崔東原으로 기대를 모으는 慶南에이스 趙容徹을 과신한 탓일까。慶南은 京畿商에게 6회초 집중4안타를 얻어맞고 선제 2점을 빼앗기며 악전고투했다。

趙容徹은 소문대로 3회까지 4개의 삼진을 빼앗으며 우완 정통파로서 위력을 과시했다。京畿商은 李龍權을 마운드에 세워, 慶南과 팽팽한 투수전을 전개했다。

京畿商은 4회초 1死후 趙容徹에게 한방을 먹인후 6회초 소나기 4안타로 趙를 K O시켰다。선두2번 宋浩仁의 우중월 3루타 1死후 4번崔祥奎가 중전안타, 5번李龍權이 우전안타, 6번金學眞이 중전안타를 연발시켜 2점을 선제하고 1死1·3루의 찬스가 계속됐다。

慶南高는 황급히 趙를 불러들이고 郭東烈을 내세워 연속 삼진으로 추가실점위기를 막았다。

6회까지 겨우2안타에 그쳤던 慶南도 7회말 3번 徐敏杓의 포볼, 4번 趙容徹의 좌월 2루타, 5번 崔光一의 희생 플라이, 6번 崔在龍의 좌전 안타, 7번 郭東烈의 희생플라이로 京畿商 마운드를 몰아붙여 2-2의 동점을 만들었다。

◇제6일전적
▲1회전

경기상고	000	002	000	000	2
경남고	000	000	200	000	2

〈연장12회 일시정지〉
▲경기상투수=金龍權 포수=崔祥奎 ▲경남투수=趙容徹·郭東烈(6회) 포수=崔光一

제물포고	000	001	000	1
선린상고	000	100	10×	2

▲제물포투수=許晶旭 포수=崔載夏 ▲선린상투수=鈴兩·韓英璽(6회) 포수=朴善一 ▲안타=제물고5-6선린

◇제4일1회전

청주고	014	000	3	8
부산공고	000	000	0	0

〈7회콜드게임〉
▲청주투수=崔有植 포수=白在國 ▲부산공투수=李揆晃·許世燁(6회) 포수=田成國 ▲안타=청주9-2부산공

新銳돌풍·名門탈락의 異變속출

1回戰 22게임 중간결산

鳳凰大旗 1주일, 전통의명문과 신생초년병들이 함께어울려 싸우는 鳳凰그라운드에는 신선한 화제와 돌풍이 예고없이 몰아닥친다。

22게임의 1회전에서 鳳凰무대에 처음 뛰어든 原州高, 東萊高가 강호 中央高, 서울高를 격파, 파란을 일으켰으며, 전통의 명문 大邱商高, 仁川高, 培材高가 어이없이 콜드 게임을 당하거나 신생팀들에게 참패, 성원하던 동문들에게 충격을던져주었다。

6일간의 1회전관문을 뚫은 팀은 모두 22개팀。

초년병 原州·東萊 돋보여…中央·邱商등침몰 충격
忠淸勢가 가장 짭짤…釜高·慶北·北一·群商호각勢

지역별로는 야구후발지역인 忠淸이 가장 알찬 성과를 보이고있다。80년 鳳凰大旗 우승이후 꾸준히 고교정상권을 지키고있는 北一高를 선두로 世光高, 淸州高등 도내 3개출전팀이 모두 1회전을 손쉽게 통과, 상위진출을 노리고있다。

전통적으로 고교야구가 강한 大邱와 釜山지역도 비교적 많은 팀들이 첫고비를 넘기고 2회전에 올라갔다。

大邱의 선두주자 慶北高는 막강전력을 무기로 대회 2連覇를 노리고있으며, 大邱高도 만만찮은 전력으로 정상을 넘보고있다。大邱의 치명적인 손실은 大邱商高의 콜드 게임패。상대가 우승후보인 群山商高이긴 했지만 콜드 게임패는 大邱商高의 빛나는 전통과 저력에 비추어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다。

釜山은 팀부활 첫대회서 명문 中央商을 격파한 東萊高의 쾌거로 들떠있으나 釜山高를 제외하고는 중반고비를 넘기기 힘들것으로 보인다。

1회전을 통해 가장부진을 보인곳은 全南과 서울이다。全南은 4개팀중 光州商高, 順天商高, 木浦商高등 3개팀이 1회전에서 탈락해버렸으며, 光州一高 혼자 부전승으로 2회전에 올라있다。

17개팀을 가진 서울 역시 14개팀이 1회전에나가 그중 3분의 2가 탈락해버렸다。1회전서 살아남은 徽文高, 德壽商高, 獎忠高, 明知高등도 2회전 돌파가 쉽지않다。

鳳凰대회 역시 釜山高, 慶北高, 群山商高, 北一高가 호각세로 우승을 겨루게 될것으로 보인다。世光高, 大邱高 馬山, 浦鐵工등이 선두다툼에 파란을 예고하고있다。【方錫峋기자】

배구대표 文湧冠 肝炎… 입원

主戰 잇단사고… 戰力차질 심각

◇文湧冠

오는10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제10회 세계남자배구선수권대회와 11월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남자배구대표팀의 주전 文湧冠(인하대)이 급성간염으로 5일 경찰병원에 입원, 대표팀전력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됐다。

경찰병원 曺敏鉢 내과과장에 의하면 文은 최소한 4~8주간 입원치료를 받아야하며 치료가 끝나더라도 당분간 운동을 할수가 없다。

文湧冠은 갑작스런 발병으로 9月의 美國전지훈련 및 브라질 프레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대표선수단에서 제외될 위기에 직면했으며 印度아시안게임 출전여부도 확실치않은 상태다。

姜斗泰(금성)를 비롯, 柳重卓(인하대) 李鍾敬(경기대)등 주전들의 부상에다 文湧冠마저 간염에 걸리자 대한배구협회는 대책강구에 나섰으나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손가락을 수술한 柳重卓과 무릎부상인 李鍾敬은 상당히 회복, 정상전력을 되찾을수 있을 것같다。

北韓、印尼제압 3勝
亞洲청소년축구

【싱가포르5日=로이터】 북한은 5일 속개된 제12회 아시아청소년축구대회 A조 예선에서 인도네시아를 1-0으로 물리치고 3연승을 기록했다。

泰國은 A조예선에서 필리핀을 8-0으로 대파하고 2승1패를 기록했다。

◇제5일전적
▲A조

북한 1-0 인도네시아
(3승) (2패)
태국 8-0 필리핀
(2승1패) (2패)

한국、銅메달 넷…4位

세계 大學유도 安柄根 준준결서 탈락

【아바스(핀란드)=閔炳容특파원】5日 한국의 安柄根은 6일 이곳 스포츠홀에서 진행된 제7회 세계대학유도선수권대회 3일째 71kg급 경기에서 예선을 통과했으나 준준결승전서 소련의 테리·마가니에게 판정으로 패해 메달을 놓쳤다。이날 65kg급 경기서 朴長은 소련과 캐나다선수에게 패해 예선탈락했다。

5일 현재 소련이 금메달 2개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프랑스와 日本이 각각 금메달1개로 2위, 한국은 동메달3개로 4위를 마크하고 있다。

한국、準우승
리틀야구極東예선

한국은 6일 오오사까에서 폐막된 리틀야구 극동지구예선대회 최종결승전에서 지난해 세계대회 우승팀 自由中國에 3-1로 석패, 2위에 그쳤다。

6개국이 출전, 풀리그로 벌어진대회에서 한국과 自由中國 日本은 똑같이 4승1패를 마크, 결승토너먼트에서 自由中國이 日本을 4-0, 한국을 3-1로 연파하고 8월 본선대회 진출권을 획득했다。

◇최종일결승전적

자유중국	300	000	3
한국	100	000	1

三星、다시先頭

OB꺾고 10승3패 기록

프로야구

三星이 OB를 제치고 프로야구 후기리그 선두자리를 지키고있다。

三星라이온즈는 5일 프로야구후기리그 大田경기에서 4번 李萬洙의 3점홈런과 2번 許奎沃의 솔로홈런등에 힘입어 홈팀 OB베어스를 9-5로 물리치고 10승3패를 기록, 단독 선두를 마크했다。

전날경기에서 三星에 7-6으로 신승, 선두에 나섰던 OB는 이날 成洛秀 李善熙(3회) 黃圭奉(7회)이 계투한 三星마운드로부터 12안타를 얻고도 梁澤鐵·朴相烈(6회) 金賢洪(9회)이 홈런2개를 포함한 11안타를 허용, 4점차로 패했다。OB는 9승3패로 하룻만에 2위로 밀려났다。

光州경기에서는 MBC靑龍과 해태타이거즈가 9회까지 7-7로 승부를 가리지못하고 시간제한 일시정지게임이 선언돼 오는18일 寶塞구장서 연장10회부터 계속경기를 갖게됐다。

◇후기 중간순위 <5일현재>

팀	승	패
①三星	10	3
②OB	9	3
②MBC	9	3
④해태	4	8
④롯데	4	8
⑥三美	1	12

◇5일전적
◆광주

MBC	010	020	103	
해태	001	221	001	

〈일시정지게임〉
▲홈런=金一權(6회·해태) 柳承安(9회·2점·MBC)

◆대전

삼성	010	130	220	9
OB	001	110	101	5

▲홈런=李萬洙(5회·3점) 許奎沃(7회·이상삼성)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83>

朴婉緖 作 金光培 畵

양달 ⑱

『언니, 그분이면 내가 이렇게 말도 안해요. 멩그럴게 뻔한 집만 기증하면 뭘해요. 그게다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게 하려면 유지비는 또 얼마나 들겠어요? 남은 돈있다고 그렇게 번잡스럽게 사는 사람들 도무지 이해못하겠더란』

『그건 고모가 상관할일이 아니잖아요. 설마 그 정도의 뒷감당할 자신도 없이 일만 벌였겠어요?』

『하긴 그래요. 유지비를 위해서 그 욕내 금싸라기땅에 상가를 짓는데 참여해서 상당부분의 권리를 갖기로 돼있다니까요. 그렇지만 어느시기까진 돈이 들어만갈게 아녜요』

『어머, 고모 벌써부터 시집 자랑에다 시집 금고 걱정까지 하기예요?』

『그런게 아니라 떠들썩하게 사는게 싫어서 그런다니까요. 난 더도 말고 꼭 언니만큼만 살았으면 싶었어요. 너무 욕심 없는 소린지모르지만 오붓한 제 살인데도 유산녀하고, 남편은 이재(理財)에 밝고 애처가고, 그만하면 되잖아요?』

『말도 말아요』 아유 말도 말아요』

영탄은 도리질을하면서 섬뜩 소리를 냈다. 섬난 영탄은 딴 사람처럼 민첩해보였다. 워낙 품위있는 여자인데다 살림이 가까와질수록 가만가만히 걷고, 느리고 부드럽게 말하고 행복한 미소가 인화해놓은 것처럼 요지부동하던 영탄이었다. 수지도 영탄의 이런 변모를 첨이 벗겨진 가짜 물건 바라보듯이 칫곳은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짐짓 놀라는 시늉을 했다.

『왜요 언니?』

『유산을 속내지만 않으면 이재에 밝은 건가요? 늘 말들도 알고 쓸데도 알아야지. 그리고 오붓한 제살이긴, 시누이 시집살이 시집살이 아닌줄알아』

한번도 말은커녕 눈치로도 안보이던걸 말해놓고나서 영탄도 곧 아차싶은 얼굴로 어색하게 웃었다. 그리고 자신이 그정도로 절도를 못 지킨게 마치 못된 짓에 빠진양 억울해서 주섬주섬 자신의 품위를 주워담으려 들었다. 그러나 억울하단 생각때문에 쉽게 품위 있어지지는 않았다.

『실토해줘서 고마와요. 언니한테 내가 그렇게짐이 되는 줄 몰랐지 뭐유?』

수지는 여유있게 수작을걸었다.

『짐이 되긴요?』

『고맙다는 밖에요. 언니가 실토안해줬으면 나 아직도 시집 가는 일 망설였을거에요. 그 집이 아무리 돈 있는척해도 난 내자신이 아까운 걸 크게 밑지는 것처럼, 그렇지만 언니 말 듣고보니 않으론 그런 오기가 훨씬 덜 할것같아요. 군더더기 식구가 오기부려봤댔자지 뭐. 언니, 이런 걸 소위 정 든다는 건가?』

『고모, 남의 속도 모르고 고깝게만 듣지 말아요. 여지껏 길러내다시피한 내공을 생각해서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녜요. 내가 시집살이 했다는 건 고모가 나한테 힘들게 했단 소리가 아니라, 오빠가 너무 고모만 싸고 돌아서 힘들었단 소리예요. 남자가 너무 효자면 그 아내가 힘든다고들 하잖아요? 오빠는 조실부모한 대신 하나밖에 없는 누이한테 극진하단 소린 들어왔지만 서친와보니 소문 이상이었어요. 첫날밤에 한 소리도 앓으로 내가 자기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누이동생한테 잘하고 못하고에 달렸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으니까요. 그런 말이 신부에게 얼마나 모욕적인지는 아마 당해보지 않고는 모를 걸요』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 3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한국관

기계로 뽑는
냉면·짬뽕·짜장면
해장국·곰탕 전문

628 Bloor St. W. ☎ : 531-0277

Family Product Distributor

도매상과 값을 비교해 보십시요.
저렴한 가격으로 무료 배달($60이상일경우)
합니다.

취급품목
Paper towels, 화장지, Detergent,
각종 Soap, 세탁비누, Pampers,
종이봉지(Paper bag)

87 Green Lane, Unit 10 Thornhill
주문☎ : 889-9757

MR. CHOI'S
RESTAURANT

주중 :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 12시~밤1시
토 : 4시반~11시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 759-8512
최 영 호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 매혹의 가수 배성 특별출연 ★★
◎7, 8월 여름휴가중 영업시간
월~목 : 오후2시~새벽2시
금 :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0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海城酒家
SEA CASTLE RESTAURANT
— 해성주가 —(구 : Sea King)

한국인 고객여러분, 과거 Sea King레스토랑이 장소를 옮겨 다시 Open했읍니다. 옛정을 잊지마시고 다시 찾아주십시오.

◇순수 중국광동식 음식 ◇일류 요리사들만 채용.
◇특히 해산물 전문. ◇1주내로 술허가 나올예정.

◎ 매일 OPEN(일요일포함) 오전10시~새벽3시까지

591 Gerrad St. E. (제랄드×브로드뷰)
새빌딩 Unit B1, B2, B3 (아래층지하실)
☎ 465-8272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INCOME TAX Service
*개인 세무및 보고서 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ST. W.(한국관 건너편)
☎ (B: 533-7573. (R) 699-3591 최 태 권

週刊한국

블루어 하드웨어
Benjamin Moore PAINTS
전기제품 일절
가정용, 공업용 TOOL.
재료일절
판매수리
변 의 섭
주소 : 608 BLOOR ST. W
전화 : 531-6183

안의섭 時事칼럼

우리 주장은 여기다/ 여기—

日本 교과서는 이렇게 만들어진다—

편지속 귀중품 없어지면 전액 배상

체신부 세계 100개국과 保險書狀제도 신설

보험서장 이용하면 싼경비로 안전보장

보험의 건당 최고 한도액은 2백71만원

보험가액이 54만2천원일때 보험료 3천원… 船便이나 航空便 같아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세계 1백개 나라와 보험서장(保險書狀)제도를 신설、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이 제도는 편지속에 유가증권·귀금속등 귀중품을넣어 발송하고 만약 운송및 배달과정에서 내용물이 분실 또는 손상될 경우、체신부가 손해액 전액을 배상해주는 아주 편리한 제도이다。

보험서장제도는 통상우편과 특별히 다른 별개의 제도가 아니다。일반서장 내지 통상우편의 특수취급(등기등)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단지 보험서장의 발송내용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포장조건·요금·발송및 배달절차·손해배상등에 있어 일반통상우편보다 신중을 기해 취급하는것이 특색이다。

그 이외의 취급절차는 국내및 국제통상우편물 취급절차와 다를것이 없다。

보험서장으로 발송할수 있는 물건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은행권·수표·지참인불 증서등 은행에서 소지인에게 현금으로 교환될수 있는 증서、그리고 주화등 유가증권。

또 우표·복권·기차표등 금전적 가치를 인정할수 있는 문서 또는 서류。

금·백금·은(제품포함)등 귀금속과 보석류(원석 또는 가공품)。

그리고 고급시계·고급만년필·네타이핀·고급장신구등 귀중품은 보험서장으로 취급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물건들은 국제등기우편이나 국제소포로 취급할수도 있다。

그러나 등기나 소포로 발송할 경우、여러가지 문젯점이 있다。

고액의 유가증권이나 중요한 서류를 국제등기로 부쳤다가 분실했을 경우、보상 받을 길이 없다。

등기의 경우、우리돈으로 1만5천원 정도의 범위안에서만 배상을 받을수 있게 되어 있다。

소포의 경우도 그렇다。만국우편연합(UPU)규정에 의하면 국제소포의 경우 1kg을 최소단위로 하고 있다。

콩알만한 귀금속 한 개를 발송하기 위해 큰 상자를 마련하는것도 우스운 일。그렇다고 성냥갑만하게 포장할수도 없는 노릇。분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국제보험소포로 귀중품을 탁송하면 분실 우려가 큰것은 아니지만 규격등 잡다한 문제점이 있는 경여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한 것이 바로 보험 서장제도이다。

한 예를 든다면— 외국에서 손자가 탄생했을 경우、백일이나 돌기념 반지를 보낼때 이 보험서장을 이용하면 싼 경비로 안전하게 보낼수가 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아들 딸이 부모의 생신기념으로 귀금속류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국제보험서장을 취급하고 있는 세계 1백개국을 대상으로 보험서장을 취급하고 있다。

국제보험서장제도는 81년7월1일 이전까지는 UPU의 보험서약 약정에 따라 그 가입및 시행여부가 각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다。

그러나 각국의 국내법체계·안전대책·통관업무·외환관리법·손해배상·취급직원 확보문제등 까다로운 점이 많아 시행하는 나라가 늘지 않았다。

그래서 UPU는 이 제도를 연합의 강제조약인 협약에 규정했다。

그러나 아직까진 UPU 1백64개국중 1백개국만이 이를 시행하고 있다。나머지 나라엔 준비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

보험서장으로 취급하는 보험의 건당 최고한도액은 1만 금프랑(2백71만원)으로 되어 있다。

만약 상대국이 1만 금프랑 이상 취급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최고한도액 범위내에서 취급하고、상대국이 1만 금프랑 이하의 한도액일 경우 그 금액범위내에서 취급한다。

보험서장의 요금은 선편일 경우、선편서장요금에 등기료 8백원과 통관회부료 8백원에 보험료를 내면 된다。

항공편일 때도 항공서장요금에 등기료 8백원、통관회부료8백원과 보험료를 내면 된다。

보험료는 보험가액을 2백 금프랑(5만4천2백원)으로 나눠 2백 금프랑이 초과할 때마다 3백원씩 가산하면 된다。

예를 들어 보험가액이 54만2천원일때 보험료는 3천원、보험가액이 5백42만원일 때는 3만원이다。

보험료는 선편이나 항공편이나 동일하다。

보험가액은 발송인이 선고한다。보험가액을 실제가치보다 높게 신고할 경우、그 나라 국내법 규정에 따라 보험사기로 취급된다。

발송할 내용품은 우체국 창구에서 본인·우체국직원·세관원등 3자 입회 아래 봉함하게 된다。

보험서장으로 아무 물건이나 보낼수 있는 것은 아니다。

UPU조약상 공통금제품목이 있고、각국의 수입금제품목、단 우리나라의 금제품목은 안된다。

조약상 금제품목은 내용품 또는 포장의 성질로 인해 종사원을 다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부패성 물질、다른물질에 오염 또는 우편장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은 안된다。

아편·모르핀·코카인、기타 마취성 약품등 마약종류도 안된다。

산 동물、폭발물·자연성·유독성 위험물질도 안되고 외설및 사회정의에 위배되는 물건도 안된다。

보험서장으로 물건을 보낼 경우 사고가 생길때 배상받을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보험서장의 우편처리를 워낙 신중히 하기 때문에 일단 안심해도 좋겠다。

물품의 ,발송에서부터 배달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안전을 기하고 있다。

우편국 직원들도 보험서장의 물품을 신주 모시듯 다룬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통상우편의 경우、UPU회원 1백64개국중 북한을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와 가능하다。

그러나 소련·중공등 일부 공산권과는 소포우편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우리나라에서 발송한 경우 되돌아오는 사례가 많다는것。우정청끼리 경비정산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 한다。

보험서장의 경우、세계 선진국을 비롯한 1백여개국어서행하고 있지만、우리나라와 우편량이 많은 미국·사우디등어 이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물건을 보험서장으로 부칠수가 없다。

케나다·호주도 이 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국내 보험서장 취급 우체국은 서울국제·부산국제·인천·대전·군산·이리공단·광주·제주·대구·마산우체국등 10개소이다。

◇국제보험서장제도의 실시로 유가증권 귀금속등을 간단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외국에 보낼수 있게 됐다。

토막뉴스

수취인의 통관입회 없어져 편리
1일부터 국제소포우편물 일방통관제 실시

체신부는 서울지역에 도착되는 국제 소포우편물에 대해 실시해 오던 입회 통관제도를 8월1일부터 일방 통관제도로 바꾸었다。

일방 통관제도는 과세대상이 되는 우편물의 내용물 검사와 관세등 부과업무를 전행하는 우편물 통관현장에 우편물 수취인의 입회 없이 세관직원과 우체국 직원이 통관검사를 진행하는 제도로서 대부분의 나라가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지난 80년8월부터 서울·부산을 제외한 전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했었고、81년2월 부산에 이어 이번에 서울까지 확대한것이다。

일방 통관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서울지역 주민들도 복잡한 절차를 밟지 않게 되었고、우체국도 통관업무를 신속히 할수 있게 됐다。

즉 수취인들은 통관입회 때문에 우체국 창구에서 오랜시간 차례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고、우편물 수령에 필요한 구비서류·관세및 통관료등을 사전에 준비하여 편리하게 수령할수 있게 됐다。

또 수취인의 통관입회가 생략됨에 따라 통관업무가 빨라져 종전보다 2일정도 빨리 우편물을 받아볼수 있게됐다。

국제우편물 통관 우체국은 서울국제·부산국제·대구·마산·대전·인천 군산·이리 공단·광주·제주우체국등 10개소이다。

한국관

회의실 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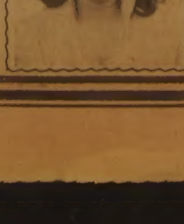
각종 중국요리는 : 진타이 (일식전문 요리사)
짬뽕, 짜장면은 : 정인기 (중식전문 요리사)
해장국, 곰탕은 : 김옥수 (한식전문 요리사)

자신을 갖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기계로 뽑는 진짜 냉면은 역시 한국관!!

628 BLOOR ST. W. ☎ 536-0290

대표 나 옥 녀



山寺서 극기 인내를 배운다

불교大學生 여름수련회 참관기

대학생들이 전국각처의 산사(山寺)에서 자기 단련에 힘을 쏟고 있다。전남순천의 송광사、밀양 표충사、정읍 내장사등이 불교학생회 수련회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사찰。불교의 깊은 이치와 철학을 터득한다는 외에도 극기와 인내를 배운다는 더 큰 의미를 지닌 행사다。정주 내장산 깊은 산속 내장사에서 자기 수련에 한창인 서울교대 불교학생회 수련현장을 찾았다。

◇아침예불시간。수련기간중 3천배를 완성하기 위하여 이들은 아침예불에만도 3백24배를 올린다。

경건한 참선·求道자세 익혀

새벽세시반。달도 안보이는 어둠속에서 이방저방에 불이 켜지기 시작한다。단잠에서 깨어난 학생들이 정열을 흐르는 개울물에 세수하러 나갈때쯤이면 천수경독경소리가 들린다。

「도량석을 돈다」고 표현된다。아직 단잠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학생들은 어둠을 뚫고 청랑하게 퍼지는 천수경독경에 정신을 가다듬고 아침예불에 참석하기 위해 준비를 서두른다。

새벽4시면 어김없이 예불이 시작된다。산사를 둘러싼 주위의 산들이 거무스름하게 윤곽만 드러낸 시간。대웅전 불단위에 서너개의 촛불이 밝혀진 속에서 젊은 남녀학생들의 예불문독송이 절 앞마당에 울려퍼진다。

그들 모두가 불교도들인것은 아닌데도 반야심경을 독송하는 표정이나 3백24배를 올리는 자세에 경건하지 않은 구석은 없다。

그들의 숙연한 자세가 진실로 석가의、자비를 구해서인지、온 중생의 복락을 거원해서인지、혹은 불교의 깊은 이치를 깨닫고자 해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수련회에 임하는 그들의 자세에서 진지한 구도의 자세를 부정할 순 없다。

서울교대의 경우 이번 수련기간중 3천배를 완성하기 위해 아침예불시간에 3백24배, 저녁예불시간에 5백40배씩을 올리고 있다。말이 3천배이지 초보자에겐 1백8배(백팔염주를 한바퀴 돌리는 분량)도 힘에 겨운 운동량이다。

예불이 끝나면 5시반부터 1시간여에 걸쳐 참선을 한다。참선 역시 숙련자가 아닌 경우 견디기 힘든 고역이다。

아침공양(식사)은 참선이 끝난 6시반께 시작된다。이들의 경우엔 공양 역시 단순히 먹는 행위는 아니다。일종의 예식이고 자기 수련의 과정이다。

공양의 순서는 식사가 끝난후 자기식기를 씻을 천수물돌리기로부터 시작된다。배식에 앞서 소심경(小心經)독경이 있다。독경이 끝난후 바리(식기)를 펴고 10여단계에 걸친 식사를 시작한다。찬은 콩나물 무침과 단무지, 김치가 고작이다。

이때 음식을 남길 수 없다。숭늉을 부어 깨끗이 씻어 먹어야한다。공양중에 독송하는 회발게(回鉢偈)의 일절을 보면 이런 원칙들을 이해할 수 있다。

<여래옹라기인 바리를 어재 받아서 .며니 원컨대 일체 중생이 함께 삼륜이 공적하지이다。>

그런가하면 또 이런 구절도 있다。

<아래로 모든 중생에게까지 차별없이 배풀어 모두다 배불리 만족하여져서…공덕으로 이룩된 음식을 받계됨이여, 나의 덕행이 여공양을 받을만한 것인가。>

◇수련학생들에겐 공양시간 역시 수련의 한 과정이다。식사의 즐거움보다는 참선의 연장으로 느끼게 한다。

식사가 끝난후 설겆이와 경내청소를 위한 시간이 있다。여 울력시간엔 남녀를 불문하고 걸레와 빗자루・행주를 들고 설겆이와 청소를 도맡아한다。

아침8시부턴 스님의 강의를 듣는 법문시간이 있다。질푸른 녹음에 둘러싸인 정자에서 맑은 공기와 새소리를 들어가며 선승의 심오한 불교철학강의에 취하는 시간이다。그런데 이때 자칫하면 명강보다는 졸음에 취하기 쉽다。새벽3시에 일어난데다가 적당한 음식과 운동까지 끝낸뒤니 더어상 말할나위없다。

어렇게 법문과 참선과 예불과 공양・울력으로 이어져는 하루는 밤9시 저녁예불여 끝나는 서간으로 막음한다。

4박5일의 수련기간。하루하루가 어련식으로 이어진다。타인과 마주보고 얘기하고 부닷치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과 싸우고 대화하며 지내는 셈이다。굳이 참선시간이 아니라도 절을 올리는 동작사이사이에도 수련생은 자신과의 대화를 계속한다。절을 수백배 올리다보면 다리의 힘이 빠져 옆으로 구르는 학생도 있다。

그런 경우「정신력이 약해서」라고 몰아붙인다。즉、대학생들어 여름방학의 황금같은 시간을 바쳐 수련을 하는 어유는 바로 자신과의 일전을 치르기 위한 것이다。

이번 서울교대 내장산수련회에 참가한 인원은 모두 15명。학교졸업생이 6명이고 재학생이 9명이다。졸업생이 6명이나 된다는 사실은 그처럼 피눈물나게 고된 작업이면서도「자기자신과의 일전」이란 젊은이들에게 무척 매력적인 일이며 또 이런 계기는, 대학이란 테두리내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새벽3시반 천수경 독경에 정신 가다듬고

저녁 예불 5백40拜올리다 쓰러진 學生도

서울교대 불교학생회장 金讚泳군(22・사회교육과2년)은 『처음엔 불교라는 종교자체에대한 관심으로 학생회에 가입했고 활동해왔지요。이제와서 돌이켜보면 실상 불교수련회란 자기단련의 의의가 더 큰 겁니다』라고 수련회자체가 대학생들의 심신단련장이 되는것 같다고 한다。

이들팀의 지도교수인 서울교대 수학과 吳炳承교수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 점이 더욱 분명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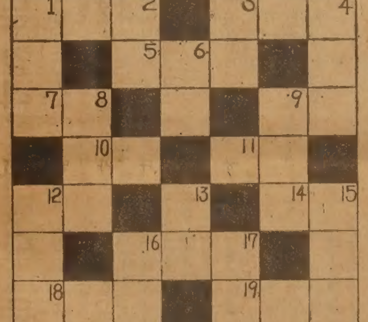
『요즘 젊은이들은 예분들과 달라 자신의 욕구를 자제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모릅니다。예를 들어 우리때만해도 장난감이 갖고싶으면 내손으로 만들어 놀았지요。그러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겪고 또 내 힘으로 가능한 것과 아닌 것을 분별하는 지혜도 터득했어요。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모든「레디메이드」된 상태에서 자랐습니다。즉 욕구를 지혜롭게 해소하는 방법을 익힐 여지가 없었지요。』

그래서 불교도가 아닌 학생이라도 이런 형태의 수련회에 참가, 자신을 단련하는 기회를 가질 것을 권한다고。

올여름방학기간중 불교수련회를 가지는 것으로 대한불교학생회연합회에 알려진 학교만해도 23개교에 이른다。대부분 송광사・내장사・백양사・화엄사・표충사등 전국 유명사찰에서 4박5일정도의 수련일정을 치르는데 수련회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의 수가 해를 더할수록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內藏寺=金京振기자>

<제17회 퀴즈>



<힌 트>

■가로

1. 양궁 세계최고기록 5개를 수립한 한국의 호프
3. 서울 성북동에 여조전통의 정원을 자랑하는 별장
5. 金一葉스님이 열반한 절
7. 극약을 먹여 살해함
9. 알려 줌
10. 풀이 무성한 숲
11. 전해 내려옴
12. 펌프로 만드는 것
14. 등불을 켜는 그릇
16. 전투할때 쓰는 철모가 아닌 간편한 모자
18. 바다의 끝
19. 지출내용을 명기하지않고 기밀한일에 쓰는 돈

■세로

1. 김장 담글때 쓰는 큼직한 옹기
2. 사면이 육지로 싸이고 물이 괸곳
3. 일이 이루어 짐
4. 인쇄를 하기 위해 초벌의 글을 쓰는 종이
6. 천량을 뽑을 때 인품의 기준으로 삼는것
8. 타고난 흉살을 예방하는것
9. 집이 큰 것을 제일 큰 포유동물에 비유하는 말
12. 야자과에 딸린 가지가 없는 고급 정원수、잎은 둥근 줄기끝에서 모여 나옴
13. 암암리의 다툼
15. 남의 흉내 잘내는동물
16. 전기를 통하는데 도체로 쓰는 금속선
17. 뇌염을 옮기는것

<17회 정답은 13면에>

本社특약

블론디

딘·영作

① "이거 보게, 포커게임을 너무 늦도록 한것 같아"

② "투시에게 아무말 안할거야。살며시 들어가야겠는걸"

③ "잠긴것이 틀림없어…열리지 않는데!"

④ "염려 마…뒷문으로 들어가면 그만이니…"

⑤ "또 만나" "잠깐만 기다려봐!"

⑥ "안전 빗장을 걸어 놓은게 틀림없군"

⑦ "창문으로 넘어가야 겠는걸… 좀 도와줘"

⑧ "좋아, 이제 됐어"

⑨ "허브는 꽤 영리한 친구야"

⑪ "무슨 일이야?"

⑫ "우리집이 아니야!"

컴퓨터 사진식자 서비스안내

● 각종 간행물
● 도서출판
● 신문제작
● 교회주보 등

종전의 사진식자기보다 10배 이상의 능률을 올릴수 있는 컴퓨터사진식자기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를 보다 신속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해 드릴수 있읍니다.

자세한 문의는 533-236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토 한국일보 지사

人間市場

슬픈 세살의 자서전

金洪信 作
崔然石 畵

86

지난 줄거리

황찬은 산에서 내려와 바로 흥신사에 있는 선배에게 달려가 정아영에 얽힌 사연을 들었다. 대다수의 주간지 기자들은 밥값없는 고생을 하며 신문을 만들고 있지만 극소수의 찰거머리가 여자를 농락하고 찰거머리 노릇으로 주간지기자들 전체를 덤테기 씌운다는 사실을 간파한다. 그리고 즉시 정아영을 농락한 치사한 사내에게 쫓아간다.

안방문 쪽을 흘끔흘끔 쳐다보자 사내의 표정에 약간 당황하는 빛이 엿다.

『정아영에 왜 보냈지?』

사내는 거만했다.

『선생이 그 유명한 이가놈이십니까?』

『뭐라구?』

『안방부터 보여주셔죠? 또 어떤 여자를 꾀 빨아먹는지 좀 봅시다.』

『이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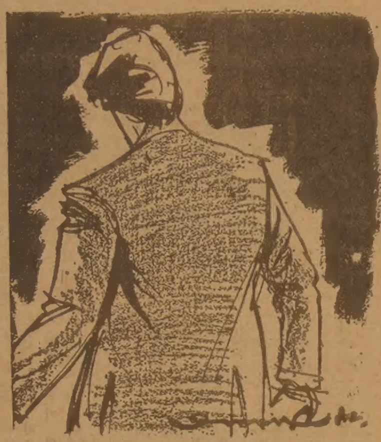
얼굴에 대번에 험상궂어졌다.

『그 꼴통을 보니 지옥에서 외출 나온 마귀같으슈. 좀 점잖아 보슈. 흥분하실 게자양반아.』

나는 성큼성큼 안방문 쪽으로 다가갔다. 사내가 내 등을 우악스럽게 움켜 쥐었다.

『이가야, 죽여달라고 떼 쓰는 게냐?』

돌아서며 사내의 정강이를 걷어 찼다. 사내가 정강이를 잡고 경련여 뛰였다. 안방문을 벌컥 열었다. 마침 에서 떠드는 소리를 들었는지 잔뜩 웅크리고 있는 여자가 큰 눈으로 내를 쳐다보았다. 낯에 설지 않은 여자였다.



사내가 겨우 정신을 차렸는지 안방문쪽으로 걸어왔다. 그의 손엔 옷걸이가 쥐어져 있었다.

『웬 놈이냐? 죽인다.』

사내가 옷걸이를 마구 휘둘렀다. 겁에 질린 병아리 탤런트가 침대시트로 얼굴을 가린채 주저앉았다.

나는 사내의 어깻죽지 밑을 엄지손가락으로 찍었다. 사내가 나뒹굴었다. 숨쉬기가 거북한지 뜨거운 소리를 질렀다.

『이놈, 이가놈아. 정아영이 네말 안듣는다고 주간지에 터뜨려서 어떻게 했냐. 그만큼 가지고 놀았으면, 피 빨아 먹었으면 놔줄 배짱쯤은 있어야지, 이 자식아. 너 몇살 처먹었냐?』

사내는 아직도 숨 쉬기가 거북했든지 엉금엉금 기어다녔다. 나는 재차 사내를 걷어찼다. 사내가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살려줘요. 제발 살려줘요.』

숨 넘어가는 소리로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가려고 했다.

『싹싹 빌어봐라. 손바닥이 불타도록 빌어봐라.』

사내는 시키는대로 손을 비볐다.

『묻는대로 대답해라. 한마디라도 틀리면 숫제 사내구실 못하게 해줄테니까.』

『예, 말씀하세요.』

『몇살 처먹었냐?』

『서른 일곱입니다.』

『소속은?』

『S주간지 사진부 기장입니다.』

『정아영은 어떻게 꼬셨냐?』

이가 미적은 병아리 탤런트가 질려는지 열눈질을 했다.

나는 말없이 녀석의 혈을 눌러 침대 뒤창살에 목을 옭아 붙였다.

『살려줘요. 다신안그러겠읍니다.』

『그럼 바른대로 말해라. 어떻게 꼬셔서 어떻게 떠들었는지 말해라.』

『주간지 표지시켜주고 여성지 표지…시에프 모델 주선해 주겠다고 했죠.』

『저 계집에도 그렇게 말아 먹었냐?』

이가 녀석은 대답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너 이혼했지?』

『예.』

『그리고 정아영 때리고 살 계획였지?』

사내는 내가 묻는대로 다 시인했다.

『그런데 왜 폭로했지? 때리고 살 결심까지 한 자식이 어째서 갑자기 애라 프러듀서한테 농락당한걸 폭로했냐? 그런걸 다 알면서 데리고 살 생각였으면 이해를 해줬어야잖아 임마.』

『버릇을 고치려고….』

『무슨 버릇이냐?』

『몸에 헤퍼요.』

『웃기고 자빠졌네. 네놈은 도덕명어리냐?』

병아리 탤런트가 고개를 돌린채 얼굴을 찡그렸다.

『저 이름이 뭐냐?』

『한 송이라고, 탤렌트입니다.』

『쟨 어떻게 된 거냐?』

『그냥….』

사내는 얼버무렸다. 짐작이 가는 일이었다. 표지 모델과 시에프 모델로 알선해주겠다는 식의 숫법으로 거덜을 내고 있는 셈이었다.

『너, 이리와.』

한송이가 느린 걸음으로 걸어왔다. 나는 따귀를 정신없이 갈겨 주었다.

나는 일격을 가했다… 유기하는 허공에 나딩굴었다

『이년아, 몸으로 해결할 생각말고 다른 탈렌트들처럼 노력할 생각 좀 해라. 너같은 갈보를 보려고 사람들이 텔레비전 보는 게 아니다.』

한송이는 쓰러져서 울고 있었다.

『웰 어떻게 만났냐?』

『저, 거시기….』

『말해!』

나는 복부를 한대 올려쳤다. 공중으로 한바퀴 빙그르 돌며 나가 떨어졌다.

『때리지 마세요. 말할께요. 저 여의도 황마담이 연결해줘서 만났어요.』

『그럴 줄 알았다. 그 예편네는 프러듀서 뿐 아니라 너같은 폭력배 기자를 거느리고 있다는 정평이 나 있으니까 말이다.』

기자의 폭행은 무서운 것이다. 정상적인 기자들은 기사 한줄 가지고도 인권문제를 고심하고 그 기사가 미칠 영향까지도 고려하는 고통을 감수하지만 기자직을 이용해 더러운 짓을 하는 소수의 악발이들은 웬만큼 악독한 깡패보다 사람을 더 죽이는 폭력배인 것이였다.

여자 녀석한테 얻어낸 것은 여의도의 황마담 휘하엔 여러 부류의 찰거머리가 붙어 있다는 확실한 증적였다. 여자 탤런트나 여자가수와 이해관계자 맺어져 있는 프러듀서와 영화감독, 기자와 여성지 관계자, 광고계획회사 실무자와 큰회사 홍보실, 레코드 업계와 여자를 필요로 하는 아멀요정… 수도 없이 많은 업종의 찰거머리들을 거느리고 있는 무서운 여자였다.

더구나 그런 애송이 탤런트나 가수가 필요한 돈많은 사내들과 힘을 빌고 까부는 소수의 사내들과의 끈끈한 연결은 황마담이 큰소리 치게 하는 요인이었다.

『황마담, 지금도 그 장사하냐?』

『네.』

『유기하란 사내 아냐?』

『첨 들어봤는데요.』

『됐다. 너 따라와라.』

『어디로 말입니까?』

『너같은 자식은 버르장머리부터 뜯어 고쳐야돼.』

『다시는 안그러겠읍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겠지. 말이야 그렇게 해야지. 너같은 놈 때문에 멀쩡한 주간지 기자들이 욕 먹었다. 그러니 극소수의 너같은 놈이 있다는걸 밝혀서 덤테기 손질 벗겨야 돼. 네 주동아리로 성명서를 발표하든가 경찰서에 넘겨서 선량한 기자들의 명예를 벗겨야 되겠다. 그리고 이 똥개만도 못한 자식아, 정아영이 실컷 때리고 놀았으면 그만이지, 간다고 하면 따귀나 한대 때려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낼 일이지 치사하게 불알달린 사내가 기자라는 직분을 이용해 파멸시키려고 했지. 동료들한테 소문내고 충동질하고 기사를 그럴듯하게 만들어 배포하는 새끼는 사내새끼가 아니겠지. 그러니 사내새끼 노릇을 못하게 해주는게 도리라고 생각한다.』

『아이고 선생님, 살려주세요. 제발… 다시는 이런짓 않겠읍니다. 정말입니다. 한번만 살려주셔면….』

나는 이자 녀석을 올려붙였다. 팽그르르 돌아 쭉 뻗어 누웠다. 거품을 뿜으며 바둥거렸다. 용서할수 없는 사내였다.

기자라는 직분을 이용해 몸이 헤픈 여자지만 한 인간을 정의감이나 사명감없이 망치려고 한 부분은 도저히 용서할수 없는 부분이었다. 이런 치를 여태 채용하고 있는 주간지나 그 신문사도 이해할수가 없었다. 그만한 사정이야 있겠지만 이 땅에서 가장 비열한 폭력배를 두둔하는 꼴이었다.

『자술서를 쓰겠냐?』

『쓰겠읍니다.』

『지금까지 나한테 한 그대로 쓸 수 있겠냐?』

『용서만 해주신다면 다 쓰겠읍니다.』

이가 녀석은 무릎을 꿇었다.

『한번 써봐라. 첨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말이다. 단 한 귀절이라도 거짓말을 하면 용서없다.』

『예, 알겠읍니다.』

이가는 책상에 앉아 담배를 빼어 물고 떨리는 손으로 자술서를 쓰기 시작했다. 녀석은 어차피 나한테 털어놓은 부분을 제외하곤 거짓말로 쓸게 분명했다.

자술서를 끝낸 녀석을 끌고 나왔다. 우이동 계곡 깊숙한 곳으로 끌고 갔다. 발가벗겨 나무에 묶어버렸다. 계집에는 오돌오돌 떨고 있었다. 어둠 속으로 모기떼가 극성스럽게 덤벼 들었다.

이가 녀석앞에 등산용 전지를 켜두었다. 모기떼가 옷을 입고 있는 내게까지 극성스럽게 달겨 들었다.

『그게 모기밥이란 거다. 네가 찰거머리로 여러 여자를 피 빨아먹온것에 얼마나 치욕한 것이며 얼마나 비열하고 가슴 쥐어뜯게 했는지 계산케 될 것이다.』

나는 한 송이를 끌고 계곡쪽으로 내려왔다. 녀석의 비명 소리와 사람살려라는 처절한 소리가 계속 울부짖고 있었다.

『네번도 저를 [illegible]줄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죽을 죄를 졌읍니다. 다신 그러지 않겠읍니다.』

『명세할래?』

『명세합니다.』

『그럼 조심해서 내려가라. 한번 더 그런 것하다 내 눈에 뜨이면 그땐 끝장난 줄 알아라.』

계집에는 정신없이 뛰어내려갔다. 나는 천천히 이가 녀석이 묶여있는 쪽으로 올라갔다.

녀석은 정말 모기밥이 되어 혼절할 지경이었다. 전지불 빛에 모기들이 수액마리자 달라붙었다. 무방비 상태의 이가 녀석은 애원하며 울었다.

『다시, 여자들 피 빨아먹을래?』

『아닙니다. 맹세합니다.』

『이가놈아, 네가 당한 것보다 불쌍한 여자들이 당한 건 더 아프고 더 죽을 일이었다. 제발 더럽고 치사하게 놀지마라.』

『명심하겠읍니다.』

나는 이가 녀석을 풀어주었다. 녀석은 정신없이 뒹굴며 긁어댔다.

나는 그 밤에 여의도 황마담 아파트로 갔다. 여자 녀석의 능숙한 연계로 문에 열리자마자 나는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때가 묻은 정통권법은 인정하기 어렵잖습니까?

『누구냐?』

발가벗은 계집애들과 처고 놀던 다섯명의 사내들이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알만한 새끼들만 모였군.』

나는 술상을 걷어차고 사내들과 발가벗은 계집애들을 마구 걷어찼다. 전부 쭉 뻗어 누웠다.

『어머, 총각. 정말 죽구 싶어 환장했구나.』

황마담이었다. 그 뒤엔 한 송이와 유기하가 버티고 서있었다. 내 계획대로 한 송이는 황마담에게 쫓아갔고 황마담은 다른 친구들가지곤 안된다는 걸 알고 옆에서 유기하를 부른것 같았다.

『어머, 유기하 선생 오랜만이요. 중국 대가께서 황마담같은 갈보의 뒤나 닦아주는 신세가 가엾어서 또 왔소.』

내가 허리에 힘을 주며 다가섰다. 황마담과 한 송이자 비켜섰다.

『이번엔 다시 못나타나게 하겠소. 살아있고 싶으면 돌아가쇼. 다시 안 나타나겠다는 맹세만 하면 눈을 감아주겠소.』

『차라리 유기하 선생 손에 죽겠소.』

『겨루어서 될 일이 아니오. 지난 번에 당신을 살려보낸 건 당신 재질이 아까와서 그랬소. 죽일 수도 있었소. 무공전법의 전수자라면 무모한 짓은 않을텐데요. 김포 멤치 형께서도 아실 일이어요.』

유기하는 늠름했다. 어디 한군데 빈 틈이 없었다. 표창솜씨는 무공전법을 능가한다는 소문이었다.

『글쎄올시다. 중국의 정통권법을 나도 인정합니다만 때가 묻은 정통권법을 인정하기 어렵잖습니까?』

『때가 붙다니요?』

『황마담같은 찰거머리 뒤나 봐주는게 중국무술의 정통성은 아니잖소.』

『그건 아니지요. 한국무술의 거꿀을 만나려는 내 뜻이니까요. 선생은 지난번에 살아 돌아갔으니 나하고 약속을 지켰어야 했소. 그게 무공권법의 규율은 아니시겠죠.』

『그렇소. 사내가 한번 약속했으면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이번 것은 다릅니다. 황마담이 그런 것을 계속하는 한 상황은 계속됩니다. 지난번 일은 지난번 사건까지만 약속한 걸로 압니다.』

『아뭏든 우리 서로 구차한 말로 시간을 보내지 맙시다.』

『좋지요.』

『장소는 지난번 그 장소로 합시다. 조건도 그때 그대로입니다.』

『갑시다.』

『황마담과 이기자 선생을 데리고 가시죠. 나는 멤치 형과 같이 가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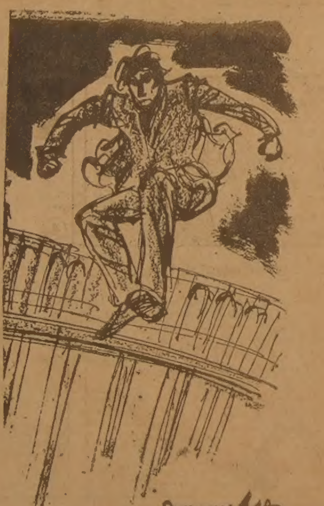
『좋도록 합시다.』

우리는 황마담의 승용차로 지난번 그 지하실로 갔다. 멤치 형이 굳은 표정으로 지하실 옆에 서있었다. 멤치 형은 말없이 유기하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웃었지만 표정이 썩 밝지는 않았다.

지하실로 내려섰다. 황마담과 이기자 녀석이 입구의 계단에 앉았고 멤치 형은 입을 꾹 다문 채 구석자리에 앉았다.

『표창이나 다른 무기를 쓰시겠소?』

유기하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난 유기하 선생을 살려두고 싶소.』

『피차 일반입니다.』

우리는 표창을 빼내어 지하실 입구에 던졌다.

일합. 이합. 삼합. 그렇게 우리는 느리고 숙연한 자세로 엉키었다. 쉽사리 승부가 날 수 없었다. 10여분 동안 겨루어도 유기하의 동작에서 빈 틈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무서운 상대에게 발 빠른 동작만 믿고 덤볐던 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알았다. 멤치형이 손가락을 자를 수밖에 없었던 실력이라고 생각되었다. 15분을 소비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땀 투성이가 되었다. 다시 20분이 넘었다.

얍.

나는 일격을 가했다. 유기하는 허공으로 나뒹굴었다. 시멘트 바닥에 대자로 뻗어누운 유기하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다. 혈이 짚혀서 흐느적거렸다. 나는 혈을 풀어주었다.

『유기하 선생. 무릎을 꿇으시오.』

유기하는 천장을 한번 올려다 보고 무릎을 꿇었다.

『졌소. 내가 졌소.』

처절하게 끓어오르는 목소리였다.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목숨 빚을 갚았소. 약속대로 저 치들은 내가 처리하겠소.』

바로 그때였다. 황마담이 깨지는 소리로 말했다.

『움직이면 죽인다.』

그녀의 손엔 앙칼맞게 생긴 권총이 쥐어져 있었다.

『손들엇! 죽인다.』

나와 멤치 형은 손을 들었다. 방아쇠에 손가락을 힘주어 잡은 황마담의 얼굴엔 냉소가 떠돌았다.

『저놈들을 묶어요. 어서.』

이기자 녀석이 쫓아 내려왔다. 유기하가 손을 들었다.

『약속은 약속이오. 총을 내려요.』

『너도 죽이겠다.』

『죽는건 두렵지 않소.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요. 그러나 이 사람은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난 그것까지 약속한 사람이오.』

『까불고 있네. 다 죽이면 그만이다. 이기자 올라와!』

황마담은 정통으로 겨냥했다. 순간, 유기하가 몸을 날려 구두짝을 날렸다. 황마담이 권총을 놓치고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

『유기하 선생, 고맙소.』

나는 황마담의 목을 움켜쥐고 일어섰다. 유기하가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지하실을 빠져 나갔다. 나는 그뒤에 대고 목례를 했다. 진심으로 아쉬운 이별이었다. 너같은 사내들만 있다면….

한번 무너진 황마담은 걷잡을수없게 비굴한 애원을 했다. 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수가 없었다. 그녀가 토해낸 찰거머리 조직은 너무나 어마어마했다.

두 사람을 엮어 경찰서에 넘겼다. 애원하던 황마담의 태도가 퍽 당당하게 변했다. 황마담은 거칠 것 없이 모든걸 시인했다. 프러듀서와 감독명단, 기자와 관련업계의 명단만해도 타자로 빽빽하게 나왔다.

『이왕 이렇게 된거, 나 혼자 죽진 않겠다.』

황마담이 씨익 웃으며 내게 이렇게 말했다. 소름이 오싹 끼치는 목소리였다. 보통 무서운 여자가 아니었다.

경찰서를 나서자 멤치형이 나를 끌어안고 울었다. 멤치형에게서 그런 진한 눈물을 본 적이 없었다.

『하나님 어째야 옳습니까? 이 세상이 어째서 이렇게 찰거머리 천지는 겁니까? 당신은 무얼 했읍니까. 도대체 당신도 눈이 멀고 귀가 먹으셨나요? 눈 좀 뜨세요! 귀 좀 여세요! 사람들 좀 살고 봅시다. 그 좀 비겁하쇼.』

〈다음호에 계속〉

移民과 여행자를 위한 생활英語

민 병 철
【美 시카고 영어연구원장】

WHAT DO YOU DO FOR RELAXATION?

한국에 있을때 미국에 가있는 친구에게서 편지가 오는것을 보면 미국생활이 몹시 바쁘다고 항상 써왔으나 그때마다 실감이 나지않았다。그러나 실제 와보니 누구나 공룡으로 느끼듯이 정말 눈코뜰 사이없이 바쁘게 돌아간다。

이렇게 바쁜 생활일수록 주말이나 시간나는때가 간절해지는데 그래서인지 미국인과 부담없이 여가선용에 대해 자주 대화를 나누게된다。

「여가를 어떻게 보내세요?」 What do you do for relaxation? 이때 유의할것은 전치사 for를 사용한다는 점이다。또는 How do you spend your leisure time?이라고도 하나 이때 leisure의 발음을 미국식 발음인 경우에는 「레저」가 아니고「리주어」라고 발음하여야 한다。

A : What do you do for relaxation?
B : I read or listen to music.
A : What type of music do you like?
B : I enjoy classical and semi-classical music.
A : How about going to the park concert with me tonight?
B : Great. Where shall I meet you?
A : 여가를 어떻게 보내세요?
B : 독서나 음악 감상을 합니다.
A : 무슨 음악을 좋아하세요?
B : 클래식과 세미 클래식을 좋아합니다.
A : 오늘밤 저하고 연주회에 가시지 않겠어요?
B : 좋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A : How do you spend your leisure time?
B : I either read or watch TV.
A : What's your favorite TV program?
B : I like to watch The Waltons.
A : How often do you watch TV?
B : Quite often.
A : 여가를 어떻게 선용 하세요?
B : 독서를 하거나 TV를 시청하죠.
A : 제일 좋아하는 TV프로가 무엇입니까?
B : 「월턴스」를 좋아 합니다.
A : 얼마나 자주 TV를 보세요?
B : 꽤 자주 봅니다.
A : What do you do in your spare time?
B : In the summer I go hiking and in the winter I ski.
A : Where do you usually ski?
B : There are several good locations not far from Chicago.
A : Do you mind if I come along sometime?
B : No, not at all. Glad to have you.
A : 여가에는 무엇을 하세요?
B : 여름엔 하이킹을 하고 겨울엔 스키를 타죠.
A : 대개 어디에서 스키를 타세요?
B : 시카고에서 멀지 않은 곳에 좋은곳이 여러군데 있읍니다.
A : 언제 제가 동행해도 괜찮으시겠읍니까?
B : 물론이죠. 기꺼이 모시겠읍니다

relaxation : 동사 relax 진정하다의 명사형으로 긴장을 풂, 휴양, 오락.
park concert : 공원 연주회。
leisure : 틈, 여가。
favorite : 좋아하는。
spare : 한가한, 여분의。
come along : 함께 오다。

NOTE

우리는 때때로 남의생활에 너무 관심을 표명하는 사람들을 대하게 된다。「결혼했느냐?」 Are you married? 「언제했느냐?」 When were you married? 「부인은 몇살인가?」 How old is she?「애들은 몇이나 있는가?」 How many kids do you have? 흡사 호구조사를 하는것과같다。친하지 않는 사이에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미국인들에게 이런사생활에 관한 것은 화제에 올리지않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때때로 「남의 일에 참견마시오」 None of your business. 라는 핀잔을 들을수도 있으니까。그러나 가까운 사이가 되면 가능하리라。이때 Did you tire?가 아니고 Are you tired?이다。

A : Are you married?
B : No, I'm not.
A :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B : Yes, I have two older brothers.
A : Are they in America?
B : No, but they plan to join me next year.
A : Are you married or single?
B : I'm married.
A : Do you have any children?
B : Yes, I have two sons.
A : Where are they now?
B : They're with me.
A : 결혼하셨읍니까?
B : 아니오。안했읍니다。
A : 형제자매가 있으신지요?
B : 네。형님이 두분 계십니다。
A : 두 분 다 미국에 계신가요?
B : 안계십니다만 내년에는 두분다 미국에 오실겁니다。
A : 결혼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미혼인가요?
B : 결혼했읍니다。
A : 자녀분은 있으세요?
B : 네。아들이 둘 있읍니다。
A : 자녀분들은 어디있나요?
B : 저와함께 있읍니다。

구입처 :
B. C. MIN
7037 BECKWITH
MORTON GROVE,
ILL. 60053
U. S. A.
전화 : (312) 966-4050
책 : 제1권(12불), 제2권(12불), 제3권(12불)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頂上의 신문 한국일보

한국일보 事件기자 수첩

신문에 안난 現場

일가족이 아파트를 비우고 피서를 간 사이에 몽땅털이를 해간 「바캉스 절도」, 친구집에 복면을 하고 흉기를 들고 침입해 피서비용을 강탈해 간「바캉스 강도」등 계절사건이 적지 않다. 釜山에선 백사장 모래속에 옷과 시계·돈등을 파묻고 수영을 즐기던 남녀가 묻었던 장소를 못 찾아 수영복 차림으로 귀가했고, 서울에선 프로복싱 전챔피언 柳濟斗씨가 장모를 때려 코뼈를 부러뜨렸다. 더위탓인지 제 정신들이 아닌것 같다. 자기집 우물에서 익사한 가장(家長)이 있는가 하면, 밥짓던 주부가 풍로불이 앞치마에 옮겨붙어 타 죽기도. 이번주 「기자수첩」은 여름 한복판을 종횡으로 누벼봤다.

극성 바캉스 절도 "빈집을 노린다"

■피서지 폭리·폭력

▲해수욕을 즐기려는 피서객들이 늘어나자 束草등 동해안에서는 택시의 바가지요금과 폭력이 고개를 들고 있다.

束草·襄陽·高城지방에서 운행중인 1백여대의 택시들은 미터기요금을 무시하고 바가지요금을 받고있는데 束草~雪嶽山은 미터계로 1천8백50원이 나오는 거리를 2천5백원, 束草~襄陽은 미터기요금 2천5백원거리를 3~4천원, 束草~巨津은 미터기요금 4천7백원을 7~8천원을 받아 폭리를 일삼고 있다.

이들 택시들은 승객들이 항의하면 『돌아올때는 빈차이기때문』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고.

또 洛山, 송지호등 각해수욕장의 경우 최근 1주일 사이에 피서객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10대폭력범 4명이 구속되고 즉심에 넘겨지는등 피서지 연상을 흐려놓고 있다.

지난달 19일 하오6시께 양양군강현면전진리 낙산해수욕장 A지구에서 李모군(19·속초시청학동)이 사소한 시비끝에 피서온 吳生鉉씨(23)를 깨진 병으로 찔러 2주의 상해를 입혀 구속됐고, 18일새벽2시께 고성군죽왕면오호리 송지호해수욕장에서는 10대들이 쇠파이프와 각목을 들고 집단편싸움을 벌여 權모(19)·安모(19)·咸모(18)등 3명이 구속되는등 해수욕장 폭력이 날뛰고 있다.

▲서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17일 프로복싱 전주니어미들급챔피언 柳濟斗씨(35·서울시마포구현석동108의38)를 존속폭행혐의로 입건했다.

柳씨는 지난16일밤10시께 서울시성동구성수동2가 처남집에 찾아가 『아내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다 장인 韓모씨(58)가 『이혼시키겠다』며 꾸짖자 갖고있던 칼로 위협하고 주먹을 휘둘러 옆에서 말리던 장모의 코뼈를 부러뜨렸다는것.

柳씨는 10일전 부인 韓모씨와 말다툼끝에 부인을 발로 걷어차 부인이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후 집에 돌아오지 않자 이날 처가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것.

■칭찬구실로 뽀뽀남발

▲서울시교육위원회는 지난18일 서울모국민교 5년 담임 K모교사(46)를 교사 부적격자로 파면 조치했다.

시교위에 따르면 K교사는 지난3월부터 평소 수업시간중 자기반 남녀학생들의 숙제검사를 하면서 칭찬을 구실로 남학생은 물론 여학생들에게 까지 입을 맞추는등 변태행위를 일삼아 학생들에게 혐오감을 주어 왔다는 것.

K교사는 또 수업시간도중 학생들 사이를 지나다니며 여학생들의 몸을 만지는 못된짓을 하다가 20여명의 학생들이 학교측에 알려 조치되었다는것.

〈그림·權大雄〉

▲해수욕장에서 탈의장 사용료를 아끼려고 백사장에 돈·옷·소지품을 묻었다가 묻은장소를 찾지못해 소지품을 몽땅 잃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며칠전 신혼여행길에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 들렀던 金모씨(27)부부는 수영을 하기위해 손목시계2개, 현금2만5천원, 주민등록증등을 모래바닥에 묻었는데 끝내 찾지못하자 수영복차림으로 귀가했다는것.

이같이 소지품을 백사장에 묻었다가 잃어버린 예는 해운대 해수욕장 개장이래 모두 29건을 기록했다고.

▲자기 건물앞 노점상들에게 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쫓겠다고 위협, 8백70만원을 뜯어낸 서울시구로구공로4동739 구로시장안 대원빌딩주인 李原商씨(43·영등포구신길3동315의61)가 지난달 27일 구로경찰서에 의해 공갈혐의로 구속됐다.

친구집에 복면하고 들어가 피서비용 강탈
모래속에 묻었던 옷·시계·돈 못찾아 수영복차림 歸家 남녀

李씨는 자기건물앞에서 청과물 노점상을 하는 金東興씨(45·구로구구로2동760의152)에게 지난해 8월 『보증금을 내지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 1백70만원을 받아낸 것을 비롯, 모두 7명의 노점상으로부터 8백70만원을 받아냈다는것.

金씨등이 노점을 벌인 지역은 李씨소유건물앞 폭4m의 소방도로였다.

■女高동창생 이민사기

▲서울관악경찰서는 지난달 26일 K고교동창생인 친구를 미국으로 이민시켜 주겠다고 속여 2백60만원을 가로챈 李陽子씨(여·42·경기 성남서궁내동284의1)를 사기혐의로 구속.

李여인은 지난1월 서울 세종로2가 K다방에서 동창생인 任淑姬씨(여·45·다방업)를 우연히 만나 『남편이 미국에 가 있고 나도 곧 떠나게 된다』며 미국이민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2백만원을 받은뒤 지난4월20일에는 여권이 나왔다며 다시 60만원을 받아냈다는것.

곧 미국으로 가게될 줄 안 任여인은 결과 다방까지 싸게 팔뒤 가재도구까지 처분하고 기다렸는데 李여인은 이도 아랑곳 없이 지난6월에 미국에 가서 한달이상 뱃심좋게 관광여행만 즐기고 7월초에 돌아왔다는것.

▲서울 청량리 경찰서는 지난달 26일 邊永大씨(22·주거부정)를 절도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邊씨는 22일상오11시께 청량리역 대합실에서 열차표를 사려고 줄을 섰던 李淑子씨(38·서울마포구도화동176의3)의 쇼핑백에서 현금38만원과 수표등 58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 달아나다가 덩좋은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邊씨는, 李여인이 『도둑이야』 소리치자 이를 듣고 달려온 순찰경찰관의 추격에 쫓기다 급한 나머지 범행현장에서 5백m 떨어진 정한빌딩지하실 정화조속으로 숨어들어가 1시간동안 버텼다. 기다리다 못한 경찰은 결국 정복을 벗고 악취가 진동하는 정화조속으로 들어가 邊씨를 끌어내 수갑을 채웠던 것.

한국일보 事件기자 수첩

더위탓인지… 柳濟斗가 장모때려 코뼈 부러뜨리고
자기집 우물에서 익사한 家長도…

▲서울 영등포구여의도동1의159 미성아파트C동607호 金光男씨(45·상업)가 집을 비워놓고 피서를 간사이 약속어음 1억5천만원과 현금50만원, 귀금속 1백만원어치의 금품을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金씨에 따르면 지난달 20일아침 가족들과 함께 피서를 떠났다가 23일 아침에 돌아와보니 베란다 유리창이 깨져있고 장롱에 들어있던 약속어음과 현금·귀금속등이 없어졌다는것.

金씨는 도난당한 약속어음 전액을 은행에 신고했다고.

▲서울종암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캠핑비용을 마련하려고 친구집에 들어가 돈을 강탈한 朴모군(19·도봉구수유동)을 특수강도혐의로 구속.

朴군은 22일새벽1시반께 친구 任모군(20)집에 복면을 하고 들어가 안방에서 잠자던 任군의 할머니 金順任씨(65)와 동생 성례양(19)을 흉기로 위협, 옷장속에 가둔후 현금 4만1천원을 털어 달아났다가 성례양이 오빠친구인 朴군의 목소리를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 붙잡힌것이다.

지난해 Y공전1년을 중퇴한 朴군은 캠핑갈 비용을 마련하려고 가까운 친구인 任군부모가 가게일로 집을 자주 비운다는것을 알고 任군집을 택해 범행했다는것.

■車훔쳐타고 연쇄충돌

▲지난달26일하오4시40분께 서울 성동구옥수동275의3 앞길에서 술에취한 金진옥씨(29·성동구행당동317의564)가 픽업트럭을 훔쳐 달아나다 가옥2채를 대파시키고 택시승객4명에게 중상을 입힌후 차가 전복되는 바람에 경찰에 잡혔다.

金씨는 어날 성동구용봉동222 신성주차장에서 李榮秀씨(29) 소유의 용달차를 훔쳐타고 달아나다 성동구옥수동275 복음전파사(주연 정해운·34)를 들이받아 가게를 반파시킨뒤 7백m쯤을 그대로 달리다 길에 세워둔 서울7라1393호 픽업트럭(운전사 金南基·29)을 들이받고 중앙선으로 돌진.

때마침 맞은편에서 오던 정의운수소속 서울4파6254호 포니택시와 충돌 택시승객 유덕이씨(56·여·성동구행당1동300)열가 4명에게 전치3주의 상처를 입혔다.

金씨는 연쇄충돌사고를 내고도 1㎞어상을 지그재그으로 달아나다 중구신당3동373의13앞 경사길에서 3m아래 崔석관씨(61·상업)의 한옥 지붕위로 차와 함께 굴러떨어져 가옥을 반파시킨뒤 경찰에 잡혔다.

▲지난달 26일새벽1시께 서울중구광희동2가288 金珠洙씨(34·서적외판원)가 깊이 13m의 자기집 우물(직경46㎝, 지상높이64㎝)에 빠져 숨졌다.

부인 金英子씨(32)에 따르면 남편金씨는 이날 새벽술에취해 집에 돌아왔는데 방안에서 아기를 보고있는사이 바깥 우물쪽에서 풍덩! 하는 소리가 나 달려가보니 남편 金씨가 우물옆에 바지를 벗어놓은채 우물에 빠져 허위적대고 있더라는 것.

밥짓던 주부가 곤로불치마에 붙어 燒死
한국민교 선생은 꼬마들에게 키스등 추태로 쫓겨나
자기건물앞서 장사한다고 돈뜯다 쇠고랑

■한눈파는사이 불이…

▲밥짓던 주부가 앞치마에 석유 풍로불이 옮겨붙어 화상을 입고 숨졌다.

지난달 12일하오7시30분께 서울성동구성수동2가299의127 金順禮씨(46)가 집에서 저녁밥을 준비하다 한눈파는사이 석유풍로불이 나일론 앞치마로 옮겨붙어 중화상을 입었다. 金씨는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열흘뒤인 지난22일하오9시40분께 끝내 숨졌다.

▲지난달 19일하오6시께 전북부안군내면중계리 성문부락 崔炳學씨(62)가 자신의 생일 극약을 마시고자 살했다. 崔씨는 장남(38)·차남(33)등 두아들이 자신과 친척·이웃사람들에게 음식대접할 상을 차리는 문제로 싸움질하는것을 보고 『애비생일 음식 나눠먹는것으로 싸움질을 한다』며 이꼴저꼴 보기싫다고 집안에 있던 농약을 마셨다고.

■현금·비행기표잃고泣訴

▲국제 결혼한 뒤 외국인 남편과 함께 10년만에 고국을 찾은 해외동포가 현금과 비행기표등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잃어버려 울상을 짓고 있다.

金美星씨(여·33·영국거주·부산시서구감천1동294의18)는 지난달 16일 새벽 5시께 부산역에서 가족들과 재회하는 사이 현금 2만마르크(한화·6백30만원 상당)와 서울~런던간 비행기표, 시계, 카메라등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잃어버렸다고.

지난72년 서독파견 간호원으로 취업갔던 金씨는 2년전 영국서 만난 현남편과 결혼한 뒤 함께 모국을 찾아왔다가 이렇게 됐다고 하소연. 오는 8월25일 영국으로 돌아갈 예정인 金씨는 비행기표라도 되돌려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女職員에게 오물세례

▲서울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같은 회사 여직원에게 오물을 뿌리고 행패를 부린 서울종로구관철동14의6 세원사 영업부과장 李滿鎬씨(32)를 폭행혐의로 입건.

李씨는 27일 하오1시께 본사 여자경리사원 文모씨(25)와 금전문제 때문에 몽화하다 서버, 인근주차장화장실에서 10ℓ들이 플래스틱물통에 오물을 담아 본사로 달려가 『너혼자 사장부장 다해먹어라』는등 폭언을 하며 文씨의 온몸에 오물을 뿌리고 주먹질을 했다는것.

경찰에 연행된 李씨는 『文씨가 평소 도서판매 배당금을 놓고 영업부직원들과 자주 다투었다』며, 어날도 불만이 있으면 회사를 그만두라는등 건방진 말을 하기에 혼내주려고 한것이라 진술.

▲춘천지검원주지청은 지난달 23일 국유림에서 1백년생 소나무 32그루를 도벌한 金榮國씨(28·강원평창군진부면송정2리)·尹鐘漢(31·경북경산군경산읍삼북동)등 2명을 산림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모의 관을 미리 준비하게 위해 지난4월부터 6일째 계제 싸어에 국유림어 무성한 강원평창군진부면봉산리 연근 산에 들어가 1백년 수령의 소나무 32그루를 도벌했던것.

父親이 생일맞아 두아들이 음식대접싸고 싸우자 자살
부모의 관 미리준비한다고 百年生소나무 32그루 도벌

경찰은 이들의 효성에는 동정이 가지만 자연보호측면에서 구속했다고.

▲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22일 춤바람난 유부녀의 남편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邊永萬씨(24·부산서남구문현1동63)를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邊씨는 지난21일밤10시께 부산진구부전동 T카바레 앞길에서 유부녀 李모여인(35·부산진구양정동)과 함께 팔짱을 끼고 나오다 李여인의 남편 趙모씨(36)에게 발각돼 멱살을 잡혔다. 그러자 邊씨는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마누라 단속을 못하는 주제에 어딜 까지 와서 왜 우리의 무드를 깨느냐』며 호통치며 손찌검까지해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趙씨는 경찰진술에서 여름철 얼굴 두꺼운 제비족과 놀아난 아내가 원망스럽지만 자식들때문에 헤어질수도 없다며 한숨지었다.

■노동자돈3천만원詐取

▲서울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梁南錫씨(34·전S주택 직업훈련소경비원·서울도봉구쌍문동25의84)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梁씨는 지난3월9일 상오11시께 서울 도봉구미아3동 용다방에서 金相榮씨(33·노동·서울 성북구석관동836의14)에게 사우디에 건축잡부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교제비조로 60만원을 받아 가로챈것을 비롯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주로 서울시내 변두리지역 노동자 85명으로부터 모두 3천35만원을 사취했다는 것이다.

〈정리·姜升遠기자〉

살림의 지혜

젖은 구두 손질

비가 자주 오는 여름철엔 구두가 젖어있기 쉽다. 젖은 구두를 햇볕에 말리거나 불에 쬐어 말리거나하면 가죽이 빳빳해져 쉬 헤지게 된다.

이럴땐 칫솔이나 우산살 같은 것으로 흙을 깨끗이 긁어낸후 신문지나 헌 솜뭉치를 많이 넣어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말린다. 바싹 마르기 전에 구두약을 발라 주어야 가죽이 트지 않고 수명도 길어진다.

겨드랑이 냄새제거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엔 유난히 체취가 많이 나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날때가 있다.

이럴땐 소다를 조금 물에 풀어 겨드랑이에 발라두면 향수를 바르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다.

먹다 남은 맥주이용

병에 남아있는 먹다남은 맥주는 오래 된것이 아닌경우 전골이나 불고기등의 요리에 조금 넣어 보면 그 맛이 썩 좋아진다.

또 머리를 감고난 다음 물에 조금 타서 헹구면 머리카락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비듬도 없어진다. 또 식기나 유리컵을 닦을 때 사용하면 놀랄정도로 잘 닦아진다.

<삽화·權大雄>

찬장 냄새제거

습기가 많은 여름철엔 음식을 넣어두는 찬장에 습기가 차게되어 좋지 못한 냄새가 배어있기 쉽다.

이럴땐 찬장을 비우고 중성세제로 잘 씻어낸다음 부억용 표백제를 엷게 타서 다시 알콜로 한번 훔치면 냄새가 완전히 없어진다.

이때 찬장문을 잠시 열어주어 바람이 통하도록 한다. 그밖에 찬장문에 그물을 부착, 환기를 시키는 방법과 탈취제를 찬장안에 매달아두는 방법도 있다.

맛있는 냉코피

여름철에 많이 찾는 냉코피를 갑자거 타려면 설탕이 잘 녹지 않아 시간을 끌기 일쑤다.

이럴 때엔 설탕2컵에 물2컵을 붓고 한번 끓여 설탕물을 만들어서 병에 넣어두고 쓰면 설탕이 잘 녹아 아주 편리하다. 설탕 시롭은 냉코피뿐 아니라 미싯가루등 찬물을 이용하는 것은 무엇이든 쓸수가 있다.

양말 악취제거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엔 발이 달아서 양말에 악취가 배게된다.

심한 경우엔 세탁을 해도 여한 냄새가 가시지 않는다. 이럴땐 양말을 세탁하고 붕산수에 담가두었다가 말리면 악취가 신통하게 없어진다. 붕산수의 양은 물1ℓ에 붕산 5찻숟을 녹여서 만들면 된다.

얘기의 샘

책귀신

영국의 조지·프레드릭·리스타는 사나이는 고본(古本) 찾아내는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신기(神技)를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파리의 세느강변의 고본가게에서도 많은 희귀본을 찾아냈었다. 이 사내는 찾고자하는 책가까이에 가면 그책의 환상이 눈앞에 분명히 나타나, 책가게를 온통뒤져보면 과연 그책이 거기에 있는 것이었다.

逆効果

영국의 소설가 서머시트·몸의 처녀작 「람베스의 라이자」가 출판됐을때 그는 일부러 그책을 교회의 우두머리 승려들에게 부쳤다. 그것을 읽어 본 고승(高僧)들은 버럭 화를내며 『이런 지저분한 책은 읽지 말라』고 신자들에게 알렸다. 하지만 이말이 역효과를 내어 사람들이 다투어 이책을 사는 바람에 그 초판은 순식간에 다 팔렸다.

海外걸작漫畵

「딱따…딱따…딱따…」
(自家진단)
"…tsk…tsk…tsk…"

KIM'S ART GALLERY Picture Frame Warehouse
◉각종 유화·서양화
◉사진액자 전문으로 취급
◉동양화·초상화
1286 Weston Rd.
(에그링톤×웨스톤)
(B)243-0233 (R)651-2261 김 석환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트로피·감사패 전문
Golen Craft
◉특수인쇄(Silk Screen Printing)
◉ Engraving
◉간판 취급
(나무·유리·의류·프라스틱등 특수인쇄 전문)
1700 Wilson Ave.
(B)247-8870 (R)242-4319 김 국일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귀금속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R)743-4842 Mr. 마

시설및수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발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서 울 식 품 (동부)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실내장식

"Fine Design"
설계및 허가, 시공
전화 : 622-5328 (공장) 676-1173 조 덕 남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의류수선, 패턴양재, 주문배수
전화 : 530-1046 10a.m.~5p.m 368-7258 6p.m 이후

의류수선 (남녀분 양복·양장 다 취급함)
의자 카바, Zipper 수리등 성의껏 해드립니다.
전화 문의도 환영합니다.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 히팅 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광 고 접 수
533~2361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이삿짐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비들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건학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정영수 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仁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 : 731-4204 (Mr. 신)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226-3874 신 춘봉

자연요법 및 지압치료, 왕진도 함(십 하섭)
요통(허리아프신 분),두통·복통·류마치스·불면증
643A Bloor St.W.(신용조합옆)(B)536-6854 (R)635-8744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경명등 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R)531-4165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 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화 랑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멧상
전화 : 530-4991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회계사무소
33 Cherryhills Rd. Concord. Ont.
전화 : 669-271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8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531-4165(R), 530-0522(B).

한국 CLASSIFIED

THE KOREA TIMES Toronto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Part Time Helper 구함(남자분)
직접 내방 바람.
1370 Queen St, E.

Store Part Time Helper구함
남자분, 스카브로지역
전화 : 267-0847

미싱 자수사 구함 - Juki Z 자수미싱으로 고급테이블, 침대 Cover에 자수하고 있음. piece work 환영함.
700 Wilson Ave, Downsview (Dufferin & Wilson)

파출부 Club 모집
여가를 이용해서 남을 도와 주실수 있는분
선착순 약간명 모집, 상세 상담 매일 6시이후 직접 방문요함. 전화문의 사절.
714 Bloor St, W, 2층 2호실
제일식품 후문 옆집. (Mrs, 한)

경험있는 남자 풀타임 헬퍼 구함.
전화 : 532-6143 (낮)
532-9638 (밤)

여자사무원 구함. 영어와 한국어가 가능하며, 타자칠수 있는분,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근무함.
전화 : 449-8644 황용현부동산

Grocery & Variety Store Manager구함.
주매상 : $5,000, 보증금 : $10,000
매매도 가함. 전화 : 487-5000

Cashier 여자분 구함(주말 Helper 토·일)
Downtown지역.
전화 : 921-0624

Helper (주말: 토요일-6시간, 일요일-9시간)
두사람이 한조가 되어 일해주시면 보다 바람직함.
두사람에게 1주에 $120 지불함. 686-0491(B) 686-0848(R)

가을까지 지렁이 잡으실분.
전화 : 633-5783 Mr, Lee

베비시터

Baby Sitter 구함.(Jane & Finch 지역)
전화 : 665-4612

담배 안피우시는 분으로 입주하셔서 두 어린애 보아주시고 가벼운 가정일 돌봐 주실분. 대우 우대함. 목욕탕, 침실 따로 제공하며 매우 분위기 좋은 가정임. 8월20일부터 필요하며 오후 5시 이후에 연락바람.(416)889-7000(Mr./Mrs. Fenwick)타지방에서 문의하실 분은 Collect Call로 하셔도 됩니다.

광고료 · 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VISA master charge

구혼

결혼상담, 기업소개,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기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전화 : 652-1280 (Mrs, Adroe)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636 Vaughan Rd, #1

개인지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 인 회	755-9288
노 년 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 우 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매매

고급 콘도미니움 급매(Jane & Eglinton)
고층 APT로서 각종 운동시설이 되어 있음.
(옥외 정구장,Sauna,실내 Pool장,각종 오락시설등)
2Bed Rm+Den. 가격: $70,000
(B)534-1085, (R)244-9073(오후6시이후)Mr, Kim

성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주매상: $3,000 렌트: $300(M) 전화: 259-0323

Chemical Suply for the Printing Trade.
Small but Profitable I will Train the People.
251-8312 (9:00 a.m~5:00 p.m)

Variety Store(New Market지역)
아스킹 : $95,000+Stock, 리스 : 2년+5년 Option.
주매상 대단히 양호한편임. 전화 : 883-9335 (Mike)

Store Equipment for Sale
Two Ice Cream Cabinet, One Electronic Scale(1b) & 기타.
전화 : 746-0107, 727-5902

Small Business for Sale+3 Bed Rm.
중심가에 위치한 동전 빨래 세탁소, 1400 Sq.ft.의 넓이며, 살림집이 포함되어 있고, TV, Tower 그리고 커다란 창고도 포함되었으며, 주차장은 앞으로 더 크게 확장할수 있음. Norwood 7 HWY 선상에 있으며 건물은 7년된것이고 Coin Machine은 1년되었음. 낮은 Mortgage(10% Until '87)아스킹 :$70,000 그리고 2nd Mortgage도 원한다면 주인이 잡아줄 예정임.
전화문의 : 1-705-639-2148 (Jack)
서신연락 : Norwood Coin Wash P.O.Box 122 Norwood Ont, K0L 2V0

여자분 혼자서 운영가능한 Mall안에 있는 Variety Store
가정형편상 아주 싼 값에 드립니다. (내방 바람)
1250 South Service Rd, Miss, Ont, (Health Food & Cake)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 $4,800,
리스 : 3년+5년(Neagotiation) 아스킹 : $39,000+스탁
1000 Pape Ave, (관심있으신 분 내방바람)

Mall안에 있는 Convenience Store, 스카브로 지역.
주매상 : $4,000, 앞으로의 발전도 대단히 기대됨.
전 화 : 267-8747 (Tom)

Store Equipment for Sale
One Ice Cream Cabinet, One Electronic Scale (30 Lb.)
& 기타. 전화: 746-0107(오후8시 이후) 1-727-5902

77년도 폰티액 파리지엔 매매.
4만2천마일.
전화 : 751-3723 김.

Variety Store for Sale
주매상: $4,000~$4,500 Extra 수입: $1,000
아스킹: $45,000+Stock 전화 : 1-525-2115(해밀톤 Mr.Kim)

▲Two Door(5ft.) Ice Cream Cooler (중고)
▲8.5 Galon 대형 Slush 퍼피머신(중고)
전화 : 690-2216 (Mr, 최)

Variety Corner Store for Sale
이층 살림집 포함. 주매상 : $4,000
전화 : (1)-529-0018 Mr, Kim (Hamilton)

조그만 가게 급매.
주매상 : $3,500 전화 : 923-9771

Private Sale, 파킹장 구비한 상업지역의 Building 매매, 8 Rooms, 어떤 Business에도 적합한 매우 좋은 조건의 위치임. 전화 : 921-9847 (William)

Building & Snack Bar Business for Sale
Asking: $95,000, Down: $25,000 1st mortgage at 13%, Weekly Turnover : $3,000
(Queen St, W, & East of Dufferin)
Call, Olga Krawec 769-1723
Glen Park Real Estate

1) Fast Take Out 식당 팝니다.
주매상 : $2,000(일요일 쉼) 5년 리스.
렌트 : $350/M.
2) 5 Ft, 대형 Steam Table 팝니다.
23 Helen St, Miss, Ont, 274-7010 (Mr, 유)

구독신청 월~토
☎ : 533-2361

집렌트

4 Bed Rm, House전체를 싸게 세놓음.
Bramalea 부근, $500/M.
전화 : 630-3095

5 일에 $ 13 로
원하시는 것을
찾으실 수 있읍니다.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CEDARBRAE VOLKSWAGEN
666 Markham Rd. Scarboro.
전화 : 438-1900(B), 499-8589(R) 손명철(Michael son)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가구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히소피아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윈치)
전화 : 746-3458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레이몬드미용실 (수잔: 한국인)
◉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변호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비데오 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생일·파티케익등 전문 (배달가능)
534 St.Clair Ave. W. 전화 : 653-1149 Mrs.배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사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 30분까지

선물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생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